

국립국어원 2009-01-5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56-01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담당 연구원: 김 선 철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주최한 남북의 언어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그 밖의 논문 두 편을 합하여, 총 15편의 논문을 한데 묶어 펴낸 것이다.

2009년 11월 7일 중앙대학교에서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국어원과 한국사회언어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조명하는 논문,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를 다룬 논문 등 우리의 남북 언어 통합 정책에 요긴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27일 서울 에이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국립국어원과 한국어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독일 통일기의 독어교육, 재외동포들의 민족어 교육 등에 대한 논문이 9편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 학술대회가 2009년 10월 20일과 21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두 연구원이 각각 북한어 자료 구축 현황과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가 남북의 언어 통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지역 학자들과 재외 동포들에게 소개하는 계기로 삼았다.

주요어: 남북 언어 통합, 언어정책, 국어 교육, 민족어 교육, 연구 현황

차 례

머 리 말	iv
일러두기	v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

1.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조남호	3
2.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김선철	15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3.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차재은	27
4. 남과 북의 통합 국어 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홍종선	53
5. 새터민 언어 적응 문제와 교육 방안 양수경	68
6.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향후 과제: 북쪽의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소개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이상혁	85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 7. 남북통일 시대의 국어 교육의 방향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전수태 … 101
- 8.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이희숙 …………… 113
- 9. 독일통일기의 독어교육 |이원경 …………… 129
- 10.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교육의 방향 |윤인진 …………… 139
- 11.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이선근 …………… 179
- 12. 남북 언어 규범의 차이와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 |김영수 …………… 189
- 13.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과 언어 사용 양상 |조의성 …………… 198
- 14. Koreans and Korean language at Uzbekistan |Bronislav Lee …………… 216
- 15. 해외 교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춘 …………… 221
- <Abstract> …………… 239

남북 분단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두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함으로써 두 지역의 언어는 점점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염려하여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남북 언어에 관한 공동 학술회의와 언어학 분야, 그리고 정책 분야 연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1996년부터 거의 매년 해오던 남북 언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남북 언어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를 열었고,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서 이 논문집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개원한 1991년 이래 수행한 남북 언어 연구의 그 수준과 성과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그러한 연구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학계 연구자분들과 같이 짚어보고자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국어원과 한국사회언어학회가 함께 2009년 11월 7일 중앙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조명하는 논문,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를 다룬 논문 등 우리의 남북 언어 통합 정책에 꼭 필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남북의 언어 이질화는 서로 다른 언어정책, 특히 언어교육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 언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남북의 언어교육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사는 우리 민족이 민족어를 지키기 위해 교육해 온 정황 역시 함께 토



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 한국어교육학회가 함께 ‘남북 국어 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2009년 11월 27일 서울 에이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논문이 9편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애써 국외에서 와 주신 네 분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가 2009년 10월 20일과 21일에 걸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두 연구원이 각각 북한어 자료 구축 현황과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가 남북의 언어 통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지역 학자들과 재외 동포들에게 소개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가 남북 언어의 통합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기를, 또 더욱 많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립국어원
원장권재일

● 일 러 두 기 ●

1. 이 논문집은 2009년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 연구 사업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2. 이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순서는 학술대회 개최일 순서 및 각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게재 순서에 따랐다.
3. 이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저자명 가나다순).

김선철(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 학술대회 자료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 44~51.

김영수(2009), 남북 언어 규범의 차이와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73~79.

김영춘(2009), 해외 교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101~114.

양수경(2009), 새터민 언어적응 실태와 교육방안,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57~68.

윤인진(2009),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교육의 방향,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33~64.

이상혁(2009),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향후 과제: 북쪽의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소개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8~80.

이선근(2009),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65~72.

이원경(2009), 독일 통일기의 독어교육,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23~30.

이희숙(2009),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9~22.

전수태(2009), 남북통일 시대의 국어 교육의 방향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1~8.

조남호(2009),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 학술대회 자료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 30~44.

조의성(2009),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과 언어 사용 양상,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80~95.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5~26.

홍종선(2009), 남과 북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7~40.

Lee, Bronislav(2009), Koreans and Korean language at Uzbekistan, 《제268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회의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자료집》, 96~100.

4. 논문 가운데에는 글쓴이의 희망에 따라 발표 당시의 내용이 수정되어 실린 것이 있으며, 글쓴이와의 협의에 따라 글의 의도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수정된 부분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개최 국제 학술대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한국학

2009년 10월 20일~21일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조 남 호
국립국어원

1. 서론

1991년 국립국어원(당시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 이하 ‘국어원’이라 함)은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개원하였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개원 때부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자료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어원에 부여된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북한어에 대한 조사 연구이어서 당시 연구2부의 업무로 ‘북한어 조사 및 연구’와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의 연구’가 직제에 명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은 북한에서 출판한 책이 소개되면서 남북 언어 이질화가 거론되던 무렵이었으므로 국어정책의 관점에서 남북 언어의 통일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조사 연구와 자료 구축에 북한어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었다.

그동안 국어원에서 수행했던 언어 자료 구축 관련 주요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1999년에 50만 단어를 수록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였으며, 10년 사업으로 2007년에 완료한 21세기 세종계획이 있다. 개원 이래 국어순화 사업을 펼치면서 꾸준히 국어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에는 2002년까지 나왔던 순화 자료집을 한데 묶은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을 간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자료집이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매년 새로 생기는 말을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해의 새말을 수집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서울 토박이말 조사를 몇 년에 걸쳐 추진하여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4년 이후로는 지역어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 자료 구축도 추진하여 10만 단어 규모의 음성 자료를

녹음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전과 연계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국어원에서 추진하였던 사업 중에서 북한 언어 자료에도 관심을 두었던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둘째는 21세기 세종계획, 셋째는 지역어 조사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은 국어원에서 1992년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999년에 7,000여 쪽, 3권 분량으로 간행한 사전을 말한다. 사업 착수 당시에 밝혔던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은 (1) 국민 언어 생활의 표준 제공 (2)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3) 오천 년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이었다(강인선, 1995:4).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뿐만 아니라 어문 규정의 차이로 표기가 다른 북한말까지도 대폭 수록한 50만 단어 규모의 사전을 편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3대 편찬 목적의 하나로 지적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편찬 초기부터 북한어를 수록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남북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서 북한어를 아울러서 사전을 만들기에는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1992년에 간행한 『조선말대사전』을 사전 편찬에서 주요하게 이용하였다. 이 사전은 간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에서도 복사본이 나와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일일이 검토하여 이중에서 북한어를 가려 사전에 수록하였다.¹⁾

그렇지만 북한어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전 편찬자들이 남한의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말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인터넷을 검색하여 도움을 얻는 방안도 있지만 그때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어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편찬자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거나 국어원에서 구축한 언어 자료에서 확인하는 정도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방언에서 쓰이던 말을 문화어로 대거 포함시키면서 남한의 관점에서는 방언이지만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쓰이는 말들도 많았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북한어로 인정하였다.²⁾

1) 실제 사용되는 말을 조사하여 사전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표준』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의 전문가가 함께 사전 작업에 참여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2) 이처럼 북한어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에서 북한어로 인정한 것 중에는 문제가 있는 단어도 포함

『표준』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말뭉치(코퍼스)를 활용하여 사전을 편찬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에 말뭉치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전 편찬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국어원에서도 사전 편찬에 말뭉치를 활용하기로 하고 몇 년에 걸쳐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표준』은 옛말, 방언, 북한어 등 다양한 단어를 수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뭉치의 구축도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일반 서적, 전공 서적, 고전 소설과 국어사 자료 등 5천만 어절 분량(소설책 약 1,000권 분량)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북한어의 경우에도 사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편찬을 위해 북한 자료를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지만 말뭉치를 구축하던 1990년대는 북한의 간행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제한된 범위로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컴퓨터로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사전 편찬에 활용하였다. 사전 편찬자들이 북한어에 대해서는 언어 감각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시하는 북한어 예문은 직접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어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간행된 사전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말뭉치로 확보된 자료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준』에 실린 북한어의 예문 중에는 『조선말대사전』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 출처가 분명한 것도 있는데 출처가 분명한 것은 국어원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에서 인용한 것이다. 아래 예를 제시한다.

감차대(형표북) 마음가짐이 야멸치다. ¶ 얼마 후에야 안해는 턱을 저으며 감차게 자기를 다잡았다. <<415 문학창작단, 은하수>>/녀인은 감차게 이발을 사려물며 비척비척 일어섰다. <<사령부로 가는 길, 선대>>

논창(명표북) ①물이 질척질척한 논바다. ¶ 적의 기마병들은 상체를 거꾸로 박으며 길옆 논창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선대>>/아직 논두렁 풀을 깎지 않은 풀 속의 좁은 두렁길을 걸어 나가자니 걸핏하면 발을 번디며 논창에 침병 빠지곤 했다. <<박태민, 성벽에 비낀 불길>> ②더러운 물이 고여 질척질척한 곳. 소들이 서 있는 구유 너머는 온통 논창이다. <<축원, 선대>>/그래도 그 어린것이 부엌 매

이 되어 있었다. 국어원에서는 2008년 인터넷 수정판을 내면서 북한어를 다시 점검하여 인터넷에서 쓰임이 확인되거나 그동안 추가로 확보된 자료에서 확인됨에 따라 북한어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북한어에서 제외하였다. 정희창, 이운영(2008:93)에 따르면 9,600여 항목이 남한어로 수정이 되었다.

질을 하느라고 부엌 바닥을 온통 논창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415 문학창작단, 은하수》

이렇게 하여 1999년 『표준』이 간행될 때 북한어는 7만여 단어가 수록되었다. 품사별로 수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범주 품사	주표제어	부표제어	계
명사	55,426	37	55,463
의명	85	0	85
대명사	16	0	16
수사	7	0	7
동사	3,073	6,399	9,472
보조동사	6	0	6
형용사	1,629	1,026	2,655
보조형용사	0	0	0
부사	3,988	414	4,402
관형사	19	37	56
조사	4	0	4
감탄사	86	0	86
어미	22	0	22
접사	22	0	22
어근	0	0	0
무품사	0	0	0
합산	64,383	7,913	72,296
통용	39	194	233
계	64,344	7,719	72,063

『표준』에서는 북한어를 수록할 때 남한에 대응하는 말이 있으면 풀이를 하지 않고 대응하는 남한의 단어를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직접 뜻풀이를 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없다는 것이 된다. 이처럼 뜻풀이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³⁾ 직접 뜻풀이를 한 단어의 수가 적지 않다.

3) 북한어에 대한 품사별 개수와 뜻풀이 유형에 따른 개수는 이운영(2002:41~43)에서 인용하였다.

뜻풀이 유형	표제어 수	표제어 예
직접 뜻풀이	50,675	감때군 생김새나 모양이 매우 험상궂고 몹시 사나운 사람.
남한 대응어로 돌림	20,883	별차기 '프리 킷'의 북한어.
혼합(다의어)	505	메주덩이 ① '메줏덩이'의 북한어. ②복스럽고 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계	72,063	

이처럼 남북의 언어를 아우른『표준』은 1999년에 발간된 이후에 전자사전 형태로 만들어져 보급이 되기도 했으며 2001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 인터넷 수정판을 발간하였다.⁴⁾

3. 21세기 세종계획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연구,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언어 정보 처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기계 번역, 인터넷 검색 등 언어를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도 많아지면서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언어 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초 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착수되었다. 1997년 기초 연구를 토대로 1998년부터 착수한 21세기 세종계획은 2007년까지 10년간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문화관광부 국어정책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어원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고 2005년부터는 국어원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여 마무리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은 다음과 같다.⁵⁾

- 국어 기초 자료 구축
- 국어 특수 자료 구축
- 전자 사전 개발
- 한민족 언어 정보화
- 전문 용어 표준화

4)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주소는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이다.

5)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ej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 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 글꼴 개발 보급 지원

국어 기초 자료 구축과 국어 특수 자료 구축은 말뭉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각종 현대 문헌, 역사문헌, 구어 등 다양한 말뭉치가 대규모로 구축이 되었다. 국어 기초 자료 구축에서는 현대문헌을 원문 내용 그대로 입력한 원시 말뭉치뿐만 아니라 형태소를 기준으로 원시 말뭉치를 분석한 형태 분석 말뭉치, 형태 말뭉치에서 동음이의 정보를 구분한 의미 분석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를 토대로 문장 단위의 성분을 분석한 구문 분석 말뭉치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였다. 10년간 원시 말뭉치는 6,400만여 어절, 형태 분석 말뭉치는 1,500만여 어절, 의미 분석 말뭉치는 1,300만여 어절, 구문 분석 말뭉치는 80만여 어절을 구축하였다. 『표준』 편찬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말뭉치도 파일 형식만 손질하여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에 포함되었다.⁶⁾ 전자 사전 개발은 각종 언어 정보 처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용 전자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보만 구축한 항목이 43만여 개이고 그중에서 모든 정보를 구축한 항목이 17만여 개이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에서는 국어 정보화 사업의 결과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문 규정 자료,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한국 방언 자료, 국어 어휘 역사 자료, 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 등 언어 자료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외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용어, 문자 코드 등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각종 언어 자원과 인력을 정비하는 일도 추진하였다.

10년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구축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북한어에 관련된 자료를 구축한 것은 국어 특수 자료 구축 사업과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에서이다.

먼저 국어 특수 자료 구축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한다.⁷⁾

6) 특수 자료 구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7) 국립국어원(2007)의 ‘Ⅴ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구축 현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였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구비문학	1,047,967	1,316,000								2,363,967
구어전사		503,122	500,127	550,110	401,037	492,151	393,884	550,102	280,789	3,671,322
한영병렬		291,675	754,662	800,335	900,521	851,538	480,662	502,834	171,295	4,753,522
한일병렬				184,099	181,341	240,555	220,339	207,752	67,792	1,101,878
북한해외	1,375,057	1,310,759	1,301,684	1,414,648	1,013,801	825,380	1,030,046	824,784	409,457	9,505,616
역사	717,236	772,569	1,024,770	625,110	225,939	708,915	708,270	508,406	359,619	5,650,834
한중불러						150,853				150,853
전문용어							1,000,067			1,000,067
합계	3,140,260	4,194,125	3,581,243	3,574,320	2,722,639	3,269,392	3,833,268	2,593,878	1,288,952	28,198,077

특수 자료 말뭉치 구축에서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현대문헌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형태 분석 말뭉치도 일부 구축을 하였으나 표에서 뺐다. 이 표에서 북한 및 해외의 말뭉치를 연도별로 구축한 양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사업 초기인 1998년부터 말뭉치 구축 마지막 해까지 꾸준히 자료를 구축하였다.

북한 및 해외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간행된 출판물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간행된 출판물도 일부 구축이 되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도 우리말로 된 출판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축한 것이다. 세종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연도별로 각 지역별 구축 양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어절수			
	북한	중앙아시아	중국	합계
1998	406,581		968,476	1,375,057
1999	1,310,759			1,310,759
2000	1,301,684			1,301,684
2001	1,414,648			1,414,648
2002	1,013,801			1,013,801
2003	566,646	258,734		825,380
2004	625,265	267,611	137,170	1,030,046
2005	372,214	141,483	311,087	824,784
2006	409,457			409,457
합계	7,421,055	667,828	1,416,733	9,505,616

북한에서 간행된 출판물이 많은 만큼 북한 자료가 제일 많이 구축되었다. 또한 북한 말뭉치를 구축할 때는 최대한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신문, 잡지, 교과서, 전문 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된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에서 남북한 언어를 아우르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중에서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은 빈도가 높은 1만 단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세세히 비교하여 밝혔다. 비교 결과 어문 규범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의미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차이가 있다면 이념적 내용이 가미된 파생 의미나 북한 지역의 방언적 의미가 추가된 정도였다. 이와 별도로 북한에서만 쓰이는 3,000개 정도의 북한어를 대상으로 말의 쓰임을 세세히 밝히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대략 13,000개의 남북한 말이 검토된 셈이다. 남북한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기술을 한 예를 하나씩만 제시한다.

까다

남 까다

북 까다

표기 남북 까다

발음 남북 까다

문법 남북 타동사//까, 까니

의미 [1]<남북> 껌질 따위를 벗기다. ॥ 마늘을 까다 / 밤 껌질을 까다 / 콩을 까다 / 왕골을 까서 돛자리를 까다. [2]<남북> 알을 풀어 새끼가 껌질을 깨고 나오게 하다. ॥ 병아리를 까다 / 새끼를 까다 / 물오리들이 알을 많이 깎다. [3]<남북>(속되게) 치거나 때려서 상처를 내다. ॥ 정강이를 까다 / 주먹으로 내지르고 구둑발로 까고, 때로는 종의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족쳤다. [4]<남북>(속되게) 남의 결함을 들추어 비난하다. ॥ 그는 특하면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들을 깎다. [5]<남북> 눈꺼풀을 벌리고 눈을 크게 부릅뜨다. ॥ 눈을 까다. [6]<남>(속되게) 옷을 벗거나 내려 속살을 드러내다. ॥ 바지를 까 내리다 / 그는 퍼렇게 멍든 옆구리를 까 보였다. [7]<남>(속되게) 뒤집어 보여 주다. ॥ 패를 까 놓다. [8]<남>(속되게) 술병 따위의 마개를 따고 마시다. ॥ 소주 두 병을 깎다. [9]<남>(속되게) 들추어 밝히다. ॥ 비리를 세상에 까 밝히다. [10]<북> 셈을 맞추어서 밝히다. ॥ 회계를 까다 / 모서리방의 상고머리가 로동자들과 무슨 계산을 까려는지 수판과 장부책을 들고 부역을 걸쳐 로동자들 방으로 들어선다. [11]<북> 단단한것을 깨뜨리거나 부서지게 하다. ॥ 얼음을 까다 / 바위를 까다. [12]<북> 쓰지 못하게 쳐부시거나 깨뜨려버리다. ॥ 인호는 아직 할일이 많아, 저놈의 화점을 내가 까겠다. [13]<북> 체육경기, 놀이 등에서 세계 공격하여 상대방의 수를 꺾다.

의미해설 [1]~[5]는 남북한 간 의미 차이가 없다. [6]~[9]는 남한에서만, [10]~[13]은 북한에서만 쓰이는 의미이다. 남한의 [6]과 [7]은 [1]에서 파생된 비유적 의미인데, 특히 [6]은 흔히 옷을 껌질에 비유하는 데서 '껌질을 까다'는 곧 '옷을 벗기다'로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것이다. [8]의 경우 남한에서 '술을 마시다'에 대한 속된 표현으로는 '까다' 외에 '꺾다'도 있는데 '까다'는 주로 '한 병 까다'처럼 '병'과 함께 쓰이는 반면 '꺾다'는 '한 잔 꺾다'처럼 '잔'과 함께 쓰이는 특징이 있다. [9]의 경우 북한에서는 주로 '까발리다'로 표현하는데, 북한 역시 [9]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남한에서도 일반적으로 '까발리다'를 많이 쓰며 '까다'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10]~[13]은 북한에서만 쓰이는 표현인데, [10]은 남한에서는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계산을 까다'는 '계산을 하다'처럼 북한의 '까다'가 쓰일 문맥에 '하다'를 쓴다. [11]~[12]는 남한의 '깨다'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북한의 '깨다' 역시 [11]~[12]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북한에서는 [11]~[12]의 의미로 '까다'와 '깨다'가 함께 쓰인다. 이러한 특징은 복합어에서도 나타나는데, 남한에서의 '깨부수다'에 대응하는 북한어는 '까부시다'이다(북한에는 '깨부수다'가 없다.). [13] 역시 북한에서의 특이한 쓰임인데, 남한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다'라는 구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까대다

남

북 까대다

표기 남북 까대다

발음 남북 까대다

문법 남북 타동사

의미 [1]<북> 잇따라 자꾸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호되게 비판하다. ॥ 그는 먼저 선손을 걸고 주태원을 까대기가 일수였다.

의미해설 북한의 '까대다'에 대응하는 남한의 단어는 '힐난하다'나 '닭아대다', '닭아세우다' 등이다. '힐난하다', '닭아대다', '닭아세우다' 등은 북한 표현에서도 쓰인다. '까대다'는 '까'와 연결어미 '-아' 그리고 '대'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까'는 '남의 결함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와 '대'는 '-아 대' 구성을 이루고 동사를 앞세울 때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에서 북한어 자료 구축과 관련되어 추진한 다른 사업 하나는 한국 방언 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3년에 걸쳐 남한, 북한, 중국 및 기타 지역의 방언 자료를 수집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따로 방언 조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간행된 각종 자료에서 방언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조사하였는데 이중에 함경도, 평안도 등 북한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 방언 검색 시스템에 포함된 항목은 4만여 개이다.

4. 지역어 조사 사업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지역어는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동안 지역어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대규모 조사는 1970년대 말부터 당시 정신문화연구원(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을 뿐이다. 이 사업에서는 질문지를 먼저 만들고 질문지에 실린 항목에 대해 남한 내 각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남한 내의 조사라는 한계가 있었고 방언간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한 면이 강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급격히 지역어가 소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원에서는 지역어가 소멸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지역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어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새롭게 질문지를 만들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 제보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한 구술발화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조사 지역을 국내 외의 모든 한국어로 넓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동포 거주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 지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조사 지점
2004년 ⁸⁾	○ 국내(8지점): 경기 광주, 강원 삼척,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충남 공주, 전북 완주, 전남 함평, 제주 건입 ○ 국외(4지점): 중국 판스, 중국 둔화,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05년	○ 경기 화성, 강원 원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충북 제천, 충남 대전, 전북 남원, 전남 곡성, 제주 한림
2006년	○ 경기 포천, 강원 양양, 경북 청송, 경남 창원, 충북 청원, 충남 논산,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제주 서귀포
2007년	○ 국내(9지점): 경기 파주,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고령, 경남 산청, 제주 표선 ○ 국외(2지점): 중국 길림성 경신진 회룡봉,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8년	○ 경기 양평,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충남 예산, 전북 고창, 전남 보성, 경북 청도, 경남 남해, 제주 구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내를 9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한 지점씩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국외의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북한 지역에 대한 방언 조사도 계획하여 북한 내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국외의 조사에서 북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동포들의 방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공동으로 지역어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에서 지역어 조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지역어 조사 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구술 발화는 책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11권이 책으로 나왔으며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한 음성 파일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 음성 파일을 정리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자료가 정리가 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예를 제시한다.

표준어	지역어 듣기 🗣️	
갈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 (화성) 갈키(포천) 갈퀴 ■충북 : (제천) 각찌(청원) 갈키 ■전북 : (남원) 갈키(무주) 깔쿠리 ■경북 : (상주) 깔끼, 깔꾸리(청송) 까꾸리 ■제주 : (한경) 글갱이(서귀포) 글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 (원주) 각찌(양양) 갈키 ■충남 : (대전) 갈키(논산) 갈키 ■전남 : (곡성) 갈키(진도) 갈꾸 ■경남 : (창원) 까꾸리(창녕) 까꾸리
개숫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 (화성) 개숨물(포천) 개순물 ■충북 : (제천) 자심물(청원) 자심물 ■전북 : (남원) 귀영물(무주) 꾸중물, 자심물 ■경북 : (상주) 꾸중물(청송) 꾸정물 ■제주 : (한경) 그륄 시슬물, 설거지물(서귀포) 구정물, 구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 (원주) 자심물(양양) 설거지물 ■충남 : (대전) 자순물(논산) 자심물 ■전남 : (곡성) 귀영물, 꾸정물(진도) 기영물 ■경남 : (창원) 기밍물(창녕) 꾸중물
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 (화성) 거적(포천) 덕석 ■충북 : (제천) 꺼치(청원) 꺼작때기 ■전북 : (남원) 덕씩(무주) 꺼적때기 ■경북 : (상주) 덕씨기(청송) 자근몽석 ■제주 : (한경) 도곰, 거적(서귀포) 거적때기, 거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 (원주) 거적때기, 거적(양양) 거적 ■충남 : (대전) 꺼적, 꺼치(논산) 꺼적때기 ■전남 : (곡성) 꺼적(진도) 꺼적 ■경남 : (창원) 꺼지기(창녕) 꼬지기

8) 사업 첫해인 2004년에는 지역어 조사 방법을 수립하고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조사 지침 및 질문지를 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12지점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하였다.

5. 결론

남북의 언어 통일은 남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 남북한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남북의 언어 통일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으로 앞으로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언어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어원에서는 남북의 언어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선(1995), 사전 편찬 방향 및 현황, 새국어생활 5-1.
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백서(1998~2007).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정희창·이운영(2008), 2008년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국립국어원.
조남호(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김 선 철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1. 서론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이제 곧 60년이 된다. 예로부터 6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인생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회갑’이므로 어찌 보면 인격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계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 60년을 이에 비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의미 깊은 전기를 맞이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부족이나 종족의 개념을 이어받아 명맥을 유지하면서 국가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금과 같은 지연, 혈연, 정치의 복합 공동체를 이루었다. 수 만 년 동안 차근차근 형성되어왔을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가족과 친지가 갑작스레 타의에 의해 갑자기 떨어져 살아야 했던 남북 분단은 비극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언젠가는 다시 합쳐져야 할 숙명을 의식하며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이라는 그날에 대비하여 통일 방안 및 북한에 대한 연구를 각 분야에서 행하여 왔다. 언어 문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분단을 겪은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은 민간의 왕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방언 차이를 넘어서는 언어 이질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결과가 민간의 대북 지원 사업 또는 경제 협력, 당국자간 교류에 있어서 겪는 의사소통 즉 언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맡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그 전신인 국어연구소 시절에서부터 북한의 우리말(앞으로 ‘북한어’로 이름)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조

사전을 만들거나 규범언어의 통일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본고는 국립국어원 또는 이를 관할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989년 이후 수행한 북한어 및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역대 남북 언어 연구 사업 개요

국립국어원은 1991년 1월 23일 문화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제 13163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 당시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그것은 국립국어원의 전신이었던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이었던 국어연구소(1984년 5월 10일 설립) 시절의 임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 분야 또한 다양해지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2004년 11월 11일부터였으며, 이는 연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문정책의 수립과 집행까지를 아우르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국내 어문정책과는 달리 북한의 우리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어연구소를 비롯한 국립국어원의 활동은 연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크게 북한어의 현황에 대한 파악, 남북한어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한 이질화 연구, 남북한어의 통일 방안 연구 등으로 대별되는 주제에 한정될 수 있다.

먼저 북한어에 대한 파악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 또는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송이나 각종 서적류, 신문 등으로만 북한어를 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간간히 귀순하거나 망명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전에는 지금처럼 북한어 제보자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집된 북한어는 문어적인 것으로 한정되었다. 즉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생한 구어는 거의 수집되지 못했고, 그 점은 문화어보다는 방언 자료에서 더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일부 방언 자료가 전사된 형태로 입수될 예정이며, 근래에는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연구한 북한 방언학 업적 또는 중국 내 북한 접경 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사람들의 북한어 연구 업적이 있어 점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 북한어에 대한 자료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21건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어 자료에 대한 연구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북한 언어 자료집 I·II	국어연구소	1989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	국립국어연구원	1992
북한 국어사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한자어·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I)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I)	국립국어연구원	1994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II)	국립국어연구원	1994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V)	국립국어연구원	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V)	국립국어연구원	1996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998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1999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003
제3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4
제5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5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7

이 가운데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해설에 등장하는 어휘 1417개, 표준어 규정 관련 어휘 1461개, 표준어 모음에 등장하는 어휘 1210개 각각에 해당하는 북한어를 조사하여 남북의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I)’에서는 조선말사전(1962)와 조선말대사전(1992) 사이의 장단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서 13000여 개의 단어에서 장단의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II)’에서는 현대조선말사전(1981), 조선말대사전(1992)에 등장하는 순화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V)’에서는 조선말대사전(1992)의 속담과 관용구를 분석하였고,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V)’에서는 현대조선말사전(1981)의 비순화 허용어휘가 조선말대사전(1992)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석하여 문화어 정책의 추이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는 남북의 사전을 기본으로 하여 차이 나는 외래어를 모으고 여기에 미등재 외래어를 더하여 기본 조사 목록을 만들어서 북한 출신 주민에게 확인하

여 알고 있지 않은 외래어를 찾아낸 결과로서, 모두 8284개 어휘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에서는 조선말대사전(1992)에 없는 미등재어와 신어를 여러 언어자료에서 찾아낸 것인데, 모두 670개가 모아졌다.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는 북한의 중앙방송, 평양방송을 비롯한 9개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청취하여 방송에 쓰이는 용어를 수집한 결과이다.

북한어 자료에 대한 연구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것이다. 남북한의 언어가 서로 계통이 다르거나 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린 친족언어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적인 차이가 나면서도 규범 어휘와 음소의 음가, 억양 및 음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언어 차이’라고 표현하는 듯하다. 이런 연구는 모두 11건이 이루어졌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 고유어 편)	국어연구소	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I. 한자어·외래어 편)	국어연구소	1990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2000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3
남북 문자코드 변환 시스템 개발	국립국어원	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4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원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8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최근의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007)는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인데, 이에 이어지는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2008)에서도 예상대로 상당한 이질화 경향이 목격되었다. 후자에서는 국어 문법,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학술 용어를 추출하고, 그 용어들을 형태론적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남북 용어들을 대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용어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된 용어 관련 종합 통계

분야	남한 용어의 수	북한 용어의 수	대응쌍의 개수	동어쌍의 수	이어쌍의 수	대응쌍 중 동어 비율 (%)	대응쌍 중 이어 비율 (%)
국어 문법	604	262	105	37	68	35.2	64.8
문학	462	229	41	31	10	75.6	24.4
한문	76	75	23	10	13	43.5	56.5
음악	1647	481	158	90	68	57.0	43.0
미술	493	257	49	30	19	61.2	38.8
국토 지리	1149	478	58	37	21	63.8	36.2
세계 지리	678	1104	155	91	64	58.7	41.3
지구과학	1914	580	258	137	121	53.1	46.9
기술	869	1333	116	62	54	53.4	46.6

여기에서 남북 교과서 용어에서 대응쌍이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것들은 크게 ‘어휘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차이’, ‘표기법에 따른 차이’, ‘외래어 수입원에 따른 차이’, ‘어형에 따른 차이’, ‘기타 표현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전체 차이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과목마다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남북 교과서의 항목별 차이 비율

구분	국어문법	문학	한문	음악	미술	지리	세계 지리	지구과학	기술	평균
어휘의 정체성	77.9%	30%	30.7%	29.4%	31.5%	38%	6.5%	60.7%	23.5%	36.6%
표기법	0	20%	0	27.9%	21%	14.2%	82.9%	7.8%	44.1%	23.8%
외래어수입원	0	0	0	0	0	0	1.3%	0	0	0.3%
어형	0	0	0	2.9%	0	0	0	3.9%	0	0.8%
기타	22.1%	50%	69.3%	39.8%	47.5%	47.8%	9.2%	27.4%	32.3%	38.5%

남북한의 언어 문제를 접근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면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규범 언어를 단일하게 정립하려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규범 언어를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성립 과정도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어문규범의 변천에 대한 연구, 순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표2>에 있는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도 일부는 북한의 언어정책에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목록은 <표5>와 같다.

〈표 5〉 북한의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99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2005]	국립국어원	2005

북한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할 때는 특정한 주제가 필요하며, 정부 기구 사이의 교류 접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측에서 실질적으로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수한 학문 연구자들의 접촉은 승인되었고, 그러한 점을 활용하여 국어원에서는 남북 언어 연구라는 주제로 다음 절에서 소개할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다년간 개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북한의 국어학 연구 논저를 해제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고 또 연구 서지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을 하여 국어학 연구자들을 위해서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서지 목록은 모두 7500여 개이고 현재 국어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⁹⁾. 이러한 연구를 포함한 북한의 국어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4건이다.

〈표 6〉 북한의 국어학에 대한 연구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2001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의 국어 연구 자료 구축 1[1946-2000](시디롬)	국립국어원	2004
북한의 국어 연구 논저 목록 2[1946~2004](시디롬)	국립국어원	2005

주지하다시피 언어와 관련된 남북의 당면 과제는 규범언어 부문의 이질화를 극복하면서 교류로써 상호간 언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언어의 언어통일은 본격적인 정책적 임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2004년 11월 이전까지 언어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었던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가 이 분야에 대한 용역 연구 2건을 수행하였으며, 정책 업무를 이관 받은 국어원이 2007년에 전문분야의 용어 통일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이렇게 언어통일에 대한 연구는 모두 4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이란 서로의 의지가 모아져야 가능한 것이므로 연구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9) http://www.korean.go.kr/08_new/data/book_list.jsp

〈표 7〉 남북 언어통일에 대한 연구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1996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2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3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2007

3. 국어원의 역대 남북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현황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문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적 연구,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비교 및 대조), 북한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 북한의 국어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남북 언어 통일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남북 언어 교류 차원에서 중국에서 개최된 남북 언어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총 7차례 참가하였는데, 그 목적은 첫째, 남북 언어학자가 직접 교류하여 남북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남북 언어의 통일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국제 학술회의의 성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순수한 언어학적 연구 주제 발표가 1차 회의 1건, 통일에 관한 논의가 3건(2차, 3차, 6차), 자료 구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2건(4차, 5차), 민족어 보존에 대한 논의가 1건(7차)이었다. 역대 개최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역대 남북 언어 국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참석자수	주최기관
1차	'96. 8.5.~7., 중국 장춘	남북 언어에 관한 연구 발표 16건	16	장춘 민족사무위원회
2차	'01.12.14.~16., 중국 베이징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모임	28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3차	'03.11.5.~10., 중국 베이징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32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
4차	'04.6.22.~25., 중국 베이징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27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
5차	'04.12.22.~25., 중국 선양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 학술 모임	12	중국 선양시 고려민족문화연구소
6차	'05.12.13.~15., 중국 선양	민족어 어휘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26	중국 선양시 고려민족문화연구소
7차	'07.11.17.~18., 중국 연길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33	중국 연변대학교

4. 결론: 전망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로부터 문화부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북한어 관련 연구 현황, 그리고 남북 언어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문어적인 자료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고, 언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단독 연구에 그쳤으며, 규범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비교·대조 작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어를 넘어서서 북한의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남북의 언어 이질화에 대한 더욱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북한의 구어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언어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여건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남북 언어 교류의 태도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본격적인 남북 교류 또는 통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언어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부록: 문화관광부 및 국어원 역대 남북 언어 연구서 목록〉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 고유어 편)	국어연구소	1989
북한 언어 자료집 I·II	국어연구소	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I. 한자어·외래어 편)	국어연구소	1990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	국립국어연구원	1992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992
북한 국어사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한자어·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I	국립국어연구원	1993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I)	국립국어연구원	1994
북한의 한자어·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1994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V)	국립국어연구원	1995

제 목	발행 주체	연도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V)	국립국어연구원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1996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998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2000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2001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002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3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003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3
남북 문자코드 변환 시스템 개발	국립국어원	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4
북한의 국어 연구 자료 구축 1 [1946-2000] (시디롬)	국립국어원	2004
제3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4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2005]	국립국어원	2005
북한 국어 연구 논저 목록 2[1946~2004](시디롬)	국립국어원	2005
제5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5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7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2007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원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8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공동 학술대회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2009년 11월 7일 / 중앙대학교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차재은
경기대

1. 서론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의 규범어를 비교하거나 북한의 국어학을 조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¹⁾, 이 연구들은 남북 언어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언어 정책, 언어 규범, 언어 이론, 언어 교육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거나 북한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국어학사적으로 기술하거나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는 것 등이 북한어 연구의 주요한 관심 영역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 언어의 비교를 넘어서 언어 통일 내지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사적 반성은 조오현(1997), 박종갑(2007) 등에서 검토된 바 있는데,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이 진행되고 있고 《국어발전기본계획》의 10대 추진 과제²⁾ 중 하나로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이 선정된 이 시점에서, 남북 언어 통합에 관한 연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이 주제와 관련한 이론 연구와 실천 방안 모색에 필요한 일로 보인다.

1) 국립국어연구원(2001)을 보니, 1970년대부터 이 시기까지 나온 북한어 관련 논저는 760여편이고 이중 단행본만 해도 84권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김민수의 《북한의 국어연구》(1985, 고려대 출판부)를 시작으로 북한어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남호(2007)을 참조할 수 있다. 21세기 언어 환경과 국어정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은 조남호(2008)을 참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 언어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남북 언어 교류의 결과 내지 합의 사항들과 비교해 보려 한다. 현황 검토의 대상은 ‘남북언어 통합(통일)방안, 남북 언어 이질화 극복 방안’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룬 저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보고서 등으로 한정하였다³⁾. 따라서 남북한어의 단순 비교나 국어 교육 문제에 초점이 놓인 연구는 본고의 사료 문헌으로 삼지 않았다. 이 주제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논의도 있을 것이나 충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남북한의 언어통합 방안을 비교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를 가능한 한 다각도로 조망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연도와 주제를 중심으로 언어통합 연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기존의 언어통합 연구에서 제시된 통일 방안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한의 언어 교류 현황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성과의 분류

이 장에서는 발표 연도와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성과를 분류해 보려 한다. 연구 내용은 언어 정책을 중심으로 남북언어 통합방안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이면 ‘총론’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어문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제시된 연구는 ‘어문규범’으로 분류하되 맞춤법(자모순서, 띄어쓰기 등 포함),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표준어(규범어) 문제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또 규범문법은 어문 규범의 바탕이 되므로 어문규범 속에 포함시켰고 이 외의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1>은 본고의 사료 문헌을 연도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이다⁴⁾.

3) 저서 중 논문은 독립된 글로 간주하였다. 제목에는 극복 방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에 구체적 극복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김택구(2001), 김용범(2002) 등은 사료 문헌에서 제외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목에는 ‘언어 통합’과 같은 주제가 없더라도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박종갑(2007)과 같은 연구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필자의 불찰로 본고에서 빠뜨린 연구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하지 못한 논저의 연구자분들께는 미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4) 발표 연도가 같을 경우, 논문명은 발표자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제시하였다. 홍중산·최호철(1998)처럼 맞춤법과 규범어에 걸쳐 있는 논문과 고창운(1999)처럼 총론과 맞춤법이 같이 제시된 논문의 경우 편이상 ‘맞춤법’과 ‘총론’으로 분류하되, 3장의 논의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1>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연도별, 내용별 분류

연도	내용	총론	어문규범					기타	계
			맞춤법	표준어 (발음)	규범문법	로마자	외래어		
1985		김민수, 이현복 홍사만							3
1989		고영근, 박선우 이응백, 이준석							4
1990		남성우							1
1992			김경석						1
1994		고영근, 박영순	기서관최호철박갑수						4
1996		이주행							1
1997		신종섭, 조오현 홍아영	김하수						4
1998		김민수, 신석환	홍종선최호철						3
1999			고창운						1
2000		고도흥, 이윤표 전수태							3
2001		이운삭김미영	전수태	최호철 김태식	고영근		김병선 (정보기술용어)		6
2002		김민수, 남기심 박갑수, 방혜숙	박선우, 박일순 안병섭, 장은하정훈탁	홍종선 최호철		박봉곤	신은경	김기석(국어순화), 이봉원(언어공학), 오미정(사전편찬)	16
2004					권재일				1
2007		최용기		박종갑 한용운					3
2008		한용운							1
계		27	11	6	2	1	1	5	52

<표 1>을 통해 어떤 시기에 어떤 주제로 남북 언어통합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먼저 시기별로 보면, 6·15 남북 공동 선언 직후인 2001년과 2002년에 남북 언어통합 논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물 52편 중 이 시기의 연구가 22편이다. 남북의 언어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어통합은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주제별로 보면, 각론보다는 총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론을 다룬 연구가 27편이나 되지만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학자들 사이의 이견이나 논쟁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세부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를 다룬 연구가 17편으로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언어통합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언어통합의 문제를 ‘규범어 통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맞춤법 통합 안은 세부적인 해결책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규범어’ 통일 문제에서는 ‘복수표준안’이 대세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남북언어 통합방안 비교

이 장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언어통합 방안을 비교해 본다. 3.1에서는 총론에 속하는 주요 연구내용을 발표 연도 순서로 소개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언어통합 방안을 종합해 본다. 3.2에서는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같은 주제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3.1 총론: 포괄적 언어 정책과 기본 원칙

이 절에서는 총론에 속하는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성(통합방안의 구체성), 현실성(통합방안의 실현가능성), 타당성(통합방안의 남북간 형평성과 언어학적 가치)을 기준으로 각 연구의 성격을 가늠해 보려 한다.

북한어 연구 분야의 선도적 업적으로 꼽히는 김민수(1985)에서는 남북언어 통합방안으로, 정서법의 통일과 개선, 어문문제 해결, 국어사전과 규범문법, 사전편찬, 방언과 지명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남북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화된 방안으로 전개된 단계는 아니다.

이현복(1985)에서는 남북한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류 확대, 언어학자들의 전문적 연구, 남북 언어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교류 확대와 공동 연구의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언어학자들의 전문적 연구는 타당성을 지닌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어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이 언어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홍사만(1985)은 언어 통일 방안으로 접촉과 교류), 북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남북 공동연구, 남한 학자들의 국어 연구와 언어정책 통일(한글전용지지)을 들고 있는데, 공동연구의 전제로

‘북의 태도 변화’라는 단서를 단 것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한글전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어정책 통일안은 북한의 언어 정책을 고려해볼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고영근(1989)에서는 남북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방안으로, 북한 간행물 및 방송의 일반 공개, 통일 맞춤법 제정, 남북한 어휘사전 편찬, 규범문법의 편찬, 대조사전 편찬, 훈민정음, 주시경, 향가해독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학자간 의견 교환을 들고 있다. 북한 방송의 일반 공개는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훈민정음, 주시경, 향가해독’과 같은 비 이념적 연구 주제의 제시는 구체성을 얻고 있다.

박선우(1989)에서는 민족어의 통일방안으로, 남북간 교류와 대화, 남북한 연구소 교류를 통한 자료 제공,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정기적인 모임, 기초 한자 등의 한자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⁵⁾, 국가적 연구기관의 설립, 남북한 공동사전 편찬(남북 어휘 별도 표시, 의미 다른 말인 경우 풀이 수록)을 제시하였다. 이중 국가 연구 기관의 설립과 남북한 연구소의 교류 안은 공동연구의 방안 중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교환, 언어회의, 한자문제 등은 남북한의 책임 있는 연구, 정책 기관이 관여했을 때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응백(1989)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확인, 북쪽이 체제의 필요에서 만든 발음, 뜻풀이 등을 본래대로 환원, 남북 학자들이 꾸준히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두 번째 주장은 상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준석(1989)에서는, 한자 빈도수 조사를 통한 기본한자와 필수한자 목록 작성, 표준어의 선정과 철자법의 실용화, 한국어의 표준화, 한자개혁, 방언학, 사전편찬, 신어 등의 연구과 조사를 주관할 국가기관 설치,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한 말다듬기와 새말만들기의 보급 등으로 선행연구의 방안을 요약하였으나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성우(1990)에서는, 언어학적 해결 방법으로 남북언어공동연구위원회(가칭) 설치, 북한 간행물의 일반 공개, 통일 맞춤법 제정, 통일 규범문법, 남북한 공통 한국어사전 편찬을 제시하고 그 밖에 북방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는데, 언어학적 해결 방안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고영근(1994)에서는 ‘개화기 이래의 민족어수호운동은 남북한 어문정책의 직접적 뿌리’임을 강조하고 남쪽의 국어순화운동과 북쪽의 문화어운동을 통합하여 우리말순화운동을 거족적으로 벌이자는 내용을 문면화하고 통일 표준어는 남북에서 쓰이는 모든 어휘를 망라하여 사전에 등록 하되 최종 판정은 언어대중에게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다듬기와 순화운동의 결합, 통일

5) 이현복(1985)에서는 교류 확대의 목적으로 ‘언어 차이 실감’과 ‘문제의식 도출’을, 홍사만(1985)에서는 ‘문제 직면’을 들고 있는데, 북한과의 문화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문제의 발견이나, 차이의 확인도 교류 목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6)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C-W. Kim(1978)에서 제기되었다.

표준어에 대한 관점은 구체적이고 선도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맞춤법과 한자문제의 해결을 낙관하고 있는데, 맞춤법 제정 및 사전편찬과 직접 관련 있는 통일규범문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상용한자통일안>을 제정하여 새김과 음을 표준화한 후 <통일옥편>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영순(1994)에서는, 어문 규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공동위원회 구성, 문법, 학술용어, 전문용어, 기초어휘, 기본적인자 책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외 양국 사전을 대조 조사한 후 어휘를 평정하는 일과 통일 표준어 제정, 표준 발음 사전, 표준한국어사전, 통일지명사전의 편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이주행(1996)에서는 국교 정상화와 자유 왕래, 신문, 잡지, 문학작품, 라디오, 텔레비전 개방, 민족어 연구소와 민족 언어 연구 협의회 설립, 북한의 어휘 순화 작업을 중단과 언어관 수정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자유 왕래와 방송, 문화 개방 및 언어관 수정은 북한의 정치, 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남한에서 외국어를 차용할 경우 번역 차용하며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을 통제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매우 타당한 방안이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조오현(1997)에서는 언어통일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를 평가하면서, 선행 연구들은 상호 교류를 주장하는 추상적 주장이 많고 언어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기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⁷⁾. 이 연구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국어 발전’을 기준으로 기존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 작위적 북한어의 침투가 국어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북측 간행물과 방송 청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맞춤법 제정은 북한 학자와의 토론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남한 학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통일맞춤법 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한 학자들만의 통일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통일문법은 학문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문법용어를 통일하는 선에서 멈추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통일문법과 학문 침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고 남북 언어통일 준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표준어, 표준발음, 문법문제, 한자문제, 통일사전, 맞춤법 등의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어휘사전과 대조사전 편찬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대조사전을 간행하되, 다양한 용례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대조사전에서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지는 제안은

7) 이 연구에서는 교류에 비중을 둔 구체안이 김경석(1992)뿐인 것으로 보았으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기세관최호철(1994)에도 맞춤법에 대한 구체안이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신종섭(1997)에서도 민간 교류, 언어학자 회의, 공동 표준어 설정, 서신 왕래, 대중매체 개방 등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기존 연구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점은 홍아영(1997)도 마찬가지이다.

김민수(1998)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호혜원칙을 전제로, 남북의 규범이 다른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절충하고 절충할 수 없는 것은 복수로 수용하자는 두 가지 통합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92년 합의된 로마자 표기법 남북단일안이 남측 모음, 북측 자음 표기로 절충된 바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확장하면 두음법칙도 형태주의를 존중하여 ‘락원’으로 표기하되 [낙원]으로 읽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남북이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절충안을 만든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남한에서 이미 복수표준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수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고영근(1994)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1998)은 언어통일의 대비책으로,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현행 맞춤법을 개정하고 국어순화의 결과를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며, 일어잔재 청산 연구를 남북 공동으로 하며, 상대측의 언어를 교육하고 보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모두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석환(1998)에서는, 남북한 공동언어연구소 설치 후 타 기관과 교류, 공동연구소는 하부 기관을 두고 표준화 문제를 연구할 것, 민족어사전을 편찬할 것, 한자어, 방언 문제 등은 대학의 연구기관에 맡긴 후 업적을 모아 규정을 통일할 것, 언어 통일 문제를 남북대표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채택할 것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중앙집중식보다 분권식 연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이 언어통합에서 효율적이지, 현실화될 수 있는 주장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창운(1999)에서는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북한은 이념과 연관시킨 언어관을 버려야 하며 어문규정 통일은 남한에서만이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외에 남북한 통일 어문규정 시안을 마련하고 대조 사전을 편찬하며 국어과 교육과정에 북한말의 이해를 포함시키고 남한 정부 당국은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순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은 언어통일을 위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고도홍(2000)에서는, 의사소통, 언어 정책 수립, 학자 교류 차원에서 세부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사소통 차원에서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공중파를 허용하고 언어 문제를 강조하며 서신 왕래를 통한 남북한의 문자 교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전면개방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언어정책에서는 남북한 문화교류공동위원회(상설)를 설치하고 그 아래 ‘언어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며 판문점에 공동위원회를 두어 그 안에 언어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협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정치적 변수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제안이다. 학자 교류 차원에서는 통일을 가정한 민간차원의 어문정책 토론회를 가지고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고자 제안하였는데, 언어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한다는 면에서 필요한 일로 보인다. 또, 기초 한자 선정 교육, 공동 표기법, 민족어사전 편찬, 국어순환 방향 조율 등의 공동어문정책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수태(2000)에서는 언어 동질성 회복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긴요한 것이고,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함을 전제로 하여 통일 국가인 독일·베트남의 언어 문제를 고찰하고 민족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학자의 교류가 필요하며 통일되어야 할 과제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학술전문용어, 외래어 표기, 규범 문법, 통일사전 편찬, 국어 정보화 및 과학화, 모국어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는 통일 방안의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풍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운표(2000)에서는, 남북 국어 연구자 및 정책 관련자의 인적 교류와 방송 및 출판 서적 교류의 확대, 상대의 언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위주의 연구로는 남북 언어 차이 실상을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분석하여 남북한 언어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언어통일은 곧 규범어 통일이라고 본 기존 연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언어 통일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운식·김미영(2001)에서는 이질화의 극복 방안으로, 남한에서는 교과서에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을 싣고 외국어와 외래어 남용을 통제할 것을, 북한은 언어 정책을 바꾸고 인터넷을 보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 남북한 모두 통일의 필요성과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관련 학자들의 접촉을 통해 남북 공통 통합 사전을 제작하고 표준어를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기심(2002)에서는 남북 언어의 차이는 방언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질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자연과학, 기술 분야와 같이 정치적 이념과 관계가 없는 분야의 서적을 상호 개방하고 학술 논문을 교환하고 사회 체제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용어를 통일하고 말다듬기를 공동으로 하되, 말다듬기 작업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 말뭉치를 교환하고 제공하며 전국적인 방언사전의 편찬도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은 작업은 국립 어문 연구 기관에서 추진해야 효율적일 것이므로 타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실천에 있다.

박갑수(2002)에서는 언어통합을 위해서는 언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질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며 매스컴을 개방하고 민간 교류 정책을 활성화하며 남북 통합사전을 제작하고 표준어는 연방식 통합형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하였다. 맞춤법, 표준발음은 ‘표준체계 구안 통합형’으로 복귀할 것을, 북한은 교육 목표를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김민수(2002)에서는 절충과 복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방안(김민수, 1998) 외에 제 3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령, 한글 가나다순은 중요한 이론적 문제와 결부된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일제하 공동시대에 행하던 가나다순을 새로운 통일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방혜숙(2002)에서는 통일 시대의 언어 정책으로, 통일 언어 정책 공동 기관 설치, 통일 언어 정책 전문가 양성, 통일 언어 정책 평가 자문 기관 설치, 민간인의 참여 유도를 제시하였다. 통일 언어 정책을 위한 공동 기관은 남북의 언어 연구 기관의 교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전문가 양성과 자문 기관 설치, 민간인 참여 등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최용기(2007)에서는,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으로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범민족 기구(민족어 공동 연구소)를 만들고 우리말 순화 운동을 범민족적으로 벌이며,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남북 공동의 통합 사전을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용운(2008)에서는 언어통일 방안으로, 겨레의 활발한 교류, 통일 전까지 어문 규범 개정 금지, 남북 언어 통합 사전 편찬, 어문 규범, 문법 등을 논의할 남북 협의 기구 창설을 제안하였는데, 통일 전까지 규범 개정 금지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 언어 차이가 주로 어휘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는 ‘규범어 비교→규범어 통합→규범어 통일’과 같은 단계적 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홍종산·최호철(1998)에서 제시된 ‘표준어와 문화어 비교 사전→표준어와 문화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단일 표준어로 조정’ 방안과 유사하다.

이상으로 남북언어 통합 논의를 총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총론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방안을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대분류하고 연구자 및 현실적 전개와 관련지어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⁸⁾ (대체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 성과도 있지만 미해결 문제도 있는 경우 △, 방안에 비추어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으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8) <표 2>에서 주요 연구는 발표 연도순으로 제시하였고 주요 방안은 현실화 정도에 따라 배열하였다. 현실화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수태(2000), 소강춘(2003),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등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하였다.

〈표 2〉 남북언어 통합방안과 실현 정도

실행 주체	주요 방안	주요 연구	현실화 정도
남	언어학자들의 전문적 연구	이현복(1985), 홍사만(1985)	북한어 연구 성과 축적 (○)
	국가적 연구기관의 설립	박선우(1989)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
	복수로 수용(표준어 정책)	김민수(1998), 고영근(1994)박갑수(2002)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북한 전문 도서관 건립	조오현(2007)	198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대조사전 편찬	고영근(1989), 조오현(1997)고창운(1999)	남북한 어휘 차이 조사 I ⅢⅢ, 북한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남북한말비교사전(조재수, 2000) 남북통일말사전(두산동아, 2006) (○)
	상대 언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	김민수(1998), 고창운(1999), 이윤표(2000)	초중고 교과서 일부 내용 포함 소수 대학 강좌 개설(△)
	북한 간행물 및 방송 전면 공개	고영근(1989), 남성우(1990)이주행(1996), 고도흥(2000), 이윤표(2000)	일부(△)
	북한 주민의 생활 용어 분석	이윤표(2000), 박종갑(2007)	국립국어원, 개별 연구자들 새터민의 언어 적응, 사용 연구(△)
	우리말 순화 운동	최용기(2007)	연구 자료 많으나 실현 부족(△)
	상호주의에 입각한 절충	김민수(1998)	《겨레말큰사전》 어문규정(△)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통제	이주행(1996), 고창운(1999)	현실적 통제 방법 없음(△)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맞춤법 개정/통일 전까지 개정 금지	김민수(1998), 한용운(2008)	2000년 로마자 표기법 개정은 1992년 단일안과 다름. (×) ⁹⁾
	남한의 언어정책 통일	홍사만(1985)	?
	제 3안(구안으로 규범 통일)	김민수(1998), 박갑수(2002)	?
	민간 차원의 어문정책 토론회	고도흥(2000), 방혜숙(2002)	?
	범민족 기구 출범	최용기(2007)	?
	통일 언어 전문가 양성	방혜숙(2002)	?
	통일 언어 정책 평가 자문 기관 설치	방혜숙(2002)	?
	북	언어관 및 언어 정책 수정	이주행(1996), 고창운(1999)
	통합 어휘사전 편찬	고영근(1989), 박선우(1989)남성우(1990), 신석현(1998)박갑수(2002), 최용기(2007) 한용운(2008)	2013년 간행 목표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진행 중(○)
	맞춤법 통일(시안)	고영근(1989), 남성우(1990)고창운(1999)	《겨레말큰사전》 편찬용(△)

실행 주체	주요 방안	주요 연구	현실화 정도
남북	남북학자간 접촉과 교류	홍사만(1985), 고영근(1989)박선우(1989), 전수태(2000)이윤표(2000), 한용운(2008)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1996) 남북국제학술회의(2002-04)(△)
	남북한 연구소 교류	박선우(1989)	남 국립국어원, 북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간접 교류(△)
	비정치적 분야의 학술 교류	남기심(2002)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회의,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 등(△)
	남북 공동 위원회(협의 기구) 구성	남성우(1990), 박영순(1994)이주행(1996), 조오현(1997)신석환(1998), 고도홍(2000)방혜숙(2002), 한용운(2008)	?
	언어학자의 정기 모임	박선우(1989)	?
	남북 공동 연구	김민수(1985), 이현복(1985)홍사만(1985), 고영근(1989)	?
	한자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박선우(1989), 고영근(1994)	?
	규범문법의 편찬	고영근(1989), 남성우(1990)	?
	공동 말다듬기(순화어와 다듬은 말의 결합, 일어 잔재 청산 포함)	고영근(1994), 김민수(1998), 남기심(2002)	?
	공동 방언사전 편찬	남기심(2002)	?

<표 2>를 보면, 언어 통합 방안의 실현 주체가 남북 공동일 경우보다는 남측인 경우에 현실화가 빨랐음을 수 있다. 통일방안이 제안된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상황 변화를 보면 북한어 연구가 질과 양면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국립국어원이 설치되었으며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가 개관하였고 남북한어 대조 자료집 및 대조사전이 간행되었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어 연구도 활발하였고 남북 언어 연구 및 통합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업적도 축적되었다. 성과만큼

9) 김민수(2003:7)에서는 남측의 2000년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통일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의되었든지 재론하기 전에는 서로 일호의 차착도 일방적 가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남북이 합의한 통일안의 하나는 위에 제시한 국제표준화기구 주관으로 1992년 5월에 작성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 7월 7일 중전의 음성표기를 다시 음운표기로 크게 개정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고시했다. 이것은 1940년 제정 이후 번복을 거듭하기 네 번째 개정이며, 문제는 그 체계가 1940년 표기법과 거의 같다는 논란이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안(우리말 순화, 외래어, 외국어 남용)들을 해결하려면, 언어 연구 및 정책 기관의 ‘힘’과 언중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긴 시간이 필요한 일로 보인다.

남북의 공동 사업으로 제안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통합 어휘 사전 편찬과 이와 관련한 규범 통일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이 2013년 간행을 목표로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전 편찬의 전제인 단일 어문 규범의 경우, 일부 안이 합의되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다¹⁰⁾. 남북의 비정치 분야의 학술 교류는 컴퓨터정보처리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어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남북 언어교류, 특히 남북 연구소 중심의 학술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말다듬기나 공동 방언, 지명 조사, 한자 문제 해결 등의 현안에 대해서 남북의 책임 있는 언어 기관이 주체가 되어 협력해야 할 것이나 2009년 현재,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이 없어 안타깝다.

3.2 각론: 어문 규범과 그 밖의 문제

이 절에서는 연대순이 아닌 세부 주제별로 어문 규범과 그 외의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제안을 살펴보겠다. 먼저 맞춤법, 표준어 등의 어문규범에 대한 원론적 통합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 후, 자모배열 순서, 띄어쓰기와 같은 세부적 문제에 대한¹¹⁾ 구체적 통합 방안들을 권재일(2008)에 소개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위한 남북 단일 어문규범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2.1 어문규범

김하수(1997)에서는 통합 맞춤법의 기본 목표와 전제를 양적인 결합이 아닌 질적인 향상에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언어학 원리를 우선 적용하고 공통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며 양측의 언어 현실이 언어학 원리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당분간 이중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언어학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중선·최호철(1998)에서는 통일 한국 언어는 남한어와 북한어의 융합 언어로 귀착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 자료 정리→남북한 국어규범통합→조정 후 단일 규범’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령 표준어 문제는 ‘표준어와 문화어 비교 사전→표준어와 문화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단일 표준어로 조정’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두 논의의 핵심을 통합하면 ‘질적인 향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될 것인데, 본고에서는

10) 이 사전의 편찬 과정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홍윤표(2007), 권재일(2008), 한용운(2008), 김재용(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1) 권재일(2008)에 소개된 단일 어문 규범 관련 항목이 [1]~[8]까지이고 이하 [9]는 표준어, [10]은 로마자이다.

권재일(2008)에서, 자모의 수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배열순서와 이름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¹²⁾ 선행 연구를 보면, 글자 이름에 관해서는 ‘기읍, 디읍, 시읏’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는데(기세관최호철(1994), 홍중산·최호철(1998), 고창운(1999), 정훈탁(2002)) ‘단일 규범’에서 그렇게 통일되었다. 자모 명칭의 역사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자모의 배열순서는 흘글자 뒤 겹글자 배열이 아닌 흘글자가 다 끝나고 겹글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는데, 어느 쪽을 택하든 심오한 언어 이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전자사전의 사용이 대세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므로 이 문제에 관해 ‘조정 후 단일 규범’ 단계에서 다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2] 띄어쓰기

주요 연구	방안	비고
박갑수(1994)	조동사, 의존 명사, 수량 명사는 붙여 쓴다.	
김하수(1997)	남한은 단순해서 이해, 보급에 편리, 문장 구성 파악에는 북한식이 유리. 초기에는 복수 표준 인정, 추후 대중 선택하도록.	복수 표준 후 통일
홍중산·최호철(1998)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사전에서 단어 결정
고창운(1999)	고유명사+관직명: 김철수 동지, 기사장 자신(남한식) 전반적으로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쓰는 남한안 지지.	
전수태(2001)	정보화 시대, 자동 분석 지향. 단어별로 엄격히 띄어 쓰자.	
안병섭(2002)	〈총칙〉 ㄱ.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ㄴ.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말은 붙여 쓴다. 의존명사: 복수 규정 인정, 단위 명사: 복수 규정 인정 수: 만 단위로 띄어쓰기, 성명 및 호칭어: 성과 이름은 붙이고 호칭, 관직명은 둘 다 허용, 전문 용어: 붙여 쓰도록 규정, 고유명사: 단위별로 띄어쓰기	
정훈탁(2002)	단어별로(언어 자료 처리의 기계화), 단위명사는 앞말에 붙여 쓰도록(한글 맞춤법 통일안 시대로 돌아감), 관직명은 남한식대로 띄어쓰기, 수는 만 단위로 띄어쓰기,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붙여쓰도록.	대명사는 품사 설정 연구 선행되어야 함. 허용 조항의 삭제.
권재일(2008)	의존 명사: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사람, 두마리 본용언과 보조용언: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대명사와 수사: 만, 억, 조, 단위 십이억 삼천오백육십만 사천오백팔십 명사 연결체: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 방향설정 전문용어: 의미 단위로 띄어 쓰되, 이해하기 힘들 때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복막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12) 차재은(2009)이후 발표된,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9:161)에 의하면 자모의 수는 51개로 통일 되어 있다.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단어 단위로 씌어 쓰는 남한안으로의 통일 방안’이 많았는데(홍종산·최호철(1998), 고창운(1999), 전수태(2001), 안병섭(2002)) ‘단일 규범’에서는 ‘한사람, 먹어버렸다’와 같은 절충이 보인다. 띄어쓰기 문제는 김하수(1997), 안병섭(2002)의 전망처럼 복수 표준 후 통일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이시옷

주요 연구	방안	비고
기세관·최호철(1994)	사이시옷을 일체 쓰지 않음.	형태주의
박갑수(1994)	사이시옷을 쓴다.	형태 이해 및 발음 편의
김하수(1997)	한자는 사용을 늘이고, 토착어는 제한, 사이시옷이 필요한 어휘를 어휘화 된 것으로 처리. 외파, 윗과, 원과	서로 존중 이중 규정.
홍종산·최호철(1998)	기세관·최호철(1994)와 동일.	
고창운(1999)	사이시옷을 적는 남한식이 합리적.	현실발음 중요
전수태(2001)	일체 표기하지 말자.	
박선우(2002)	사이시옷은 고유어만 표기하고 한자어는 표기하지 않는 ‘바닷가, 고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정훈택(2001)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권재일(2008)	제안 상태 남: 순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성어의 앞말이 고유어인 것 중 남북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북: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가 동음이의어인 경우만 표기한다. 남: 나뭇잎, 냇가, 꺾병, 전셋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북: 나무잎, 냇가, 귀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사이시옷 문제는 형태주의를 전제로 일체 쓰지 말자는 의견(기세관·최호철(1994), 홍종산·최호철(1998), 전수태(2001))과 현실 발음을 고려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박갑수(1994), 고창운(1999), 정훈택(2001))이 대립하는 가운데, 두 안의 절충안인 김하수(1997), 박선우(2002)도 있으나 두 안의 해법은 방향이 다르다. 형태와 발음 중 어느 것을 표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단일 규범’에서도 합의되지 못했는데, ‘질적인 향상’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복수안의 수용이 전망된다.

[4] 두음법칙

주요 연구	방안	비고
기세관최호철(1994)	ㄴ, ㄹ 두음 표기 인정.	형태주의
박갑수(1994)	ㄴ, ㄹ 두음 표기 인정.	
김하수(1997)	ㄴ, ㄹ 두음 표기, 여성으로 쓰고 [여성] 발음 허용	외래어에서 [ㄴ/ㄹ]발음됨.
홍종선최호철(1998)	기세관최호철(1994)와 동일.	
고창운(1999)	남북 규정 함께 인정	발음 차이
전수태(2001)	ㄴ, ㄹ 두음 표기 인정. 발음은 양쪽 모두 허용.	
정훈탁(2002)	ㄴ, ㄹ 두음 표기 인정.	
장은하(2002)	ㄴ, ㄹ 두음 표기 인정.	
권재일(2008)	미결정 상태: 남북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하자	

두음법칙 통합 안에 대해서는 ㄴ, ㄹ 두음 표기를 인정하자는 안이 대다수(기세관최호철(1994), 박갑수(1994), 김하수(1997), 홍종선최호철(1998), 전수태(2001), 장은하(2002), 정훈탁(2002))이다. 표기법의 형태주의 원칙, 외래어 어두에서는 ㄴ, ㄹ이 발음되는 것, 한글마춤법 통일안(1933) 안으로의 복귀 등이 두음 표기 인정의 이유이다. 반면, 고창운(1999)에서는 남북의 발음 차이를 이유로 남북의 규정을 복수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일 규범’에서는 단일화라는 원칙은 정하고 단일화의 방향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 읽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ㄴ, ㄹ 두음 표기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문법 형태와 개별 단어

주요 연구	방안	비고
기세관최호철(1994)	일부 어미: 북한식 -을가, -을고, -을소냐, ‘기어’는 남한식으로 ‘기어’	형태주의
박갑수(1994)	어미 ‘-어’, ‘-었’으로 통일 간이, 덧이, 사랑이, 가량이, 덧이	형태주의
김하수(1997)	남한식 형태 표기 ‘베었다’ 올바르다, 낫두리(무속)/넉두리(일반)	
홍종선최호철(1998)	기세관최호철(1994)와 동일	
고창운(1999)	-(으)르까-, -(으)르꼬(‘ ㄹ + 가 ’ 로 공식적 분석 불가능) ‘고마와서’로 표기 ‘어간 +어서’는 남한의 형태주의, 이(齒)는 현실발음을 인정하는 남한식이 합리적. 더떨이, 살살이, 싹싹이, 푸석이, 더욱이, 일찍이(남한식)	
정훈탁(2002)	ㅣ 모음 뒤 어: 남한식 형태 표기	
권재일(2008)	어미 ‘-어/아’ 표기는 미정. 을까, 을고, 을소냐 다마디/다 말다, 가까워, 허애, 누래, 넉넉하지 않다, 아무튼, 하마트면 오뎅이,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낫두리, 빛깔, 맛깔, 널판대기, 곰뻐기, 꿩기다, 물고	

어미 ‘-어, -았’의 표기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모두가 남한식 형태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형태 표기 원리가 북측 어문규범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데도 ‘단일 규범’에서 이 문제가 확정되지 못했다.¹³⁾ ‘-르까’ 형 어미에 대해서는 형태표기(기세관최호철(1994))와 음소표기(고창운(1999))로 대립하는데, ‘단일 규범’에서는 음소 표기로 결정되었다. 개별 단어 처리의 변화는 언중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6] 품사 명칭(규범 문법 관련)

주요 연구	방안	비고
고영근(2001)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3유형을 지향하되 ‘토’라는 범주에 넣기를 제안. 명사토(격토, 접속토, 보조토), 용언토(완성토, 선행토) 품사 체계: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간투사, 형식사 성분 체계: 서술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문장 종류: 평술문, 의문문,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	한국의 전통문법가들의 견해를 이어받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처리 참조.
권재일(2004)	토 인정 여부는 판단 유보 그리고, 그러면 류는 접속부사로. 격범주: 부사격을 북한 문법처럼 세분, 북한은 절대격 설정 불필요, 남한은 보격 설정 재고. 문장종결법은 서술, 의문, 명령, 청유 4분 체계로 표준화. 접속과 내포를 기본으로 복합문 하위 분류가 바람직(남한식)	
권재일(2008)	문법 형태소는 ‘토’라는 범주로 단일화. ‘토’의 하위 범주는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뜻풀이에서 ‘조사’ 및 체언토는 ‘체언 뒤에 붙는 토’, ‘어미’ 및 ‘용언토’는 ‘용언 뒤에 붙는 토’로 뜻풀이한다. 명사, 대명사(인칭대명사, 부정칭,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수사(수량수사, 순서수사), 동사(자동사/타동사, 자립동사/보조동사), 형용사(성질 및 상태 형용사, 지시형용사, 자립형용사/보조형용사), 관형사(성질관형사, 상태관형사), 부사, 감탄사	

규범 문법의 통일 방안 중 핵심 문제인 ‘토’의 처리 방안에 대해, 고영근(2001)에서는 범주로 인정하지는 입장이었고 권재일(2004)에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단일 규범’에서는 ‘토’ 범주로 단일화되었다. 의존 형태소중 조사만을 단어로 규정한 기존의 학교 문법은 사전편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같은 응용 분야에 혼선을 준 측면이 없지 않은데, ‘단일 규범’에서 ‘토’를 인정한 것은 정통성의 계승, 규범문법의 체계화라는 면에서 ‘질적인 향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1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9:166)에 의하면 ‘되어/되여’는 복수표준어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절충안의 성격으로 통일 이후에는 단일안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 외래어 표기

주요 연구	방안
김하수(1997)	고유명사를 한국어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 원음주의의 수정.
신은경(2002)	외래어 표기 수단: 북한안. 표기 원칙: 원음 주의, 복수표기 인정. 외래어의 발음: 현실발음 인정. 경음 사용. 남북한 공동 외래어 심의위원회 구성. 외래어 사정 작업을 통한 공동 외래어 어휘집 발간. 국어사전에 반영.
권재일(2008)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단일화. 남한 것으로: 뉴앙스/뉴앙스, 마네킹/마네킨, 저널리즘/저널리즘, 라둠/라디움, 마스크/매스콤, 컨디션/콘디션 북한 것으로: 러닝/런닝, 로봇/로보트, 알코올/알콜, 점퍼/잠바, 보닛/본네트 복수 표기로: 그룹/그루빠, 토마토/도마도, 에너지/에네르기, 컴퓨터/콤포터

외래어 표기에 대해 김하수(1997)에서는 원음주의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신은경(2002)에서는 원음주의를 유지하되 복수표기를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단일 규범’에서는 단일화와 복수표기를 함께 허용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는 단어별로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나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원음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현실발음을 인정하는¹⁴⁾ 태도가 필요하다.

[8] 문장부호

주요 연구	방안
김하수(1997)	양쪽 부호 모두 합류.
홍종선최호철(1998)	양쪽 부호를 모두 수용. 공통점을 최대한 수용해서 명칭 통일.
전수태(2001)	남북한 모자라는 부호 수용하여 통합. 명칭은 고유어로.
권재일(2008)	11차 회의에서 형태, 이름, 기능 단일화 예: Ⓜ (인용표), ◇ (거듭인용표), “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모두 받아들여지되 기능 분화. 대화 직접 인용은 “ ”, 책이나 자료의 출전 표시는 《 》. { }, ;, · 세 부호는 폐기

14) 현재 국어 어문 규범에서는,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외래어 발음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발음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국어 교육, 방송 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외래어의 발음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의 논리성보다는 현실의 필요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외래어 발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문장 부호의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이, 김하수(1997), 홍종선·최호철(1998), 전수태(2001)에서 모두 ‘남북부호 수용 후 통합’안을 내었고 ‘단일 규범’에서도 형태, 이름, 기능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 사항은 언어 통일 단계에서도 변화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 표준어 및 표준발음

최호철(2001)에서는, 서로 다른 남북 어휘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은 복수 규범 어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행은 강제적인 부분(국가 기관의 문서)과 자율적인 부분으로 분리하고 이 외 남북 규범 어휘 사전을 배포하고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복수 규범 어휘를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태식(2001)에서는 언어 이질화의 요체는 단어 이질화이며, 남쪽의 무분별한 외래어 도입과 한자어 남용이 이질화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종선(2002)에서는 남북한 표준어의 차이는 고유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표준어 통일화 과정은 ‘남북 어휘 비교 사전→홍보(출판, 교육, 언론)→단일 표준어 조정’과 같은 단계이며 복수 표준어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행 지침이 필요하며 도회지일수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종갑(2007)에서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 원인을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언어 사용 환경 사이의 이질화, 이 두 가지에서 찾고 언어통일의 관심사를 규범어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 후의 단일한 규범어는 표준어, 문화어, 남북 지역 방언들이 대거 편입된 공통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복수표준어의 허용을 대폭 늘리되 만약 단일화하려면 현재의 표준어를 버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 통일 후 의사소통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될 것은 남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용운(2007)에서는 규범어 설정 지역이 달라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는 체제 통일 이전에는 차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복수 표준어로 수용 후 통일 이후 언중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어 설정 지역이 차이 나는 말은 모두 복수표준어로 수용하되, 이념적 의미는 반영하지 말며 표기규범의 경우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 되는 것은 양측 모두 수록하자고 하였다.

이상 표준어 통합방안을 정리하면, 최호철(2001), 홍종선(2002), 한용운(2007)처럼, 복수표준어로 수용 후 언중의 판단에 맡기자는 안이 우세한 가운데 김태식(2001), 박종갑(2007)에서는 표준

어 내지 표준어 개념에 대한 도전이 보인다.

한편, 최호철(2002)에서는 표준 발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어의 표준 발음은 철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발음으로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표준 발음법에서 명시하되 음절 단위를 기준으로 초, 중, 종성의 발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표준 발음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0] 로마자 표기법

1992년 북측 자음안과 남측 모음안을 토대로 남북 한글 로마자표기 단일안이 합의되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남한에서는 2000년 독자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고 이 개정안의 내용은 합의 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로마자 표기법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하여 박봉곤(2002)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법에서 전자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하고 로마자 표기법의 통합 방안으로 전자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부호(어긋점, 반달표시)를 없애고 전자법을 절충하자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ㄱ, ㄷ, ㅂ, ㅈ>는 어두에서는 ‘k, t, p, j’, 그 외 위치에서는 ‘g, d, b, j’로 적고 <ㅋ, ㅌ, ㅍ, ㅊ>는 ‘kh, th, ph, ch’, <ㄲ, ㄸ, ㅃ, ㅆ>는 ‘gg, dd, bb, jj’로 적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 모음 ㅐ는 ‘ae, ai’ 중 하나, ㅑ는 /oe/, ㅓ는 ‘weo’, ㅜ는 ‘ui’로 적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3.2.1 그 밖의 문제

남북한 정보기술 용어 통일 문제를 다룬 김병선(2001)에서는,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는 표준화를 위한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통일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남북의 정보 기술 용어의 도입 과정이 다를 뿐더러(외래어 차이), 남한에서는 시장의 힘, 북한에서는 권위의 힘이 작용한 결과 63%의 불일치(사전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남북 용어 표준화 사업에서는 원어의 의미, 사용 범위, 사용 실례, 조어적 타당성 등을 따져 제3의 용어를 만들어 내는 등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되지 않는 것은 복수 표준어로 남겨두었지만 남한의 경우 표준 용어도 있고, 국어심의회가 일을 했음에도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임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 민간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기왕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하고 보급하는 공동 심의위원회 상설 필요하고 이를 통해 ISO2382의 용어 개정 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북한의 인터넷 개방과 직접적인 인적 교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화어의 통일 방안을 다룬 김기석(2002)에서는, 추진 주체의 중복, 복잡한 심의 과정, 위원들

의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보급과 실용화 미비, 구(句) 형태의 순화어를 남한 국어 순화 작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통일에 대비한 국어순화 방안으로, 언어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고유어를 중심으로 순화한 말 선정,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 자제, 구 형태의 순화어 지양, 방언을 표준어로 수용, 부정적 요소의 통제(남 외래어, 북 관용화한 요소를 다듬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남북한 언어공학의 교류와 통일방안을 다룬 이봉원(2002)에서는 남북한 언어공학의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양한 교류 통로 확보와 언어 규범의 통일, 정보 표준의 통일을 들고 있다. 한글 자모순, 한글 코드, 자판과 정보처리 용어는 교류 주체가 민간이었으므로 규정의 정비로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공식 기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통일사전의 편찬 문제를 다룬 오미정(2002)에서는, 남한 내지 북한에서만 쓰이는 말에는 부가 정보 기록의 방법으로 모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파생어 배열은 통일사전이 종이사전일 경우는 일부 파생어를 주표제어 아래 함께 제시하지만 전자사전이라면 모든 파생어를 개별 올림말로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또 남북한 발음 차이가 있는 경우 복수 발음을 인정하여 사전에 병기하고자 하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언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총론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방안들이 많은 반면, 어문 규범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단일 규범안이, 두음법칙과 사이시옷과 같은 난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남북 합의안은 통일 단계에서 통일안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남북언어 통합연구가 규범어나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논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변화하는 남북의 언어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언어통합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새터민의 언어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또 사전 편찬 외에도 남북한 통일 문법 마련, 한자 문제, 공동 말다듬기, 공동 방언 사전 편찬 등의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책임 있는 언어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문헌

- 고도흥. 2000. “한민족 언어통합의 과제와 전망.”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총서 2). 311-333.
- 高永根. 1989. “南北韓 言語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2).” 『周時經學報』 3. 40-75.
- 고영근. 1994.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서울: 길벗.
- 고영근. 2001.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2.htm, 2009-10-08)
- 고창운. 1999. “민족 통일과 남북한의 언어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5. 1-39.
- 권재일. 2004.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우리말글학회) 31. 1-27.
- 기세관최호철. 1994. “남북한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16. 231-250.
- 김경석. 1992. “한글 전산화의 입장에서 살펴본 남북한 한글맞춤법의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1) (한글 가나다순).” 『한글』 215.
- 김기석. 2002. “남북한 국어순화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55-85.
- 김민수. 1985. 『북한의 국어 연구』. 서울: 고려대 출판부.
- 김민수. 1998. “民族語의 統一問題.” 『인문과학논집』(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1. 301-307.
- 김병선. 2001. “서로 다른 정보 기술 용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5.htm, 2009-10-08)
- 김태식. 2001. “언론의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6.htm, 2009-10-08)
- 김하수. 1997. “남북한 통합 맞춤법에 대한 구상.”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태학사.
- 남기심. 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국립국어원). 7-12.
- 남성우. 1990.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극복 방안.” 『국회보』 288. 84-88.
- 박갑수. 1994. “南北 맞춤法의 差異와 그 統一 問題.” 『語文研究』22-1-2. 77-89.
- 박갑수. 2002.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국립국어원). 413-436.

- 박봉곤. 2002.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과 통일방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217-236.
- 박선우. 1989. “민족어의 통일방안.” 『북한의 어학혁명』. 381-392.
- 박선우. 2002. “남북한 맞춤법의 변천과정과 통일방안-자모배열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37-160.
- 박영순. 1994.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김일성 사후의 북한』. 서울: 고대출판부. 173-206.
- 박일순. 2002.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박종갑. 2007.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韓民族語文學』(한민족어문학회) 51. 1-42.
- 방혜숙. 2002. “통일시대를 향한 남북한 언어 정책.”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5-32.
- 신석환. 1998.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 방안.” 『士林語文研究』(창원대 국문과 사립어문학회) 11. 5-24.
- 신은경. 2002. “남북한외래어 표기법의 변천과 통일방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61-188.
- 신중섭. 1997. “통일 시대의 언어.” 『哲學研究』61. 97-118.
- 안병섭. 2002. “남북한 띄어쓰기 규정의 통일방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89-216.
- 오미정. 2002. “남북한 국어사전 편찬의 현황-해방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237-256.
- 이봉원. 2002. “북한 언어공학의 현황과 통일방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257-286.
- 이운식·김미영. 2001.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실태와 극복 방안-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어문학교육』(한국어문교육학회) 23. 163-204.
- 이윤표. 2000. “민족어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서울: 박이정. 269-289.
- 李應百. 1989. “南北韓 국어의 同質性 회복을 위한 代案.”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45. 52-59.
- 이주행. 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연구 논문』44.
- 이주행. 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연구 논문』44. 75-96.

- 이준석. 1989.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언어의 교류 방안.” 『통일로』 10. 45-54.
- 이현복. 1985. “북한의 언어 정책과 이질화 극복 방안.” 『북한』 166. 64-71.
- 장은하. 2002. “남북한 맞춤법의 분화와 통일 ‘소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19-135.
- 전수태. 2000.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국어문화학교』(국립국어원) 5. 69-96.
- 전수태. 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3.htm, 2009-10-08)
- 정훈탁. 2002.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와 통일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조오현. 1997.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언어통일 방안.” 『한반도통일론』(한국문제연구원 편).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23-262.
- 최용기. 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한국 국학 진흥원) 10. 199-228.
- 최호철. 2000.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국어정책 부문” 『국제고려학회 논문집』(창간호). 35-85.
- 최호철. 2001.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4.htm, 2009-10-08)
- 최호철. 2002. “남북한 통일 표준 발음법 시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101-118.
- 韓龍雲. 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韓國思想과 文化』(한국사상문화학회) 40. ?
- 한용운. 2008.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합할까.”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도. 118-126.
- 洪思滿. 1985.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실태분석과 그 통일방안.”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경북대 인문과학 연구소)1. 89-108.
- 홍아영. 1997. “남북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극복 방안.-조선말대사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홍중선. 2002.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33-54.
- 홍중선·최호철. 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 C-W. Kim. 1978. Divergence in Language Policies in Korea.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245-257.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09. 『《겨레말큰사전》 보고회 자료집』.
- 高永根. 1988. “南北韓 言語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1).” 『周時經學報』 2. 47-84.
- 곽충구. 200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11_1.htm, 2009-10-08)
-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 권재일. 2008.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2008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18.
- 김민수. 1995.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격차.” 『國際高麗學會學術叢書』3.(김진우·김철양 편,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국제고려학회. 9-29
- 김민수. 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20. 5-21.
- 김용범. 1992.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극복의 방안.” 『한양어문연구』(한양어문연구회) 10. 61-77.
- 김재용. 2009.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본 남북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 『역사비평』 88. 184-190.
- 김택구. 2001.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와 통일방안의 모색.” 『人文科學研究』9. 27-79.
- 문영호. 2003.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고유어.”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2차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국립국어원). 9-12.
- 소강춘. 2003. “국어관련 분야의 남북 교류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4. 23-59.
- 安載澈. 2003. “民族 同質性 回復을 위한 漢字漢文 敎育의 方案.” 『漢字漢文敎育』(한국한자한문 교육학회) 10. 24-64.
- 이상억. 1992. “북한의 어휘연구/사전편찬-남한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 연구.” 『어학연구』 28-3. 599-619.
- 전수태·최호철. 1989.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서울:녹진 출판사.
- 정동규. 1996. “통일 독일의 민족어 통합과정과 표준어 설정 연구.”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32-1.

-
- 조남호. 2007.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 『새국어생활』 17-2.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7_2.html, 2009-10-10)
- 조남호. 2008. “21세기 언어환경과 국어정책.” 『21세기 언어 환경』(2008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33.
- 조재수. 2000. “남북한 표준말의 차이와 공동 표준말 가꾸기.” 『교육 한글』 13. 55-89.
- 차재은. 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26.
- 최용기. 2001.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윤표. 2007.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 『한국사전학』(한국사전학회) 9. 23-52.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겨레말큰사전 <http://www.gyeoremal.or.kr:8080/navigator?act=index>

통일부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new2/sogae/sub_01.jsp

남과 북의 통합 국어 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홍종선
고려대

1. 머리말

8·15 광복에 이어 곧 남북으로 분단된 지 6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사람의 삶에서도 환갑을 넘기면 그 사람의 고정적인 면모가 형성되듯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며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으로 고착될 위험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배제할 가장 의미 있는 근거는 하나의 민족 그리고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런데 민족이란 원래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일은, 남과 북이 동질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가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인식을 다지는 것이라 하겠다.

어떤 사회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언어가 그 기반을 이룬다는 것은 대개 인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그 동안 정치 사회적으로는 무척이나 다른 길을 따로 걸어 왔고 모든 면에서 거의 단절에 가까운 세월을 반세기 이상 지내왔지만, 지금도 남과 북이 만나면 별 어려움 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인력인 것이다. 또한 이질감 없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는 국토 통일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남북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정서는 매우 절실하여, 통일 시점을 가늠하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 60년을 저만치 넘긴 오늘날,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열망만을 불태우기보다는 통일을 앞당기며 그에 대비하는 작업을 장단기적으로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일의 증추에 서는 것이 언어의 통일화 작업일 것이다. 이제까지 남과 북의 언어는 다소 차이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상호 소통에 거의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 거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적인 변화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 정책의 차이는 양측의 언어 변화에 점차 그 정도를 키우고 있다.

자연적으로 또한 언어 정책으로 인해 양측의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양측이 원활하게 왕래하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고 또 앞으로도 소통 증가가 더디게 진전된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과 북의 국어학자가 교류하면서 국어 문법과 규범을 논의하고, 국어 정책을 남북의 당국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며, 신문과 방송이 제한적으로라도 조금씩 상호 개방의 폭을 넓혀 나가고, 이산가족만이라도 만남을 쉽게 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각기 현실성 있게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남과 북의 언어를 통합하는 사전의 편찬도 이들과 병행하여 또는 이들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남과 북은 각자 국어 사전 편찬을 진행해 왔다. 남쪽은 상업 출판사나 개인이 이를 주도하다가 최근에는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대사전을 내었다. 북쪽은 언어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정부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전 편찬을 담당해 왔다. 양쪽 모두 1990년대 이후 완성도 높은 사전을 출간하는 등 사전의 편찬과 연구가 많이 진전된 오늘날 남과 북은 통합 사전의 편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남과 북에서 전개해 온 국어 사전의 편찬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 앞으로 전개해 나갈 통합 국어 사전의 편찬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이를 민족어의 통일과 발전을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60여 년 동안 국어 사전은 북쪽에 비해 남쪽에서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게 편찬 간행되었지만, 남쪽의 사전 편찬에 관해선 이미 여러 편의 연구 보고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북쪽의 국어 사전 편찬에 좀더 비중을 두어 고찰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의 사전 편찬 성과

우리나라 말의 사전 편찬은 고려 시대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계림유사」부터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¹⁾ 이후 주로 한자와 관련하여 우리말을 대응시킨 사전들이 조선 시대에 걸쳐 다양하

1) ‘국어 사전’의 개념과 범위는 시대나 관점에 따라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말이 적어도 우리말(국어)이라면 그 풀이말이 외국어라도 넓은 의미의 국어 사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이라 하면

게 나왔다. 한자의 음을 밝힌 운서류(「동국정운」, 「삼운성취」, 「규장전운」, 「전운옥편」 등), 한자나 한문을 학습하기 위한 자석류(「천자문」, 「유합」, 「훈몽자회」, 「어록해」 등), 통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유해류(「역어유해」, 「왜어유해」, 「동문유해」, 「한청문감」 등), 주위 사물들의 명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한 물명류(「재물보」, 「물명고」 등)와 백과사전류(「지봉유설」, 「대동운부군옥」, 「고금석림」 등) 그리고 이두 목록을 정리한 이두 사전(「이문집람」, 「이문」 등)이 있다. 이들은 우리말이 올림말 또는 대응어로 들어가 있는 어휘집 성격이었다.

근대 전환기(개화기) 때에는 우리말과 외국어를 대응시킨 대역 사전들을 만나게 된다. 푸칠로의 「노한사전」(1874)에서 시작된 이들 대역 사전들은 서구의 사전 형식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본격적인 사전으로, 대개 외국인에 의해 편찬되었다. 「한불저년」(1880), 「국한회어」(1895) 등 여러 종이 있다. 올림말과 풀이말이 우리말로 된 단일어 사전의 편찬은 1910년경 「말모이」의 편찬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완성을 보지는 못하였고,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에 이르러 비로소 질과 양 모두 국어 사전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일제 시기에도 한글학회에선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을 계속하였지만 출간은 광복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광복 후 남쪽에서는 한글학회 「큰사전」이 1947-1957년에 걸쳐 모두 6권으로 나왔다. 이는 당시에 거의 대사전에 값하는 커다란 성과로, 이후 남과 북에서 나온 국어 사전들의 모태가 되거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1961)과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1975)도 올림말이 30만 개 전후로 대사전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계속하여 수정 증보판을 내면서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었다.

1980년대 들어 사전학/사전편찬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에 새로 나온 몇 종의 국어 대사전에서 수용되기도 하였다.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1981)과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1999)이 그것이다. 이들 사전은 명실공히 대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40-50만 개의 올림말을 수록하고 뜻풀이도 매우 세밀하게 분류 기술하였으며, 용례 역시 풍부하고 참고어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대사전 외에 다양한 국어 사전이 나왔다. 역순 사전, 관용구 사전, 유의어·반의어 사전, 발음 사전, 맞춤법 사전, 교육용 사전, 고어 사전, 방언 사전, 한자어 사전, 각종 분류 사전, 각종 전문어 사전, 전자 사전 등이 1980년대 이후 연구 성과로서 편찬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다량의 언어 코퍼스를 자료로 전산 처리하는 등 국어 전산화에 적극적으로 힘입어 연세대 「연세 한국어 사전」(1998)이 나왔고, 드디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2009)과 같은 대사전도 나

올림말과 풀이말이 모두 국어로 되어 있는 사전을 가리킨다.(홍종선 2008 참조)

을 수 있었다. 이제 사전 편찬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반영하며, 사전 편집기를 사용하여 편찬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요즘엔 종이 사전 외에 전산 파일로 된 전자 사전과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웹 사전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는 경향이다.

북쪽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곧 「조선말사전」을 공간할 것을 결의하고 1948년부터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전 편찬 사업은 1950년 1차로 완료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출간되지 못하였고, 이를 크게 보완하여 「조선말사전」이 1961-1962에 걸쳐 나올 수 있었다. 광복 후 우리말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기준이 될 사전이 요구되었고,²⁾ 사회주의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혁명의 도구가 되므로 사전 편찬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크게 부각되고 국어 사전도 이러한 이념과 원칙에 따르는 편찬이 이어졌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는 이 사전들은 일관된 편찬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대조선말사전」(1968),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을 거쳐 「조선말대사전」(1992)에 이르러, 올림말이나 풀이말 등 여러 면에서 국어대사전으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문화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의 규범성을 중시하며, 사회 체제와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사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말대사전」은 2007년에 증보판이 나왔는데, 이전의 문화어 위주를 벗어나 언어대사전을 지향하는 노력과 성과가 상당 부분 수용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국어학 연구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성과를 담은 사전들도 여러 종이 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한자말사전」(1976), 김병제 「방언사전」(198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속담사전」(1984), 김영환 「중세조선말사전」(199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어빈도수사전」(1993), 리형태·유은종 「조선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고장이름사전」(2001), 이정용 외 「조선속담성구사전」(2006), 민영화 「조선말련관어사전」(2006) 등이 있다. 이 밖에 각종 분야의 전문가 사전이나 백과 사전도 가끔 나오고 있으나, 남쪽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재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는 「한자말대사전」을 편찬 중인데, 전 20권을 예정하는 방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일찍부터 국어 사전학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온 북쪽은 정순가리기원 「사전편찬리론연구」(1984)를 내었고, 사전의 올림말에 적용될 「다듬은말」(1982, 1987, 1991)도 여러 차례 간행하였다.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주요 올림말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 등, 최근에는 북쪽에서도 사전 편찬에 전산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광복 이후 남과 북에서는 여러 종의 국어 사전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서로 공통되는

2) 남쪽에서도 광복 직후에는 국어 교육과 국어 생활에서 우리말의 규범성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소사전들이 우선적으로 간행되었다.

면도 많다. 남과 북의 사전 편찬 양상에 따라 우리말 사전의 편찬 시기를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³⁾

광복 초기에는 남·북 모두 국어 교육이나 언어 규범에 충실한 사전을 내었다. 이는 광복 직후 우리말의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고, 사회에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어 1960년을 전후하여 내용을 충실히 갖춘 국어 사전이 여러 해에 걸쳐 나왔다. 남쪽의 한글학회 「큰사전」(1947-1957)과 북쪽의 「조선말사전」(1961-1962)이 그것으로, 각각 6권으로 된 중·대사전이다. 이 사전들은 이후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기반을 이룬다. 여기까지를 광복 이후 남북 국어 사전 편찬에서 제1기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시기는 ‘기반 형성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는 남과 북이 사회 이념과 체제에 따라 사전 편찬의 양상도 서로 달라진다. 남쪽은 개인의 저작으로 만들어진 몇 종의 대사전을 보태고, 교육용 중·소사전을 여러 종 내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각기 다른 국어 사전들을 경쟁적으로 발간하였다. 이에 비해 북쪽은 이른바 문화어 시대를 맞아, 이 시기에 나온 사전들은 사회의 이념을 특히 강하게 드러내었다. 물론 북쪽 사전의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 사전의 올림말에는 말다듬기 사업과 관련하는 ‘다듬은말’들을 대량으로 수용하고, 올림말의 풀이말이나 용례 등에도 문화어의 목적 지향적인 요소와 주체사상의 언어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1980년대까지로 하여 제2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모색 성장기’라 하겠는데, 북쪽에선 문화어 중심의 새로운 모색이, 남쪽에선 다양한 모색을 통한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 기간이었다.

제3기는 1990년대부터 잡을 수 있다. 남과 북 모두 완성도 높은 국어대사전들을 편찬 간행하는 이 시기는, 이전부터 쌓아온 사전편찬학 연구가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다. 올림말의 수나 뜻풀이의 정밀성, 풍부한 용례, 다양한 참고 정보 등이 남과 북의 대사전에 모두 잘 실현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통합 사전을 편찬하는 대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전이 간행되면 국어 사전 편찬은 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를 ‘결실기’라 이른다.

이와 같이 광복 이후의 국어 사전의 편찬은 시기에 따라서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대체로 서로 공통되게 전개되어 왔는데, 사전의 편찬 과정이나 성격은 대조적인 면이 적지 않다. 이는 남과 북의 사회 이념이나 체제가 서로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쪽의 사전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3) 조재수(1988)에서는 북쪽의 사전 편찬 시기를 북한 언어 규범의 변동과 연관 지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시대(1945-1954), 조선어 철자법 시대(1954-1966), 조선말규범집 시대(1966-현재)’로 나누었고, 차재은(1991)에선 사전 편찬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제1기(초창기: 1945-1954), 제2기(건업기: 1954-1966), 제3기(조성기: 1966-1987), 제4기(합성기: 1987-)로 나누었다.

우선, 남과 북은 사전을 편찬하는 기관과 주체가 매우 다르다. 남쪽은 주로 개인에 의해 주도되어 상업 출판사에서 간행되고, 최근 들어 정부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편찬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쪽은 전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져, 주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여 과학원출판사에서 간행한다. 연구 성격이 강한 특수 국어 사전은 대학의 어문학부나 개인에 의한 저작이 있으나, 일반적인 국어 사전은 모두 언어학연구소의 사전편찬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 편찬 체제에 따라 그 결과물인 사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남쪽의 사전은 순전히 편찬자 개인의 역량과 목적에 의존하므로 각 사전의 품질이나 특징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각 개인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사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요인도 함께 갖는다. 이에 비해 북쪽은 사전편찬실에서 공동으로 작업하여 사전을 만들어 내므로, 이전 사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원/편찬원 전체의 사전 편찬 수준이 동반 상승하면서 사전 편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남쪽의 사전은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그 사전의 상업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령 구매 수요가 별로 없는 중사전의 편찬은 외면하고 교육용 사전에는 여러 종이 경합하고 있으며, 값이 싼 인력을 동원하여 편찬 비용을 최소화한 문제성 많은 사전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거의가 국가 기관에서 편찬을 주도하고 판매 부수에 구애되지 않아, 사전학적인 성취에 경주할 수가 있다. 다만 정부의 언어 정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면이 있다. 올림말의 선정이나 풀이말의 내용, 용례 선정 등에서 이러한 성격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업 출판에 의지하는 남쪽의 사전 편찬은 그것이 1회성으로 그쳐, 이전 사전에서 얻은 성과가 그 뒤를 잇는 다른 사전에 이어지지 못하는 소모적인 반복이 많다. 이에 비해 북쪽의 사전은 하나의 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편찬 사업을 지속하므로, 뒤를 잇는 사전에 앞선 사전의 성과가 계승되어 사전 편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그 결과 북쪽의 새로 나온 사전에선 이전 사전보다 개선된 뜻풀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남쪽 사전에선 새 사전이 이전 사전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 사전의 품질은 거의 사전 편찬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개별 출판사의 독창적인 시각과 능력이 사전의 다양성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면에서 북쪽의 사전은 일관성을 갖지만 개인적인 시도가 발휘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남쪽에서는 북쪽에 비해 사전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여 남쪽에서는 편찬자 위주의 사전이 편찬되거나 지나치게 연구성 결과를 내보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통합 국어 사전의 편찬

광복 이후 남과 북은 서로 교류가 거의 없이 각자 사전을 편찬하고 사전학 연구를 발전시켜 왔지만 양측이 모두 그 나름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왕래하며 편찬과 연구를 함께 해 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보다 나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전이 갖는 장점과 단점들을 서로 인식하고 연구와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이 사전 편찬자와 연구자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나, 다행히 정치 사회적으로 남북 관계가 조금씩이나마 소통이 열려 가고 있어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실제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은 사전 편찬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남과 북의 국어학자와 사전 편찬자들은 우리말을 지역 구분 없이 망라하는 대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것은 남과 북의 우리말은 물론 해외의 우리말까지를 포용하여,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의미를 갖는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에서 각각 10명씩의 편찬위원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사전에서 적용할 어문 규범을 조정할 규범위원회도 곧이어 조직하였다.

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2013년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편찬 사업이 시작된 후 오늘까지 ‘사전 편찬 지침’을 거의 완성하면서 한편에선 사전의 뜻풀이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지침의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결정하면서, 자모별로 서로 교차 집필과 검토를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전에 한정되는 어문 규정들을 통일해 가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지만 두음법칙 등 일부의 사항들은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말 전체를 망라하는 통합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국토와 민족의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측 구성원들의 정신과 정서를 형성하는 문화적인 통일이 함께 해야 완전한 통일이 이룩될 것이다.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언어를 통일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나 모두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언어를 통일한다.’라고 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현재에도 남과 북은 거의 불편함이 없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우리말은 분단 이후 각각 독자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이

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전달에서 어려움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방언 성격의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므로 이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남과 북이 이제까지와 같이 서로 간에 왕래가 없이 계속 지낸다면 그 차이의 증가는 더욱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과 북은 국토와 정치의 통일을 앞두고 하나의 단일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말이 더 이상 차이를 벌리지 않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달라진 남북어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언중들이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의 사회와 문화 공동체를 원만하게 형성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남북 언어의 통일화’라고 부를 수 있다.

남과 북의 우리말을 통일하기 위해선 상호 왕래와 교육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언어 모습을 포함한 우리말 전체를 보여줄 통합 사전의 편찬이 우선해야 한다.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 하나만으로 우리 민족어의 통일 사업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합 사전의 편찬 문제에서도 그러하다. 이제 「겨레말큰사전」과 관계 없이, 통합 사전의 편찬에 대하여 그 성격과 발전 단계, 갖추어야 할 내용 및 제기되는 문제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통합 사전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모습의 사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통합 사전 편찬에서 올림말과 풀이말, 그리고 용례를 위주로 유의할 문제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고찰한다.

통합 사전이라고 해서 기존의 우리말 사전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의 사전들이 거의가 남이나 북의 한쪽 지역 우리말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방 지역의 우리말을 포함했다고 해도 아주 소략하게 그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다루었을 뿐이었지만, 통합 사전은 양쪽의 우리말을 똑같이 소중하게 통합하는 사전이 되는 것이다. 남과 북의 우리말은 각 지역의 방언을 포함하지만, 표준어와 문화어는 이들과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다. 표준어와 문화어 모두가 통합 표준어/문화어 후보이며, 남북한 전 지역의 방언들이 동등한 방언 자격을 가진다. 통합 사전에서 수용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이들 전체가 되며, 이는 올림말이나 발음, 뜻풀이, 용례 등 사전의 미시적 항목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어학에서 광복 이전의 우리말을 현대 국어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에서는 이 시기의 우리말보다는 오늘날의 언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는 남과 북의 언중들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실용적 사전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다른 사전에선 수용하지 못하는 신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전진적인 수용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 이러한 사전을 ‘통합 사전’이라 이름한다. 남과 북의 언어를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통합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통일의 초기 단계에서는 ‘통합’의 성격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올림말의 범위에는 남과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휘와 단어적 구⁵⁾, 접사, 어미, 관용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복’과 ‘조선옷’, ‘도시락’과 ‘곽밥’, ‘부엌’과 ‘정지’, ‘젤리’와 ‘단묵’ 등이 모두 수록된다. 각 지역의 방언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수록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있는 방언 올림말이나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방언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해외 동포들이 쓰고 있는 우리말(한국어/조선어/고려말)도 올림말에 넣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아직 조사가 불충분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올림말의 범위를 잡을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올림말의 표기이다. 표기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남이나 북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사 형태를 모두 올림말로 삼는 방식이 있다. 둘째로, 한 쪽의 서사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한 쪽의 표기 형태도 이에 맞추어 통일할 수도 있다. 셋째로, 남북이 논의를 하여 하나의 지시 대상에 대해선 하나의 서사 형태만을 올림말로 결정하는 방식도 있다.

첫째 방식은 작업하기에는 매우 쉬우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젓가락’과 ‘저가락’, ‘드디어’와 ‘드디여’, ‘아내’와 ‘안해’처럼 똑같은 말이 서사 규범의 차이에 의해 달리 표기되는 것들을 모두 신는 낭비가 생긴다. 또 이들은 사전 안에서 대개 가깝게 이웃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공존의 의미를 감소시킨다. 그런데 사전에서의 표기 문제는 올림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의 서사 규범을 모두 인정한다면 풀이말에서 위와 같은 말들을 일일이 ‘저가락/젓가락’ 식으로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혼란과 낭비가 너무나도 커서 이 방식은 적당하지 못하다. 풀이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올림말에서도 의미가 없으므로 첫째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방식은 양측의 합의만 도출할 수 있다면 가장 쉽게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정부 차원이나 사전 편찬자들끼리 혹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서사 규범을 포기한 쪽의 일반 언중들이 수긍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 방식도 현실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방식은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논의 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 일부의 사항은 어렵잖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논란이 심하며 심지어 극히 일부는 끝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이 방식만이 남과 북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하며 수긍할 근거를

5) ‘단어적 구’는 단어 성격을 가진 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유 명사, 사회 생활, 보일의 법칙’ 등과 같은 구를 말하는데, 북쪽 사전에는 주올림말로 등재한 단어적 구의 범위가 훨씬 커서(예: 가마니짜는 기계, 로력영웅금메달) 이에 대해선 남북의 논의가 필요하다.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서로 자존심이나 우월감을 내세우지 말고 순수 언어학적이고 사전적인 면에서 논의하고, 우리 민족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겨레말큰사전」의 편집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언어 규범 논의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서 결정한 언어 규범이나 표준어 등의 적용은 이 사전에만 한정하기로 하였다.

올림말 다음에 놓이는 발음 정보는 남과 북에서 나타나는 모든 발음을 다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남과 북의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대체로 후자를 택하되 남과 북에서 발음이 다를 때는 두 가지를 모두 신는다. 이와 같이 복수 표준을 인정하는 원칙은 발음 외에 문법 정보나 참고어 정보 등 대부분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전의 성격과 품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뜻풀이 풀이말 집필 작업은 통합 사전에서도 논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풀이말은 순수하게 사전학적인 기술로 일관해야 한다. 현재 북쪽의 사전에는 체제 이념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나, 이 통합 사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어떤 올림말이 남이나 북 또는 해외의 어느 지역에서 한정되어 쓰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풀이말에서 말해 주어야 한다. 이는 올림말 차원에서 그러하지만, 의미 내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각 지역 방언에 그 사용 지역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이다. 남과 북의 언중들이 일상 생활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올림말들이 갖는 기본 의미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일반 의미를 앞세우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⁶⁾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의미는 세밀하게 설명하여 다른 한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례는 문헌이나 구어 자료 등에서 찾되 남과 북의 비중이 적절히 갖추어지도록 한다. 용례는 남과 북이 상대방 지역의 언어 사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소중한 항목이 되므로 이 사전에서는 용례를 더욱 풍부하게 실어야 한다. 이 사전은 남북 통일을 전후하여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서로의 현실어를 익히고 사용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특히 구어 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례에서 특정인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우리말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그 용법이나 의미가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는 그만큼 용례를 충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에서 살핀 통합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체제나 이념 등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언어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마다 순수하게 사전적인 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⁷⁾ 이 사전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

6)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에서는 올림말의 풀이말에서 빈도순에 따라 의미 항목을 나열하고, 기본 의미에는 해당 번호의 바탕을 검게 하여 표시하였다. 이는 언어 사용의 현실성과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 통합 사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올림말의 어깨번호에도 이러한 빈도순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빈도순을 내기 위해선 남과 북이 함께 언어 코퍼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선 남북 통일을 앞두고 양측의 언중들이 상대방의 우리말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넓히는 데에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을 전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사전이 갖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의는, 이 사전이 오늘날 우리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어 사전이 갖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사전은 특히 남과 북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실상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이는 것이다.

통합 사전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와야 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이나 통일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별로 나올 수도 있다. 위에선 남북이 전적으로 합의하여 하나의 체제로 편집하는 통일 사전을 말하였지만, 남이나 북에서 각자 자신의 언어 규범이나 사전 체계로 통합 성격의 사전을 편찬할 수도 있다. 가령 남쪽에서라면, 기존의 사전에 북쪽의 올림말을 보태고, 남북 공통의 올림말 안에서도 북쪽 지역에서만 쓰이는 의미 내항을 더 넣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편찬은 모두 남쪽의 언어 규범이나 사전 편찬 방식을 취하면서, 북쪽의 우리말에 대해서도 남쪽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은 방향만 바꾸어 북쪽에서도 나올 필요가 있다. 또는 남과 북의 우리말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사전도 요구된다. 이러한 사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간략본 성격으로 어휘집의 형태를 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말의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용도에 따르는 기초적인 기여가 되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여 우리 민족어의 총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까지를 포함하는 민족어 사전의 편찬도 요구된다. 여기에 수록되는 우리말의 총량은 어느 곳에서든지 활용되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4. 민족어의 통일 지향

우리 민족은 다행스럽게도 오랜 동안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단일한 역사를 꾸려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배타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단결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오늘날 민족의 통일은 역사적으로나 정치 지리적으로나 절대 명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능한 한 적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양측이 서로 갈등이나 괴리감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해 나가

7) 현재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에서도 남과 북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야 할 과제이다.

그러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민족어의 통일을 생각한다. 국토와 민족의 진정한 통일은 언어 문화에 의한 요소가 매우 커다란 것임을 앞에서 말하였다. 국토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선 언어에 이질감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언어 소통을 할 때에 나타나는 각 지역의 방언은, 양자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서로 간에 이질감이나 갈등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각자 표준어와 문화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표준성 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언어 소통을 하게 되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때 서로 우월성을 경쟁한다든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행위가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을 앞두고 표준어와 문화어를 모두 표준적인 우리말(이하에서 이를 편의상 ‘통합 표준어’로 이름함)로 수용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⁸⁾ 통합 표준어를 이루는 방식으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하기로는 국토 통일이 되는 순간 표준어와 문화어를 모두 통합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어휘 형태나 의미를 포함하여 언어 규범들은 모두 복수로 인정하였다가, 언중들의 자유 선택 사용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규범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수가 단수로 바뀌게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 때 통합 표준어에서 밀려나는 어휘 형태나 의미들은 아예 사라지거나 방언 성격의 지역어로 남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잘 알지 못하는 어휘 형태나 의미 또는 어구에 부딪혔을 때 당혹감이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미리부터 상대방의 우리말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개 내가 기준이 되므로, 이에 따르는 헤게모니 경쟁의식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택하더라도 미리 양쪽의 우리말을 담은 사전을 편찬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방식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상대방의 우리말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여도 너무나 많은 어휘 형태나 의미들이 충돌하게 되어, 언어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밀려날 때에 이전부터 그 말을 사용하던 언중들의 열등감과 불편함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느 한 쪽이 훨씬 더 많이 밀려나는 양상을 가질 때 그들이 갖는 열등감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통일을 앞두고 미리부터 양쪽의 국어학자와 언어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8) ‘표준어’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도 있는데, 그러한 견해에선 ‘통합 표준어’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말이 지역어가 되는 셈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선 생략한다. 현재 남북의 언중이 모두 가지고 있는 표준어 의식을 적어도 상당 기간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통합 표준어’를 설정하기로 한다.

서 언어 규범을 조율하고 어휘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가능한 한 양쪽의 우리말 모습에 차이를 줄여 나가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다. 우선 통일 협상이 손쉬운 것부터 합의를 하여 사전에 반영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양쪽의 언중들이 서로에게 적응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서 좀 더 자연스럽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데에서 오는 패배감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위해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탁상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 언중들에게 호응을 못 얻어 현실 생활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엔 다시금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적 물적 비용과 손실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통일에 앞서서부터 우리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또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응용하든, 남북의 우리말이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동서 통일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며,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의 남북 통일을 더욱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그랬듯이 우리도 통일을 앞두고 가능하면 서로 간에 왕래를 늘려야 한다. 남북의 사람들이 직접 오가는 왕래가 가장 좋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소통하고, 신문 방송과 인터넷 등의 소통도 넓혀 나가야 한다. 더불어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통일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선 각 사업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전을 다양하게 편찬하는 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현대에 들어와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우리말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고, 광복 후에는 곧 남북으로 나뉘어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 변화를 가져 우리말에 서로 다른 어휘나 발음, 표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세기는 우리말에 있어서 고난이 계속되었던 불행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리말은 통합 통일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민족어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분단되어 60여 년을 지내오면서 남과 북의 우리말이 제각기 변화해 온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통일되는 우리말은 이들을 모두 끌어안음으로써 오히려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남과 북에서 각자 발전시켜 온 우리말을 풍성화하는 작업으로 민족어의 통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광복 이후 남과 북에서 이룬 국어 사전의 편찬 성과와 양쪽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살피고, 앞으로 이를 민족어의 통일 과정을 논의하였다. 남쪽과 북쪽의 사전 편찬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발전 과정을 겪기도 하고 일부 다른 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양쪽 모두 1990년대에 완성도 높은 대사전을 편찬해 내는 발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남과 북의 사회 체제와 언어 정책에 차이가 있고, 사전을 편찬하는 주체가 다른 등으로 인해 양쪽의 사전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앞두고 남과 북은 현재 통일 국어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합 통일 사전의 성격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살피고, 특히 올림말과 풀이말, 그리고 용례에 대해 몇 가지 처리 방식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상론보다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통일이 민족어의 발전적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 면에서 통일 준비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이 언어 규범 등을 논의하며, 통일 사전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 물적 교류를 늘리면서 언론 등을 통한 언어의 소통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 국토의 통일과 더불어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통일을 이룰 때 진정한 민족 통일은 완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에서 각자 발전시켜 온 우리말은 그만큼 풍부하게 통합하는 통일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89.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 연구. 「정신문화연구」 36
- 국립국어연구원(권인한 담당) 199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 국립국어연구원.
- 김민수 1985. 「민족어의 장래」. 일조각.
- 리기원 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조선어학전서 16) 사회과학출판사.
- 박금자 1989.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 「북한의 말과 글」(고영근 편). 을유문화사.
- 이병근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정순가리기원 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조재수 1984. 「국어사전 편찬론」. 과학사.
- 조재수 1991. 북한의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한글」 213. 461-5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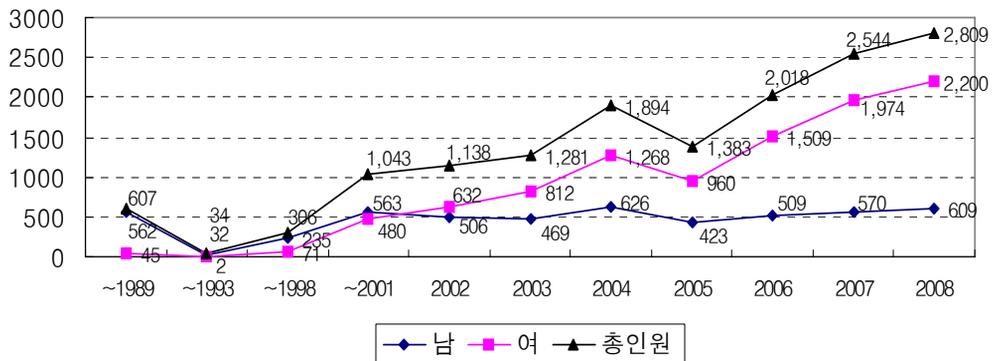
-
- 차재은 1991. 북한의 사전 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김민수 편) 2. 녹진.
- 홍윤표 2007. “한국의 사전 편찬 현황과 겨레말큰사전.” 「세계 사전 편찬 경험과 만나다」(겨레말
큰사전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홍중선 2008.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1). 「우리어문연구」 30. 117-143쪽.
- 홍중선·최호철 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새터민 언어 적응 문제와 교육 방안

양수경
서울대

1. 새터민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는 새터민 15,000명 시대(2008년 12월 현재, 총 15,057명 입국)에 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연간 3,000여명에 달하는 입국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계속 되고, 먼저 입국한 새터민들의 북한내 가족 구출이 증가하면서 새터민 입국 규모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새터민 연도별 입국현황 및 추세〉

언어 적응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 입국 새터민의 유형별 현황(통일부, 2009)을 살펴보자. 먼저 재북 출신지역별 유형을 살펴보면, 국내입국자 중 함북 68%, 함남 10% 등 함경도 출신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 새터민들이 함경방언 화자라는 사실은 발음과 억양, 어휘, 경어법 등의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된다.

〈새터민의 재북 출신지역별 유형〉

(’08.12 현재)

구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계
누계(명)	10,234	1,520	371	89	553	477	100	766	291	223	313	120	15,057
비율(%)	68	10	2	1	4	3	1	5	2	1	2	1	100

또한 새터민들의 재북 직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피부양자, 노동자 등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내 제도 교육의 부실 및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한 학업 공백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직업 유형과 학력 수준을 감안해 이분들의 학습 능력과 준비도를 예측해야 한다.

〈새터민의 재북 직업별 유형〉

(’08.12 현재)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무원	계
누계(명)	6,974	6,155	349	330	150	566	533	15,057
비율(%)	46	41	2	2	1	4	4	100

남한에 첫 발을 내딛은 새터민들에게 정치 이념과 경제 체제, 문화와 사고 방식, 언어 등 모든 것이 낯선 남한에서의 적응은 마치 이민자들의 상황과 다름없다. 이민자나 난민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새터민 역시 언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6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이질화된 언어 때문에 새터민들은 남한 생활 전반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언어이질화에 대한 남북한인의 인식차이로 인해 언어교육의 필요성은 새터민이 느끼는 것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러나 타문화권에서 온 이민자

와 다름없는 새터민에게 사회문화 적응의 도구로서 언어 교육과 지원은 필수다.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감인 조명숙 선생님이 따르면, 새터민들은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힘들었고,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붙잡힐까봐 도망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여기 남한에서는 몰라서 힘들다”며 남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언어는 바로 이 사회문화적 지식을 담는 용기인 셈이다. 그 사회의 언어를 배워간다는 것은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사회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며, 이들의 언어상의 적응 문제는 곧바로 사회문화적 적응과 직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2.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

남한인에게 표면상으로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 새터민의 말은, 그래서 우리와의 의사소통에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그 기대와 달리, 남한 사회에 소수자로 편입되어 적응해야만 하는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수많은 외래어, 신조어,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담화 상황들은 수시로 불안과 긴장, 두려움을 야기할 만큼 그들에겐 이질스러운 것이다⁹⁾. 안타깝게도 이 질화된 언어로 인한 부담은 오로지 이 사회의 소수자인 새터민의 몫이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의 불편뿐 아니라 취업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새터민들을 면담한 내용 중에 발췌한 것이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혹시 모르는 말이 나오거나 또 내가 실수할까봐 긴장하게 된다. 상대방이 내 말투 때문에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되물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말이 더 안 나오고 더듬거리게 된다. 그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30세, 여).

애가 학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북한 말씨를 안 들키려고 긴장하게 돼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중국서 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친구 애가 집에 갈 때까지 저는 되도록 말을 많이 안고 할 말만 해요.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알려져서 좋을 건 없어요. 옆집 사람이 우리보다 실제 못 살면서 내가 탈북자란 걸 안 다음부터 무시하고 깔보더라구요(37세, 여).

9) 김석향(2003)에서도 남한인들이 인식하는 언어이질화 정도와 새터민들이 느끼는 정도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평소에 마음 좋아 보이는 남한분에게 용기 내어 취직 자리를 부탁했는데 당장 하는 말이 “네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말투부터 고치고 와라. 그 전에는 취직시켜주고 싶어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28세, 여).

사례에서 보듯 새터민은 실질적인 의사소통 문제-외래어를 비롯한 낮은 남한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 북한식 발음과 억양 때문에 자신의 의사전달에 지장을 받는 것-와 더불어 북한말로 인해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도 경험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로 인한 문화 충격과 그들이 이질적인 남한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언어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입국 5년 이내의 새터민 90명을 대상으로 한 정경일(2001)에 따르면, 언어 차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71.9%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신분노출로 인한 인간관계의 악화, 동정적 인식,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결혼과정의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 등을 들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이 전적으로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같은 연구에서 정착초기 남한 주민들의 말을 ‘전혀’ 또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 응답자가 44.8%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생소한 단어’를 지적한 응답자가 33.9%, ‘발음과 억양’이 27.4%, ‘의미 차이’가 19.6%이었다. 이 때 생소한 단어로는 외래어와 한자어, 다른 사회 문화 체제에 기인한 낮은 단어 등을 꼽았으며, 특히 외래어 특히 영어로 인한 어려움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 출처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사례들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면담한 내용들이다.

2.1. 발음과 억양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언어교육 시간에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북한 사투리 교정, 즉 북한 발음과 억양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말 한 마디에 “조선족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어오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고 어색해지는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시선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한데 어울려 이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은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은 왜 유독 북한 말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 속상해 한다. 남한인들이 새터민들의 말투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이에 새터민이 자신의 발음과 억양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된다는 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남한인들의 반응이 순수하게 북한식 말투가 반영하는 북한 사회와 북한인에 대한 평가

와 태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방언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태도는 결국 그 방언 화자 집단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 과거 반공교육의 영향 탓에 북한말과 관련하여 웬지 모를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이 그 말을 사용하는 이에게 전이될 수 있다.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한 북한의 말이므로 그 말을 쓰는 새터민마저 우리보다 한 단계 밑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북한말에 대한 남한인들의 태도를 바라보게 되면 북한말을 쓴다는 것은 곧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터민들이 발음과 억양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원활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남한인들은 개인적으로 북한식 발음과 억양을 접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북한말이 실제로 낯설고 알아듣기 어려워 주목하게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자모음의 달라진 음가, 억양 등의 이유로 남한인들과 의사소통할 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호간에 공유되는 맥락이 없는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를 언급해야 하는 대화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달라진 모음의 음가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모음 /오/와 /어/는 원순화되어 남한 사람들 귀에 각각 /우/, /오/와 비슷하게 들리며, 남한의 /오/보다 저모음이고 원순성이 덜한 /오/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어/와 분간이 어렵다(이현복, 2000; 곽충구 2003)).

전화로 택배 주문할 때마다 내 이름을 얘기하는데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별로 없
다니까. ‘조’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냐고 자꾸 물어보고.. 앞에 있으면 써서 줄텐데. 답
답해. (49세, 여)

남북한 간의 억양 차이 때문에 새터민들(특히 함경도 출신)이 남한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평상시처럼 얘기했는데, 남한 사람으로부터 왜 화내는 말투, 짜증내는 말투로 얘기하느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처음에 “당신 친구들은 왜 하나같이 흥분해서 싸우는 전화만 걸려오는가?” 주변 사람들
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화 오면 우선 누군가부터 확인하고
함경도분이면 자리를 옮겨 조용한 복도에 나가 받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38세, 여)

표준어의 억양은 대체로 높낮이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 부드럽게 흘러가는 어조인데 비해, 함

경 방언의 억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이 반복되어 강하고 드센 인상을 준다. 더구나 함경 방언은 평안방언이나 표준말에 비해 말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다. 이는 전체적인 발음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지만,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한숨에 붙여 말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억양과 빠른 말속도가 결합되면 서로 공유하는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에도 지장을 받기도 한다.

2.2. 어휘

남북한 간에 이질화된 정도가 가장 큰 영역으로 어휘를 들 수 있다. 새터민들은 남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많은 외래어, 남한에 새롭게 유입된 문물과 현상을 가리키는 어휘, 의미전이가 일어나 북한어와 형태는 같은데 다른 의미나 어감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을 대할 때 자신이 마치 외국에 와있는 기분이라고 보고한다.

문구점에 취직해 열심히 일해보자 했는데, 손님이 와서 ‘포스트잇’을 찾고 ‘호치키스’를 찾는데 그게 뭐냐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해 줘도 잘 모르고.... 장사에 지장이 생기니 주인이 그만두라는 데 뭐라 할 말이 없었다(28세, 여).

일을 해보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 얼마 하다 그만두게 된다. 한 번은 건물 짓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저기 가서 뭐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그게 뭔지 뭘 가리키는지 몰라 우물쭈물하게 됐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여기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이 달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38세, 남).

여기서는 ‘늬은이’란 말이 낯추는 말이잖아요. 북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나는 저희 어머니가 늬었으니까 항상 ‘늬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깐, 여기 사람들은 ‘늬은이’라고 하는 게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보고도 ‘할머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라고 하면 좋지만도, 또 나도 모르게 ‘늬은이’란 말이 튀어나올까봐, 방지, 방지하려고 ‘할머니’를 미리 말해 버리는 거죠(37세, 여).

먼저 외래어가 가장 큰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메모, 인터넷, 마트, 마우스’ 등 남한에서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가 일상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외래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쓰이는 상황 자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남한 사회에만 존재하는 문물과 현상 등과 관련된 낱말들,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해진 다의어의 경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일으킨다. 그 예로, 치맛바람, 청와대, 과학고, 공채, 강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간에 형태는 같으나 뜻(또는 어감)이 다른 낱말들은 대부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 낱말들로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서로가 이런 낱말의 의미 차이를 모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 없다’는, 북한에서 ‘괜찮다’는 뜻의 정중한 사양이지만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의 다소 무례한 거절을 의미한다. 이렇듯 형태는 같은데 남북한 간에 어감이 서로 다를 경우,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오게 된다.

2.3. 화법(언어 예절)

2.3.1. 경어법

새터민들은 주체 높임의 ‘-사-’, 어휘적 높임인 ‘-해 드리다’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남한의 경어법에 처음엔 어색해 하고 낮설어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함경도 출신 새터민들의 경우, ‘합쇼’체와 구별되는 ‘해요’체의 대화 상황 선택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면담한 마지막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문금현(2006)에서 인용한 것이다.

남한에서 ‘식사하셨습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식사했습니까?’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요’를 전혀 쓰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쪽은 특히 ‘-요’를 안 써요. 평안도 사람들은 조금 쓰고.

아랫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아랫사람에게 언제 ‘-하세요, -해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상대를 높이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북에서는 부탁할 때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도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해 드리다’, ‘-세요’ 같은 말도 여기처럼 많이 쓰이지 않아요.(36세, 남)

또한 북한에서는윗사람에게 사용되는 청유문 ‘-하시다’가 남한에서는 동료나 동년배에게만 사용되고, 북한에서는아랫사람에게 쓰는 명령문 ‘-해라’가 남한에서는 ‘-해’로 대응된다거나, 북한에서는 비슷한 지위의 상대에게 쓰는 명령문 ‘-시오’가 남한에서는 ‘-세요’로 대응된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구현정 외, 2008).

2.3.2. 화행(speech act) 관련

새터민들은 남북한 간의 화행과 관련한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간접적인 요청 표현에 이질감을 느끼며,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칭찬과 감사 및 사과 표현에 어색해 하고 있었다(문금현, 2006; 양수경, 권순희, 2007).

새터민들이 정착 초기, 남한인의 완곡한 거절(‘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가 실망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새터민들은 이러한 남한사람들의 완곡한 거절 표현을 이중적이라고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표현이 솔직하다고 여긴다. 반면 새터민은 상대의 요청 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직접적인 거절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한인들은 이러한 표현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며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다음의 새터민 면담 사례는들은 남한인과의 대화 시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상의 이질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락할게’, ‘생각해 볼게’ 해놓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아니 말 갖고 장난치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끼죠. 이젠 좀 습관화되어 괜찮아요. (30세, 여)

그니까 그 이케 남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듣기 좋은 말, 그 기분, 기분 좋게 만들고 이런 것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 북한말은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은 좀 둔하죠. 미련하죠. 싫으면 싫다하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하고 나쁘면 나쁘다하고 싸워요, 나쁜 걸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그런 측면도 별로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을 될수록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에 그런 문제 저희도 참 당황스럽더라구요.(중간생략) 그러니까 북한, 일단 단순하지... 북한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북한 사람 알고 지내기는 정말 단순해요. 그게 그 표현하는 그대로니까. 싫을 때는 싫다하고 또 그 기분이 돌아서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그게 좋

은데 한국 사람은 그 표현이라든지 감정 표현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웃으면서 말해도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케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몸에 배서 나한테 대해 주는 게 이런 건지 이런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이하 생략)(문금현, 2006)

또한 남한에서는 ‘-해줄 수 있니?’나 ‘-해 줄래?’, ‘-해도 될까?/하면 안될까?’처럼 간접적으로 돌려서 부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부탁이나 명령을 할 때 ‘-해라’, ‘-합시다’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라고 한다. 새터민들 이러한 남한의 간접적인 요청 표현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에돌려서 하는 말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밥 먹자’ 그러지 ‘밥 먹을래?’ 같이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 않는다. 직접 얘기하는 게 더 친근감 있고 더 좋게 느껴진다. ‘밥 먹을래?’하고 물어오면 이게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47세, 여)

이렇게 남북한의 요청 화행 실현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람들은 새터민들이 부드럽게 요청하고 부탁하기보다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새터민들이 무례하고 거칠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화행과 관련된 차이들은 어휘나 발음 및 억양의 차이에 비해 즉각적으로 의식되지 못하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시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3. 새터민 언어 적응 교육 실태

현재 새터민들의 언어 적응을 돕는 교육으로는 먼저 새터민 사회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언어 적응 교육과 하나원 퇴소 후 새터민 지원 단체들의 사회적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언어 적응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의 새터민은 개인적인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남한어를 배우고 습득해 가는 경우가 많다.

3.1 하나원의 언어 적응 교육

새터민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기관인 ‘하나원’은 새터민들이 국내 입국 후 그들이 경험해 오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 및 문화, 환경을 가진 남한 사회에 곧바로 편입되어 받게 되는 문화적 충격을 경감시켜 주는 완충지적 역할을 한다. 새터민들은 3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응훈련과 직업교육 등을 받게 된다. 하나원의 총 교육시간(420 시간) 중 언어 적응 교육은 ‘우리 사회 이해 증진’의 하위 교육으로 총 29시간이 배정되어 있다(아래의 표 참조).

〈하나원의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 (박성열, 2007)

교육주제	교과목	시간	내용
언어적응 (29시간)	남북한 언어 비교	3	언어 차이 이해
	표준발음 연습	3	발음 억양 교정
	기초영어	2	생활영어 소개
	시사영어	4	시사문제 해설(신문활용)
	외래어	12	상용외래어 학습
	상용한자	5	상용한자 학습

다음은 하나원의 언어교육 교재 『새로운 언어생활』(하나원, 2007)의 목차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초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생활에 기능적인 언어 지식과 사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 남북한 언어비교

1. 남북한의 언어정책과 언어관습의 차이
2. 한글 맞춤법의 차이
3. 남북한 언어비교의 실제

II. 표준발음 연습

1. 표준발음에 대한 학습, 왜 해야 합니까?
2. 북한에서 온 우리들의 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 표준발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 표준발음으로 인정되는 자음과 모음의 종류는요?
5. 글자는 같은데, 장단이 다릅니다.

6. 리듬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7. 어떻게 하면 사투리 억양을 고칠 수 있을까요?
8. <표준발음법>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III. 기초영어

1. 알파벳
2. 발음기호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4. 영어 회화

IV. 외래어

1. 외래어에 대한 이해
2. 용어 및 사용례

하나원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방식은 교과서 위주의 강의이며, TV 뉴스나 드라마, 비디오 시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 언어 교육에 대한 수료생들의 반응은 만족스럽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불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는데, 하나원에서 배울 때는 좋았으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실제적인 언어 훈련 및 연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남한 사회 현장에 가서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배우고 싶고, 비디오나 TV를 더 많이 활용하여 실제 생활 모습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학습하고 싶어했다(문금현, 2006). 새터민들의 하나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면, 언어 교육 시간의 증가, 주입식 강의 위주보다는 비디오나 TV 등의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 학습, 현장 중심의 체험 학습, 실제적인 언어훈련 및 연습의 기회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2 새터민 관련 단체의 언어 적응 교육

새터민들이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 공적인 언어 적응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자유시민대학, 이북오도청, 탈북자동지회, 한반도평화연구원 산하 정착지원센터 등 새터민 지원 단체에서 사회적응교육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발음 및 억양 교정, 외래어 학습을 포함하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청자 위주로 진행되므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새터민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와 그 필요에 초점 맞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새터민들은 하나원 퇴소 후 이질적인 남한의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언어 교육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지만, 당면한 생계와 취업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민간 단체의 언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필자가 일부 강의를 담당했던 2008년 가을 학기 이북오도청의 ‘표준말 배우기반’의 사례를 소개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9회로 진행되었는데, 대략 15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수강생 3분의 2 정도가 50대 이상 여성으로서 프로그램 출석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받기 위해 참석하는 분위기여서 전체적인 학습 동기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어문규범 위주의 강의를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음과 억양 교정을 위주로 강의해 줄 것을 요구해 와 필자는 남북한의 달라진 자모음, 리듬과 억양 위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북오도청 관계자들은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터민 맞춤형 교육의 미비로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하면서 운영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4. 언어 적응의 경과

새터민들은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도 남한어를 배워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다. 정경일(2001)에 따르면, 남한어를 사용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경우(44.9%)와 ‘조금 노력’하는 경우(39.3%)가 ‘거의 않거나’(10.1%) ‘전혀 않는’(5.6%)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이 남한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우(84.0%)가 가장 많고, ‘인간관계의 원활’(58.7%), ‘신분 감추기’(32.0%), ‘생활정보 취득’(29.3%), ‘취업의 용이’(18.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한어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의 시, 청취’(60.0%), ‘주민과의 대화’(31.1%), ‘특별교육 수강’(18.9%), ‘독서’(16.7%)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어와 한자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회가 닿는다면 영어 교육을 받고 싶다는 희망자가 82.1%, 한자 교육 희망자도 80.2%에 달하고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남한인들과의 접촉, TV나 라디오, 인터넷, 신문, 책자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청소년층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그나마 매체에의 접근이 쉽고 학교적응과 취업이라는 나름의 동기도 커서 나름대로 습득이 빠른 편이나, 그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부적응, 오해, 차별 등의 부정적 경험들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와 남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겪는 시행착오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언어 적응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경일(2001)에 따르면, 남북한 언어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56.8%가 2년 이내에 언어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금현(2005)에서는 정착기간별로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18개월, 19개월 이상의 네 그룹(총 피험자 30명)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언어 적응에 2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언어 테스트에서 언어 이해의 정확도와 능숙도가 거주 기간에 따라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19개월 이상에서는 남한 사람의 경우보다 떨어지기는 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 적응이라는 개념이 개인적인 기대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대학진학 후 취업을 예상하는 청소년층, 고학력자와 같이 직업 기대치가 높은 대상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도 높아 예상되는 언어 적응 기간을 길게 잡고 있었다(Kim Kyung-Ryung, 2007). 반면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이 높지 않아 언어 적응 기간을 짧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학력 수준, 직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언어 적응 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5. 새터민 언어 적응 교육의 개선 방안

이제 새터민 언어 적응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 다음으로 하나원과 하나원 퇴소 후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새터민 언어 교육은 사회문화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언어 교육이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문화교육이 강조되어왔다. 그런 관점이 가장 필요하고 부각되어야 하는 언어교육 대상이 바로 새터민이라고 본다. 어휘 하나, 표현 하나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새터민들에게는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령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의 화용표현을 가르친다면 한국의 장례 절차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다.

둘째, 새터민 언어교육은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장면 중심 통합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그 난이도나 수준은 달라지겠지만, 당장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어휘나 화용표현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되, 주제장면 내에서 관련 표현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적인 주제장면들의 선정은 문금현(2007)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기존 외국어 교재들의 주제장면을 참고할 수 있다. 이미 정착한 새터민들에게 설문조사하여 본인들의 경험상 가장 적응이 어려웠던 주제장면들을 순위매기게 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셋째, 발음 및 억양 교육에서는 새터민들이 방언 화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표준발음과 억양이 남한 생활에 필요한 도구, 기능으로서 습득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즉 새터민이 표준말을 배우는 이유가 북한말이 틀렸으니 남한식으로 모두 고치기 위해서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북한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표준말 학습의 의의를 찾도록 한다. 남한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지만 직장, 학교, 방송, 공적 회의 등 격식을 갖추어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함을 알려준다.

5.1 하나원 내 언어 적응 교육

기본적으로 새터민들의 하나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인 언어 교육 시간의 증가, 주입식 강의 위주보다는 비디오나 TV 등의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 학습, 현장 중심의 체험 학습, 실제적인 언어훈련 및 연습의 기회 증진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방법 면에서 사회문화교육이 포함된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되려면 남한 가정 홈스테이, 지역사회 견학 등과 같은 현장학습이 최선일 것이나(현재 교육과정에 여자는 1박 2일의 홈스테이, 남자는 1일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가능하다), 보안 및 관리면에서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원 내에 영어마을과 유사한 가상체험시설을 조성해 놓고 교육생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어휘와 표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파트 한 세대, 병원, 우체국, 은행, 패스트푸드점, 교실 등에서의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경험을 가상으로라도 직접 체험해 보고 그와 관련된 지식과 언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때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나 표현들, 관련 지식들을 함께 제시해 놓은 교재가 함께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현재 하나원이 보안문제 때문에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어 교육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되어 협력 운영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2 하나원 퇴소 후 언어 적응 교육

하나원 퇴소 후 언어적인 면에서 후속 교육 체계 또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퇴소 후 교육 및 지원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하나원에서의 교육 효과가 교육생들의 심리적 상태나 동기 수준 등 학습 준비도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하나원 퇴소 후 직면하게 될 생계 문제, 복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더구나 남한의 이질적인 사회문화, 그를 반영하는 이질적인 언어 환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상태라 언어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 학습 동기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하나원 언어 교육에 대한 수료생들의 평가에서 하나원에서 배울 때는 좋았으나 하나원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 반응은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하나원 수료 후 체계적인 언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대략 2년여가 되면 어느 정도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불안, 차별, 무시 등의 부정적 경험들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와 남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겪는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수료 후 지속적인 언어 적응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데, 이는 현행 새터민 정착 지원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실현성 높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하나원 수료 후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정착도우미 제도와 하나센터 운영 안에 언어 적응 지원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정착도우미 제도는 새터민 1세대 당 정착도우미 2명이 1년간 전담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통일부, 2009ㄴ). 이들은 새터민의 초기 거주 지원(임대주택계약, 전입 신고, 아파트 입주, 생필품 구입), 일상 생활 적응(전기/가스/전화/인터넷 신청, 은행 이용, 교통 이용, 병원/보건소 이용, 생필품 구입, 쓰레기 분리 배출, 현금 관리, 관공서 이용)을 직접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남한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이야말로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남한의 사회문화와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정착도우미들이 언어 교육 지침서로, 남한의 일상 생활 안내와 함께 각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자(또는 누리집)의 제작을 제안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가이드북(문화관광부, 2005)의 체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부터 서울북부·경기서부·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하나센터는 하나원 수료자에 대해

거주지에서 3주간 지역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통일부(2009-)가 마련한 하나센터 표준 프로그램 내에는 아직까지 언어 적응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언어 교육의 필요가 절실한 초기 6개월 동안 하나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당장의 생계와 취업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내용으로는 남한의 일상생활 이해 및 각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의 교육(주로 어휘와 화용표현의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신청자 위주로 발음과 억양의 개별 연습과 훈련, 어문규범의 교육(띄어쓰기와 맞춤법)도 실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하나센터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으나 지역 내의 관련 기관들(각 지역 국어문화원 또는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이 겪는 사회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통일 이후, 이질화된 언어 차이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인의 오해와 갈등을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터민의 언어 적응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 후 사회 통합을 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단일 민족으로서 타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적었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수용력이 낮은 편이다. 새터민도 우리와 정치, 경제체제가 다른 타문화권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와 다른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경험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 구현정 외(2008). 국어문화학교 특별과정 개발 및 교안 제작-새터민을 위한 국어교육과정-.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김석향(2005).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석향(2006).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

립국어원.

김정인(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평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문금현(2004).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문금현 외(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문금현 외(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문화관광부(2005).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 문화관광부.

박성열(2007).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현황 및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양수경, 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이현복(2000), “남북한 언어의 발음 차이에 관하여”, 교육한글 13, 한글학회.

임철성(1996ㄱ). “북한의 화법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임철성(1996ㄴ). “북한 화법의 이중적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학회.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차재은(2005). "경상 방언 화자를 위한 국어 발음 교육 시안".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채정민, 이종한(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2). 한국심리학회.

통일부(2009ㄱ).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거주현황 통계”. 090325-지역적응센터 보도참고자료. 통일부.

통일부(2009ㄴ).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통일부.

Kim Kyung-Ryung(2007). A Study of Language Assimil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4).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향후 과제:

북쪽의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소개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이 상 혁
한성대

1. 들어가기

남북 언어의 통합 및 통합을 위한 연구는 역사적 과업이다. 수의적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말 그대로 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남과 북의 분단은 언어의 분단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지향점으로 양쪽이 독자적 발전을 해 왔다. 이 독자적 발전은 언어 사용의 이질화이자 언어 연구의 분단화이다. 이 언어의 분열은 필연적이었고, Korean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다. 따라서 남북 언어 통합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현재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한계와 몇 가지 전제를 살펴본 후, ‘북쪽의 조선어학 연구 경향’을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10.1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을 중심으로 ‘색인 사전’의 소개, 특징,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문제를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고 향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개관

특정한 주제에 한정된다면, 남북 언어 통합 연구는 개별 연구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합의 주제를 망라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한 집단적 연구가 더 의의가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대체로 남쪽에서 수행된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시발은 개별 연구자들의 선구적인 연구 작업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연구는 북쪽의 국어학 전반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 예컨대, 김민수(1985)의 <북한의 국어연구>는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후 북쪽의 자료를 누구나 제한 없이 보게 된 후부터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거의 전 주제를 망라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북한언어연구회 편(1989)은 <북한의 어학혁명>은 책 제목의 파격뿐만이 아니라 남쪽에서 공동 연구 작업으로 탄생한 첫 번째 북쪽 언어학 연구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 정책, 규범, 이론, 교육, 문헌 목록에 이르기까지 한국어학 분야 전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전수태·최호철(1989)의 <남북한 언어비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 이후 고영근 책임편집(1989) 역시 각 대학 교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북쪽 언어학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민수 편(1991)은 <북한의 조선어연구사1~4> 학술, 실용, 문헌해제, 문헌 목록 및 총색인 등을 따로 묶어 북쪽의 ‘조선어’ 연구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바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작업의 대체적인 특징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연구였다기보다는 당시에 목말랐던 북쪽 언어학 전반에 대하여 주로 정보 제공 및 소개의 측면이 강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단순히 자료 나열이나 목록 제시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남북 언어 통합 연구를 위한 보다 심층적 고민은 고영근(1994)에서 좀더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연구 전반에 걸쳐 남북의 여러 언어 문제에 대한 대조 및 통일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측면이 강했다.²⁾ 그러나 김민수 편(1997)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라는 제목으로 1990년 이후의 북쪽 언어학 전반에 대한 주제별 논의와 국내 북쪽 언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한데 아울러 담아냈다. 그리고 김민수 편(2002)에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남북 언어 통합 논의를 규범 중심으로 살펴본 바가 있다³⁾.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성과가 그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언어 통합 연구는 진

1) 이 4권의 책이 북쪽 언어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외 학회에서 북쪽 연구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 있다.
2) 책의 일본에서 통일을 위한 어문 정책, 한반도 우리말 연구의 통합을 위한 체계 등과 같은 주제의 논의는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초기적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영근(1999)도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바라볼 수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3) 남북 언어 문제에 관한 개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는 따로 정리하기로 한다.

행형이자 미완성이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론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합 연구를 위한 걸림돌은 무엇일까?

2.2.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현실적 한계와 전제

남북 언어 통합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여전히 여러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이루지고 있지 못하다.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그 현실적 한계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여전히 북쪽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상존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북쪽 자료의 전체를 원문 그대로 모두 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쪽 출판 문화의 폐쇄성에 기인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자, 북쪽 연구자들의 수동적 태도의 문제이다⁴⁾. 둘째는 남쪽에서 남북 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진행해 온 연구 성과에만 의존하고 연구자 간 통합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분명히 북쪽의 언어학 연구도 자체의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 중심의 논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만나는 북쪽 연구자, 혹은 중국의 연구자들을 언어 정보 제공자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⁵⁾.

이러한 제약 조건 및 한계에도 불구하고 목록이 조사되거나, 자료 전문이 입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선택과 배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자료를 남북 언어 통합 연구 자료를 활용하기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쪽의 자료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제될 대상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른 전제 하나는 해방 후 초기 북쪽 ‘조선어학’ 연구 경향 분석과 해방 후 남쪽 ‘한국어학’의 연구 경향 분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남북 언어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언어의 분단화가 가속화된 현재 이전 시기인 해방부터 50년대 한국어학(조선어학)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당시 자료에 대한 입수와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이 당시 남북의 언어학 논의가 남북 통합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예컨대 발표자가 최근에 발굴한 김수경(1949)의 <언어학>⁶⁾ 번역서 따위 등도 당시 북쪽 연구자들의 경향을 분

4) 해외에서 북쪽 학자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어떤 문헌, 어떤 논문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보면 그 답은 명료하지 못하다. 어쩌면 북쪽에도 목록만 존재하고 없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 발표자는 연변대학의 ‘조선어학’ 자료의 부족함에 놀랐고, 일본 조선대학에 방문해서도 자료를 도서관에서 매번 볼 수 없는 그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5) 이 문제는 언어 연구자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김하수(2005)의 시선을 참고해 볼 수 있다.

6) 김수경 역(1949). 『(대학용) 언어학』, 평양: 교육성(1949.7.31, 작자: 아·아 레폴마트쓰끼). 발표자가 2007년 4월

석하는 데 유용한 1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전제는 개별적 작업 및 다소 주관적 작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객관적·공동의 연구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다만 정치적 문제와 연동되면서 한국어학 분야의 교류가 시기마다 부침을 계속하는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공동의 연구 작업을 위해서는 양쪽 정부 당국의 거침 없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쪽 중심의 논의로부터 벗어날 때, 남북 언어 연구 자료의 통합적 모색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전제를 바탕으로 우선 북쪽의 언어학 연구 경향의 흐름은 지난 60년 간 어떻게 변모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건 남쪽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 태도에 해당한다.

2.3. 북쪽 언어학 연구 <색인 사전>의 소개

북쪽 언어학 연구와 관련해 우선 남쪽에 소개된 문헌 하나를 주목해 본다면, <주체의 조선어 연구50년사>일 것이다. 김영황·권승모 편으로 1996년 8월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출간된 이 문헌은 김영황 교수의 주도 하에 권승모 준박사 이하 16명이 제1편과 제2편, 그리고 부록으로 나눠 북쪽의 ‘조선어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남쪽에서 출간된 북쪽 ‘조선어학’ 연구사에 대한 자극을 받고, ‘조선어학’ 각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아래와 같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을 완성하였다.

이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10.10)은 북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발행한⁷⁾ 것으로 1249쪽의 방대한 분량에 해당하는 북쪽 언어학 연구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색인 사전>은 목록 수의 분량에서 보면, <주체의 조선어연구50년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선 그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 중국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이다. 이미 북쪽에서는 알려져 있는 책으로 북쪽의 학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고영근(1994)에서는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했으나, 아직 그 책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대학 학생들의 언어학 입문서 역할을 했던 교재로 짐작된다. 이상혁(2007)에서 재인용. 번역서이기 때문에 <색인사전>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짐작된다.

7) MS-Word 형태의 파일을 홍윤표(전 연세대) 교수님에게서 받아 오늘 이 발표회장에서 처음 공개한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이 자료에 대한 소개를 들은 바 없다. 홍윤표 교수님에게서 넘겨받은 파일 말미에 편찬자와 발행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으로 발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바는 없다.

차 례

머리말	2
범주별색인	4
0 원전해설자료	4
1 주체의 언어사상리론	33
2 언어정책	63
3 일반언어리론	91
4 언어일반	105
5 말소리구조	126
6 문법구조	196
7 의미론	404
8 어휘론	425
9 어휘정리	477
A 문체론	500
B 글자	581
C 방언	593
D 언어생활	622
E 언어응용	702
화술	702
사전과 론문집	708
언어규범	718
응용언어학	731
F 언어력사	777
저자별색인	825
서지별색인	1193
전문단행본	1193
교재, 참고서	1197
론문집	1199
사전, 편람 및 자료	1200
잡지	1202
학위논문	1204
올림말색인	1219

현재까지 북쪽에서 나온,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 목록 데이터이다. 크게 범주별 색인, 저자별 색인, 서지별 색인, 올림말 색인으로 나누어 분류한 색인 사전이다. 머리말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이 사전의 의의와 목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60돐을 맞으며 내놓게 되는 도서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에서는 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언어학연구의 실태와 새롭게 힘을 넣어야 할 분과와 과목,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연구사업에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방후 6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출판발행된 언어학연구도서들과 논문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그것을 언어학의 개념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⁸⁾.”

위에서 언급한 <주체의 조선어연구50년사>가 연구사 서술 중심으로 북쪽 조선어학사라면, 이 <색인 사전>은 범주별 항목을 기본 올림말로 하고 저자별 색인, 서지별 색인, 올림말 색인이 보충 항목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범주별 항목은 16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언어 응용의 경우 화술, 사전과 논문집, 언어규범, 응용 언어학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물론 16개 범주별 항목 각 각도 하위 분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다.

2.4. 북쪽 언어학 연구 <색인사전>의 특징과 의의

우선 이 색인 사전의 전반적인 특징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전자 사전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한 흔적이다.

“이 색인사전은 일반리용자와 컴퓨터언어자료기지구축 및 정보검색에서 보편적으로 리용할 출발목록으로 작성한것만큼 제목색인부호와 검색어부호를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색인하였다. 따라서 색인사전은 일반리용자들의 경우에는 자료의 안내정보(주제, 제목, 범주)를 직관적으로 찾을수 있고 컴퓨터자료기지 구축과 자동검색체계개발 그리고 검색어사전작성에서는 자료의 수집, 보충, 수정을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부호목록의 기능을 수행한다.”

발표자가 보유한 것은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료 목록이 컴퓨터 상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아직 알 길은 없으나, 북쪽의 언어학 관련 <전자 사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올림말 색인의 다음과 같은 부호들이 그것을 대변한다. 예컨대 <올림말 색인>의 다음 일부를 보도록 하자.

8)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를 반영하였다. 이하 인용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훈민정음 F3	해서 B44
훈민정음문헌자료 F36	해학 A3E
훈민정음창제 F33	행동부사 6377
훈민정음의 변천과정 F35	행서 B44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F31	회상실기체 A152
훈민정음의 창제경위 F33	회화문장 623B
훈민정음의 창제의의 F34	회술 E1
훈민정음의 우수성 F32	회술리론 E11

위의 내용은 <색인사전> 1244쪽의 <올림말색인>의 일부이다. 각각의 올림말에는 고유 번호 및 기호가 부여돼 있다. <올림말색인>은 보충 항목이긴 하나, 이 <올림말색인>을 통해서 예컨대 “훈민정음 F3”을 검색해 그 결과를 보면 <범주별색인>의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F3 훈민정음</p> <p>- 김병제,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제2편 15세기 50년대-19세기 60년대의 조선말과 글자에 대한 연구 제1장 민족글자-훈민정음 제1절 훈민정음의 창제과정과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의의 제2절 훈민정음의 내용과 창제자들의 언어학적견해</p> <p>- 김병제, 조선의 고유문자 훈민정음, 《조선어문》, 1956년 1호 79-83페이지 - 김인호,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로동신문》, 1995년 4월 2일부 - 김인호, 자랑높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 《로동신문》, 1994년 1월 16일부 - 김인호,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 《문학신문》, 1994년 1월 22일부 - 김인호, 우리 글자 훈민정음, 《로동청년》, 1994년 1월 15일부 - 김인호, 우리 글자 훈민정음, 《통일신보》, 1989년 1월 14일부 - 김인호, 우리 나라의 언어유산 《훈민정음》, 《문화어학습》, 1997년 2호 58페이지 - 김인호, 우리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민주조선》, 2004년 1월 15일부 - 김인호, 우리 인민이 창조적으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 《역사과학》, 1983년 - 김인호, 우리 인민의 자랑 훈민정음, 《대학생》, 1990년 1호</p> <p>- 권종성, 《문자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년 제5장 조선인민이 사용한 문자와 조선인민의 고유문자 《훈민정음》 제1절 고대조선인민이 사용한 문자 제2절 리두문자, 구결문자 제3절 조선인민의 고유문자 《훈민정음》 제4절 《훈민정음》 창제이후 그의 변화발전</p>

- 권중성,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평양신문》, 2004년 1월 17일부
 - 량종률, 김영환,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년

1. 훈민정음의 창제와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
1. 새로운 민족글자 창제의 필요성
2. 훈민정음의 창제과정
3.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과 훈민정음보급을 위한 대책
4. 최만리일파의 반대운동
5. 연산군의 언문금란
6. 훈민정음 원본의 발견

2. 《훈민정음 해례》(원문번역)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에 대하여

1. 《훈민정음(례의)》에 대하여
2. 제자해에 대하여
3. 초성해에 대하여
4. 중성해에 대하여
5. 종성해에 대하여
6. 합자해에 대하여
7. 용자례에 대하여

부록 《훈민정음해례》(원문)

- 류 렬, 《훈민정음》이란 어떤 책인가?, 《말과 글》, 1958년 5호 22-26페이지
- 박영도, 훈민정음의 보급과 글씨체, 《문화어학습》, 2003년 3호
- 장근수,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문화어학습》, 2004년 1호
- 정용호, 훈민정음을 반대한 최만리일파, 《말과 글》, 1962년 4호 18-23페이지
- 최정후, 《조선어학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우리 나라에서는 1444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글자의 하나인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세종실록에는 25년 12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하였다. 25년 12월은 음력이다. 이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26년(1444년) 1월인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볼 때 1444년 1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28년 9월에 훈민정음이 성하였다고 쓰여있다. 이 성하였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하면 <27년 3월에 〈치평요람〉이 성하였다.>, <28년 12월에 〈동국정운〉이 성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리조실록에서 <성하였다>는 것은 책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쓰고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하여 1444년 1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으며 1446년 9월에는 훈민정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글자 〈훈민정음〉은 자모글자이며 그 창제의 원리에서 독특한 가장 발전된 글자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발전되고 훌륭한 자모글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글자생활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민족어발전과 인민들의 글자생활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사변으로 되었다.》

《훈민정음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글자이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본래 〈백성을 가르치는 옴은 소리〉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고유한 민족글자의 이름으로 되는 동시에 그 글자에 대하여 해설한 책

의 이름으로도 된다.

훈민정음의 창제일은 1443년 음력 12월, 양력으로 환산하여 1444년 1월로 전해지고있으며 그의 창제자는 세종의 지도밑에 신숙주와 성삼문을 비롯한 8명의 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된것으로 본다. 훈민정음의 문자학적 특성은 소리글자, 자모글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훈민정음’이라는 올림말을 검색해 본 결과 <범주별색인>의 내용이 위와 같이 검색되는데,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행본, 신문, 잡지의 서지 사항, 즉 위에서 표시한 굵은 글씨로 그 결과가 검색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단행본의 경우는 ‘훈민정음’이라는 올림말이 등장하는 목차도 아울러 검색되고, 심지어 “최정후, 《조선어학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과 같은 단행본에서는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 내용의 중요한 일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주별색인>은 그 하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위의 ‘훈민정음’ 올림말 예에 비추어 보면 ‘훈민정음문헌자료 F36, 훈민정음창제 F33, 훈민정음의 변천과정 F35,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F31, 훈민정음의 창제경위 F33, 훈민정음의 창제의의 F34, 훈민정음의 우수성 F32’ 등의 올림말을 가진 하위 분류 항목의 내용도 각각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색인사전>을 통해서 ‘훈민정음’이라는 주제로 어떤 연구자들이 북쪽에서 지난 60년 동안 연구를 해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쪽 ‘조선어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계보 연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검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위에서 열거된 ‘훈민정음’ 연구자 중에서 ‘권종성’이라는 연구자를 <저자별색인>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권종성

- 《고장이름유래집》, 1986년
- 《문자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년
- 《세계 언어와 문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 《조선어정보론》,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어정보처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 《응용언어학 1》, 사회과학출판사, 1993년
- 글자개혁안은 우리 글자를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어학습》, 1978년 4호
- 글자개혁에서 나서는 글자모양문제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980년 1호
- 글자개혁에서 나서는 글자수문제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979년 3호
- 글씨를 쓰는데 있어서도 우리 식으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써야 한다, 《문화어학습》, 1981년 3호

- 기계번역의 력사, 《정보과학과 기술》,
- 단어형태화와 단어화란 무엇인가?, 《문화어학습》, 1975년 2호
- 류개념과 종개념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잘 가려써야 한다, 《문화어학습》, 1974년 2호
-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평양신문》, 2004년 1월 17일부
- 수와 수자, 《문화어학습》, 1984년 1호
- 자연언어처리와 앞으로의 연구동향, 《정보과학과 기술》, 1999년 1호
- 정보산업과 언어정보처리, 《조선어문》, 2001년 4호
- 조선문자입력코드수와 건반배치기술, 《조선컴퓨터센터통보》, 1994년 2호
- 조선어 형태론적자동분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문》, 1992년 4호
- 조선어토의 자동분석에 대한 연구, 《조선어문》, 1993년 3호
- 우리 나라 글자는 우수하고 훌륭한 글자이다, 《문화어학습》, 1978년 2호
- 우리 나라 글자를 왜 고쳐야 하며 고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문화어학습》, 1978년 3호
- 우리 나라 글자의 수, 《문화어학습》, 1986년 3호
- 우리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도 우리 식으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써야 한다, 《문화어학습》, 1982년 3호
- Corea에 대한 언어학적고찰, 《통일신보》,

이 <저자별색인>을 통해서 우리는 북쪽의 ‘조선어학’ 연구자 ‘권종성’의 학문적 경향을 귀납해 볼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검색했을 때, ‘권종성’은 한 편의 단행본과 하나의 신문 잡지 글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닐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 추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별색인>을 통해서 ‘권종성’을 검색해 본 결과, 이 연구자는 주로 ‘문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정보 처리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 학자임을 귀납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서지별색인>을 통해서 ‘전문단행본, 교재, 참고서, 논문집, 사전, 편람 및 자료 잡지, 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북쪽의 언어학 관련 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북쪽의 이 <색인사전>은 북쪽의 언어학 연구 경향을 다양하게 목록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검색 시스템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연구 성과물을 직접 입수하여 그 연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북쪽 언어학 연구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남쪽의 경향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5. 북쪽 언어학 연구 <색인사전>의 데이터 활용 문제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방대한 작업의 결과를 우리 입장에서 가공하여 활용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결 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

우선 남북이 같이 사용하는 언어학 용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규범의 차이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의 <색인사전>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동일 술어(terminology) 목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쪽 초기의 논의이기는 하나, <색인사전>에 일부 수록된 박상준(1948)의⁹⁾ 품사 분류 내용이 흥미를 끈다.

- 박상준, 《조선어문법》, 박문당, 1948년 5페이지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 는 사물의 본체를 드러내는 단어이므로 이를 체언(임자씨)이라 이르고 동사와 형용사는 대개 사물을 설명하는 단어이므로 이를 용언(풀이씨)이라 이르고 관형사와 부사와 접속사는 체언과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이를 수식어라 이르고 감동사는 문장밖에 따로선 단어이므로 이를 독립어라 이르고 조사는 대개 체언의 문법상의 관계를 나타낼뿐이므로 이를 관계사라 이르며 조사이외의 품사는 각기 독립한 관념을 가진 단어이므로 이를 관념사라 이른다.》

단어-품사-관념사-명사/대명사/수사(체언)/동사/형용사(용언)/관형사/부사/접속사(수식어)/감동사(독립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48년 북쪽의 한 연구자가 바라본 품사의 분류는 접속사를 포함한 9품사였다는 사실과 그 품사를 관념사라는 범주로 묶고, 그 관념사에 대응하는 조사를 관계사로 묶어 품사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조사’라는 술어를 쓰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남쪽과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북쪽 규범에서 ‘토’의 범주 하위 범주에 묶일 수 있는 품사 이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북쪽의 ‘토’가 정립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과도기적 논의라는 점이다. 이러한 예가 대표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 논의의 중요한 초기적 연구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이 서로 다른 언어학 전문 용어를 쓴다면, 그에 일치하는 북쪽 술어를 남쪽 술어로 바꿔 가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선어 → 한국어, 조선어학 → 한국어학/국어학, 조선문자 → 한글, 기옥 → 기역 따위가 그것이다. 다만 북쪽의 ‘토’의 경우 남쪽의 ‘조사’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문 내용을 최대한 검토한 후, 토 → 조사 혹은 토 → 어미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감하게 사회주의 언어학, 특히 주체 사상에 입각한 언어관 관련 자료는 따로 정리할 필

9) 박상준(1948), <조선어문법>, 박문당, 5쪽. <색인사전> 322쪽 재인용.

요가 있겠으나, 자료의 선택과 배제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색인사전>의 목록만을 보고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되고, 역시 그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남북 언어 통합 연구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발표의 끝맺음을 다음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1) 초기 남북 언어학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자 별 종합적 검토
- 2) <색인사전> 용어 목록을 통한 남북 비교 및 대조와 그에 따른 술어 정리 및 체계화
- 3) 남북 한국어학 및 조선어학 연구사 관련 문헌 검토와 대조를 통한 비판적 논의
- 4) 알려지지 않은 북쪽 언어 연구 자료의 입수와 내용 분석

우리식 통일이 되면 이러한 언어의 분단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통일 후에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당위성은 나중에 맞닥뜨릴 여러 혼란에 대비하는 언어학자들의 통일 작업이다. 현재적 의미의 남북 언어 통합 논의는 낮은 단계의 동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Korean study의 공통점 취합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Korean 교재 개발¹⁰⁾, <겨레말대사전> 편찬 등은 그런 논의를 더욱 뒷받침하는 실천적 작업이다.

참고문헌

김동석(2006), “해방기 어문 운동이 문학에 미친 영향”, 『어문논집』54, 고려대 민족어문학회, 385~414쪽.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고려대 출판부.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4』, 서울: 녹진.

10) 제9차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국제고려학회,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2009년 8월26일~28일)에서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 문제 -남북 우리말 교육 및 교재 통일 편찬을 제안하며-”라는 주제로 발표자가 발표한 바 있다.

-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서울:태학사.
-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국학자료원.
- 김하수(1997). “남북한 통합 맞춤법에 대한 구상.”, 이현복 외『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태학사, 85~127쪽.
- 김하수(1997). “북한에서 보는 조선어에 대한 일반 언어학적 해석에 관하여.”, 『동방학지』98, 국학연구원, 509~523쪽.
- 김하수(2005), “제국주의와 한국어 문제-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한국 언어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연숙 외 옮김, 서울:돌베개, 479~511쪽.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서울:을유문화사.
- 고영근(1994), 『통일시대 語文問題』, 서울:길벗.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부.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환(1996), 『조선언어학사연구』, 평양: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 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 박재수(1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평양:사회과학원.
- 북한언어연구회 편(1989), 『북한의 어학혁명』, 서울:백의.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6),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 1~1250쪽.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I, II 조선어학사』, 서울대 출판부.
- 이상혁(2005), “흥기문과 원본『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2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35~253쪽.
- 이상혁(2006), “남측의 언어정책”, <겨레말소식> 창간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34~36쪽.
-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6, 고려대 민족어문학회, 5~32쪽.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의 언어비교』, 서울:녹진.
- 전수태(2006), “북측의 언어정책”, <겨레말소식> 창간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37~39쪽.
-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서울:역락.

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2009년 11월 27일 / 에이더블유 컨벤션센터

남북통일 시대의 국어 교육의 방향

-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

전 수 태

고려대

1. 서론

이 글은 분단국이었던 통일된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이들이 통일 공간에서 겪었던 언어 통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우리가 국토의 통합이나 언어의 통합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독일과 베트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함으로써 통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언어의 통합도 우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에서처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언어 통합을 논할 수는 없고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어 통합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분단의 냉전시대에도 서로 왕래가 가능하였고 언론이 자유자재로 동서독을 넘나들었으며 그들 스스로의 정신이 철의 장막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일어는 언제나 하나였으며 따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는 비교적 쉽게 언어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문 규범도 하나였다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은 1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분단이 된 관계로 자국어인 언어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국토가 분단되어 통일된 언어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

언어의 통합은 남북한이 같이 쓸 수 있는 국어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완성된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올림말의 선정일 것이다. 남과 북의 어문 규정이 다른 것이 첫 번째 난관이 될 터인데

어문 규정을 어렵사리 통합한다고 해도 품사 표기를 위해 규범 문법도 통일해야 하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말 다듬기의 결과로 야기된 어휘의 차이도 극복하여야 한다. 전문 용어 가운데에서 적어도 교과서에 실릴 만큼의 전문 용어는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초중등학교의 양측 교과서의 전문 용어가 심하게 이질화되어 있다. 그리고 교과서, 특히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개인 이상화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통일 이후의 교과서, 특히 국어 교과서에 쓰이는 어문 규정과 문법은 합리적이고도 간명하여 언어생활에 편리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독일과 베트남의 언어 문제

2.1 독일의 언어 통일

동서 독일이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룩함으로써(1990. 10. 3.)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언어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여건은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분단 40년 동안에도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이 서로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언어 이질화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교류가 전무에 가까운 상태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독일어의 동서 통일은 권위 있는 사전 출판회사 두덴이 동서독 출신이 다같이 쓸 수 있는 통합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이루어졌다.¹⁾ 독일은 문법 체계나 철자법이 동서 공통이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이 한 도시의 중심 도로를 ‘마가슈트랄레’(Magistrale)라고 하는 데 대해 서독인들은 ‘하우프트페어케르슈트라세’(Hauptverkehrsstrasse)라고 하는 등의 어휘 분야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분야의 이질성은 곧 극복되었다. 통일 독일어 사전의 편집자인 두덴출판사의 베르너 솔체 슈투베레히트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두덴 사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동서독이 두덴 사전을 공유함으로써 독일어는 통일된 것이다.

두덴출판사는 2차대전 이전 동부 도시인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 이후

1) 독일 언어 통일에 대한 언급은 조선일보 1991년 9월 28일자 내용 참조가 된다.

독일이 분단되자 서독 지역의 만하임에 새로운 두덴출판사가 설립되었다. 동서독에 각각 존재하던 두덴출판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수개월 후인 1991년 1월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11만 5천 단어를 수록하는 독일어 사전 편찬에 들어갔다. 이 사전의 특색은 기술, 환경, 스포츠, 경제 분야의 새 단어가 약 6,000개 정도 실려 있다는 것이지만 독일인들에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두 개의 독일어의 통일’을 위해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수록, 설명한 점이였다. 특히, 이 사전에는 동독 지역의 공산당 통치 기간 중 생겨난 말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 단어들도 실려 있다²⁾.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에스트라데(Estrade) ·동독: 가벼운 오락 프로가 있는 음악 축제. 서독: 연단
- 나흐부흐스카더(Nachwuchskader) ·동독: 다음 세대의 간부(당 간부의 2세 등). 서독: 해당 단어 없음
- 벤데할스(Wendehals) ·동독: 원뜻은 ‘긴 목을 180도 회전할 수 있는 개미잡이 새’, 동독 민주 혁명 이후 재빨리 민주주의자로 변신한 과거의 강경 공산주의자들. 새 두덴사전: 변절자
- 마우어슈페흐트(Mauerspecht) ·원뜻: 벽 딱따구리. 새 두덴사전: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위해 벽 조각을 뜯어내던 사람들
- 공산주의(Kommunismus) ·동독: 인류 사회의 가장 탁월한 형태. 새 두덴사전: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중앙 계획 경제와 사회 질서를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

독일은 어문 규정이나 문법이 하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나 새로운 뜻, 또는 동독인이 모르는 서독의 단어나 의미를 첨가한 사전을 편찬하는 것으로 언어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³⁾ 독일에서는 통일 독일어 사전 이후에 오랜만에 정서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1901년 이후 처음인 것이다. 그들의 인내가 놀라울 뿐이다.⁴⁾

- 2) 서독에서 사용하던 어휘의 수용을 동독의 입장에서 언급한 논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는 3,4년 동안 2,000~3,000 개의 단어를 받아들인 것으로 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영길 등(1997) 참조.
- 3) 베를린대학의 Birgit Granzow 교수에 의하면 정치적 통일이 바로 언어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독 출신들은 대화 중에 ‘나’(Ich)보다는 ‘사람’(man)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독 출신들은 ‘사람’(man)보다는 ‘나’(Ich)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동독 출신 여성들은 직업 표기에서 거의 대부분 스스로를 ‘상인’(Kaufmann), ‘사진사’(Kameramann), ‘교사’(Erzieher), ‘학생’(Student) 등으로 남성 명사로 표기한다. 그런데 서독 출신들은 여성 명사를 사용하여 ‘여상인’(Kauffrau), ‘여사진사’(Kamerafrau), ‘여교사’(Erzieherin), ‘여학생’(Studentin)으로 표기한다. 동서독은 통일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의 언어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는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비어겟 그란쯔의 ‘동독과 서독 사이의 언어 비교’(1999) 참조.
- 4)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1994년에 독일어의 정서법 통일을 위한 제3차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안은 1996년에 공식 확정 공포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유만근(2003) 참조.

2.2. 베트남의 언어 문제⁵⁾

2.2.1. 통일 당시의 현황

통일된 베트남은 서로 다른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다. 베트남어는 고립어적·단음절어적 경향이 현저하고 6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 인구는 약 3,900만이다. 어휘 가운데 60% 정도가 한자어이며 대략 10세기경에 독특한 한자음 체계가 형성되었다. 베트남어의 로마자 표기는 17세기 초 유럽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그 뒤 ‘알렉산드르 드 로드’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특수한 부호를 지닌 로마 문자의 체계는 쾨구(國語)라고 하는데 쾨구는 프랑스 지배하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급속히 보급되어 현재는 그것이 베트남어를 표기하는 단 하나의 문자가 되었다.

1945년 8월 혁명 이전의 프랑스 식민지 아래에서는 베트남어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 뒤에는 프랑스어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베트남어는 하나의 외국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어 연구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자 베트남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는데 대체로 한자어와 베트남어가 혼합된 혼합형의 문장에는 반대하면서도 베트남어 문법에 외국어 문법을 원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작가들은 피동 문형, 접속 문형, 술어 중첩 문형, 독립 문형, 술어 주어 도치 문형 등에서 베트남어의 고정된 어순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 유연성과 더불어 혼란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혼란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분단 20년을 거치는 동안 방언이 여전히 존재하고 음운, 어휘, 문법에서 상이한 점이 있었지만 하노이 중심의 북부 베트남어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용어에서 의사소통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에서 북쪽인 하노이가 중심이 되었던 시기는 약 1,000년이고, 남쪽인 사이공이 중심이었던 시기가 약 300년이기 때문에 문학 언어의 형성은 자연히 하노이 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분단 20년이 여기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 체결로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북위 17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분단되자 북부 공산 정권을 피하기 위해 가톨릭교도와 지식인 약 200만 명이 남부 베트남으로 이주한 것도 북부 방언을 전파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5) 이하의 베트남의 언어 문제에 관한 언급은 호치민 대학의 당옥레 교수(1999)에 기댄 바 크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베트남어의 통일과 발전’(1999) 참조.

철자에서 통일 이전의 남부 베트남은 대체로 북부 방언의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어에서 얼마간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지역 모두 군사 관련 신생어가 많이 생겨났으며 일상어에 있어서도 단체, 마을, 사회관계 어휘가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체제의 차이와 체제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새로운 말투와 관용어 역시 많이 생겨났으며 새로운 단어의 출현 과정에서 기존의 단어가 의미가 변하거나 새로운 단어에 의해서 대체되기도 하고 몇몇 어휘는 사라져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에 대한 어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른 변천이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한 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 국가로, 또 분단된 두 독립 국가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친 전쟁과 이로 말미암은 급속한 정치적 변환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래서 정치 분야의 어휘는 베트남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어휘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전문 용어 분야에서는 남북 베트남이 다같이 1945년에서 1960년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몇몇 학문 분야에서는 프랑스어 사용이 불가피하였고 이를 베트남어로 바꾸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했다.

1960년에서 1975년까지는 남북 베트남 양측에서 모두 과학 기술 전문 용어 구축과 확립에 매진한 시기이다. 우선 북쪽의 사정을 말하면 1960년대까지 전문 용어 구축에 필요한 지침이 없어 체계가 잡히지 않아 몹시 혼란스러웠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어 구축과 2개 국어 전문 용어 비교 사전 편찬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과학 사전 및 전문 용어 심의 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1960년대 전반기에 몇 가지의 전문 용어 사전이 편찬되었는데 이는 전문 용어의 통일과 표준화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1975년에 이르러 전문 분야 전체에 걸쳐서 전문 용어 비교 사전 형태로 전문 용어 체계가 완성되었는데 그 결과가 노-월 사전, 영-월 사전, 중-월 사전, 불-월 사전 등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남부 베트남에서도 1960년 이후에야 전문 용어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베트남어를 각급 교육 기관에서 정식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1967년 명사 전문 사전 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전문 용어 표준화 작업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고 담당 기관도 조직되었다. 1975년 통일 이전까지 50여 권 이상의 전문 용어 사전이 편찬되었는데 주로 불-월 2개 국어 전문 용어 비교 사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남북 베트남은 서로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 시기에 전문 용어 사전을 발간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2.2.2. 언어 통일 노력

1975년 통일 이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은 베트남 정부의 큰 과제였다. 그리하여 1979년 10

월 베트남 사회과학위원회에서는 일상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베트남어 어휘의 순수성 보존’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바로 이 회의에서 20년간의 분단과 전쟁 후 지역적인 범위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베트남어 문제의 발굴과 해결 방법 모색 그리고 조사와 평가가 실시되었다. ‘베트남어 어휘의 순수성 보존’이란 회의에서는 철자법 표기 통일, 고유 명사 표기 통일,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제정이라는 언어 통일 문제와 소수 민족이 로마자로 된 베트남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보존’이고 무엇이 ‘순수성’이며 ‘표준화’인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계속되었다. 팜반동 수상은 이론과 실제 두 측면에서 베트남어의 순수성 보존에 대하여 중요한 발표하였지만 용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1975년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베트남어는 남북의 방언 차이가 있고 순수성 보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통일된 언어이어서 20년 간의 분단으로 일상 언어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학 기술 전문 용어에서는 남북 베트남에서 각기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전문 용어는 그 체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양 지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북부 베트남에서는 전문 용어 사용에서 측량과 철도 부문을 제외하고는 순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남부 베트남에서는 교육과 환경, 과학 영역에서는 한자어 전문 용어를, 생산 부문에서는 노동자 계층이 사용하는 순수 베트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각급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어서 1982년 12월에는 일반 교과서에 적용할 전문 용어 발음 표기법 통일 원칙 제정 심사 위원회에서 베트남어 전문 용어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들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단지 전문 용어 발음 표기법 문제만을 다루었을 뿐이고 또 이것이 교육 부문에서만 수용되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 지상에서 수 없이 논의된 바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백과사전 편찬 센터에서도 몇몇 원칙을 내놓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 폭 넓게 통용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언어 연구소의 숙원 사업인 전문 용어 표준화 문제는 아직도 계속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⁶⁾

6) 중국에서도 1996년부터 兩岸現代漢語常用語詞典의 편찬에 들어 갔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 사업은 북경어 언문화대학과 대북어언학원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북경과 대북에서 동시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愛人’은 북경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를 가리키고 대북에서는 연인을 가리키며, ‘公車’는 북경에서는 버스를 지칭하고 대북에서는 공용 차량을 지칭하는 등 차이가 있다.

3. 남북한 교육 용어의 차이 (문법, 국사, 세계사, 수학)

필자는 서론에서 거래말 사전의 올림말을 정하는 것에서 전문 용어의 선택이 남북 학자들 사이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떠오를 것임을 언급하였다. 어문 규범도 체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통합이 쉽게 않을 것이지만 『거래말큰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로서의 교과서 용어는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아래의 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위의 베트남의 예에서 통일 이후 7년째에야 교과서 용어가 통일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법, 국사, 세계사, 수학의 경우만에 한하기로 한다.

남북한 문법 교과서에서 대응쌍을 이루는 것은 105어인데 용어가 같은 것은 37어으로써 35.2%, 다른 것은 68어으로써 64.8%이다. 남북한 국사 교과서에서 전문 용어가 대응쌍을 형성하는 것은 총 277단어인데 용어가 동일한 것은 168단어로서 60.6%를 차지하고 있고 용어가 다른 것은 109단어로서 39.4%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에서 용어가 다른 109단어에서 규범 차이와 쉬운말화로 말미암은 차이,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합하여 53단어로 48.6%, 규범 차이나 쉬운말화로 말미암은 차이가 아닌 것, 말하자면 고유어끼리(고인돌(남) ↔ 고인돌무덤(북)), 한자어끼리(고려청자 ↔ 고려비색자기) 우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56단어로 51.4%이다⁷⁾. 의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53단어인데 규범 차이에 따른 것은 23단어로 43.4%, 쉬운말화에 따른 것은 30단어로 56.6%이다. 규범 차이에 따른 23단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것이 11단어로 47.8%이고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 12단어로 52.2%이다.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 30단어 가운데에서는 남한의 경우 5단어로 16.7%, 북한의 경우 25단어로 83.3%를 차지한다.

남북한 세계사 교과서에서 전문 용어가 대응쌍을 이루는 것은 369단어인데 여기에서 용어가 같은 것은 116단어로 31.4%이고, 다른 것은 253단어로 68.6%를 차지한다. 253단어 가운데에서 의도적인 차이는 243단어로 96.1%, 우연적인 차이는 10단어로 3.9%이다. 의도적 차이 243단어에서 규범에 따른 차이는 215단어로 85.0%,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는 28단어로 15.0%이다. 규범 차이 215단어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는 1단어로 0.5%, 외래어 표기 차이에 따른 것은 214단어로 99.5%이다.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 28단어에서 남한의 경우 10단어로 35.7%, 북한의 18단어로 64.3%이다.

수학 교과서에서 대응쌍을 이루는 439단어에서 남북한 용어가 같은 것은 147단어로서 33.5%, 다른 것은 292단어로서 66.5%이다. 다른 것 292단어에서 의도적인 차이가 251단어로 98.6%이

7) 규범에 따른 차이와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를 합하여 ‘의도적 차이’, 그 이외의 차이를 ‘우연적 차이’로 부르기로 한다. 교과서의 전문 용어 통합 작업을 할 경우에 규범 차이에 따른 것도 아니고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도 아닌 순전히 우연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외래어는 결국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귀결되기 때문에 외래어끼리 대응되어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듯하다.

고, 우연적인 차이가 41단어로 1.4%이다. 의도적 차이 251단어에서 규범에 따른 차이가 25 단어로 10.0%,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가 226단어로 90.0%이다. 규범 차이에 따른 25단어에서 두음 법칙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5단어로 20%, 외래어 표기 차이에 따른 차이는 20단어로서 80%이다. 쉬운말화에 따른 차이 226단어에서 남한의 경우는 9단어로 4.0%, 북한의 경우는 217단어로 96.0%이다.

문법은 65%, 국사는 39%, 세계사는 69%, 수학은 67% 정도가 용어 면에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용어에 관한 한 남북의 언어 차이는 그야말로 방언 차이 그 이상임이 분명하다. 국사의 39% 차이 가운데에는 말 다듬기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고, 세계사의 69% 중에서는 규범 차이(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 크며 수학은 거의 말 다듬기에 의한 차이로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국사의 경우는 규범이나 말 다듬기를 제외한 우연한 차이가 51%이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은 한자를 너무 모른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한자를 대하는 실정이니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교과서 용어도 좀 어렵겠지만 쉬운 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국어 교과서의 문제

4.1. 어문 규범과 문법의 간명화

4.1.1. 어문 규범

여기에서는 사이시옷과 사이히읃의 문제로 좁혀서 논의하기로 한다. 북한의 어문 규정에서는 사이시옷의 표기를 『조선어철자법』(1954)에서 시옷이 덧나는 것과 니읃이 덧나는 곳에 다같이 그믐'달, 기'밭, 코'날(스'덧날), 날'일, 들'일, 부엌'일(니'덧날)으로 처리하였고,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도 조선말맞춤법 제18항에서 군'적(郡的), 도'적(道的), 대'가(代價), 리'과(理科), 수'자(數字), 호'수(號數)처럼 사이표(')를 써 왔다. 그런데 현행 조선말맞춤법(1988)에서는 이를 발음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어문 규정에서 현재는 사이시옷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를 1988년 현행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이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어근을 훼손하는 이 규정에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고유어에서는 물론이고 '등꽃길', '하꽃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어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또 경음과 격음이 뒤에 올 때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편한 규정이다. 시내의 변두리를 의미하는 말을 ‘내가’로 써 놓으면 될 것을 ‘넷가’로 써 놓으면 이 사이시옷 때문에 다른 단어인가 하여 외국인은 다시 국어사전을 들추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문제가 사이히읃이다. 우리는 암수를 구분하는 데에서 지금도 사이히읃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는『조선말 띄어쓰기규범(2000)』의 부록에서 ‘표기를 바로잡은 단어’라 하여 다음의 20개 단어를 열거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수암강냉이 → 수암강냉이	수암강아지 → 수암강아지	수암커미 → 수암거미
수암코양이 → 수암고양이	수암곶 → 수암곶	수암키와 → 수암기와
수암개 → 수암개	수암개미 → 수암개미	수암게 → 수암게
수암꿩 → 수암꿩	수암괘이 → 수암괘이	수암닭 → 수암닭
수암톨쩌귀 → 수암돌쩌귀	수암툰지 → 수암툰지	수암팜나무 → 수암밤나무
수암팜송이 → 수암밤송이	수암펄 → 수암벌	수암핍 → 수암벌
수암평아리 → 수암병아리	수암피돌기 → 수암비돌기	

그런데 우리는 한글 맞춤법 제 31항과 표준어 규정 제7항에서 9가지의 암수 표기에 사이히읃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다른 동식물의 성에서는 는 사이히읃을 써서는 안 되며 ‘숫양’, ‘숫염소’, ‘숫쥐’ 등은 또 사이히읃을 붙여야 한다. 말하자면 암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어 이를 모두 암기해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20가지만 들어 놓았으니 20가지에는 사이히읃을 붙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암수 표기에는 사이 히읃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한 표기는 통일 이후에는 없었으면 한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개’가 여성일 경우에 왜 ‘암개’가 아니고 ‘암개’가 되느냐고 물으면 히읃중성체언이라서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애써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히읃중성체언까지를 공부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4.1.2. 문법(경어법)

우리 문법 교과서의 경어법은 아래 표와 같이 나와 있는데 하오체와 하계체는 잘 쓰지 않는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경어법은 품위 있고 정중한 표현을 위하여 하십시오체를 쓰고 다정다감하고 간절한 표현을 위하여 해요체를 쓰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자라나는 세대와 외국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만을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계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가)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생각 같아서는 불필요한 이형태인 ‘세 개’, ‘석 섬’, ‘서 말’ 같은 셋을 나타내는 말도 ‘셋’은 되지 않더라도 ‘세’ 정도라라도 단일화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종이 ‘석 장’이 아니고 ‘세 장’, 연필 ‘석 자루’가 아니고 ‘세 자루’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시계 보는 법도 ‘한 시 삼십 분’보다는 ‘한 시 서른 분’이라거나 ‘일 시 삼십분’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외국어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새 교과서에는 핵가족시대의 세태를 따라 친족 관계 용어도 가짓수를 많이 줄였으면 한다.

4.2. 국어 교육 용어 순화

학교에서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기에 가장 적절한 과목은 국어 과목이다. 한국어를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며 고등 한국어를 구사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교과서에서 욕설에 가까운, 아니 아주 욕설인 한국어가 이제 갓 학교에 들어간 1,2학년 아동들에게 침투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이다. 그들의 초등학교 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품위 없는 표현은 통일 국어 교과서에서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도 품위 있는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소곤소곤 말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속삭이다>라는 말을 쓰고 원수놈들이 말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지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민학교 2학년 112쪽)
- 물론 원수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지주놈의 쌍통>, <미제놈이 뒤했다>는 식으로 말해야합니다. (인민학교 3학년 58쪽)
- 기타: 미제놈, 미제승냥이놈, 일제놈, 괴뢰놈 지주아들놈, 지주녀편네, 꼭두각시, 허수아비, 대가리, 쌍판대기, 낫짝, 뒤통수, 눈깔

4.3. 국어 교과서 내용

민족은 언어를 그 단위로 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같으면 민족이 같고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교육은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이데올로기가 달라 국어 교육의 목표가 다르다. 국어 교육 목표의 목표는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남한(제7차 교육 과정):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북한: “인민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은 국어 교재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인 우리말과 글의 지식 기능을 확고히 다져줌으로써 우리의 후대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조선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

남북 통합 국어 교과서에는 내적으로는 당연히 개인숭배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어느 한 방향에만 통하는 이념을 지양하여야 한다. 또 민족 정서, 역사 의식, 문화 유산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격조 높은 글들로 국어사용 능력 배양하면서 고매한 인격의 형성과 함께 문화 민족의 자긍심 발양할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여 인종과 언어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통하는 평화와 박애의 정신을 가진 신 인간형으로 길러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필자는 국어학자로서 또 국어 교육과 해외 한국어 보급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토통일이전이든, 국토통일 이후이든 언젠가는 통합될 한국어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통일공간에 있을 수 있는 언어 관계 문제들을 짚어 보고 학자로서의 희망 사항을 피력하였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에서처럼 일방적인 통합을 전제하고 남북 언어 통합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베트남이 그들의 통일 공간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언어 통합 문제를 멀리 미루어 놓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올림말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어문 규범을 통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남한의 한자어와 북한의 말 다듬기로 달라진 말을 통합하여야 하고 교과서 전문 용어도 통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체제의 차이와 함께 학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어 교과서로 시야를 좁혀본다면 남북의 어문 규범 차이에 따라 교과서의 표기가 달리 되어 있는데 이는 겨레말 사전을 준비하면서 규범을 통합할 때에 간명하고 합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교과서의 규정도 명료하고 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 사이시옷이나 사이히읃을 사용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어의 경어법도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이것도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만으로 둘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남북통일 이후의 새 교과서의 내용에는 개인숭배의 이데올로기나 품위 없는 속어나 비어를 교과서에 실어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교과서에는 내적으로는 고품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외적으로는 언어와 민족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신 인간형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을 많이 실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김영길 등(1997),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 통합 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제15집.
당옥례(1999), ‘베트남 어의 통일과 발전’, 강남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비르깃 그란초(1999), ‘동독과 서독 사이의 언어 비교’. 강남대학교 국제학술회의.
유만근(2003), ‘독일 분단·통일과 독어 사전 이질화·동질화 과정’, 통일 언어교육 토론회(국회).
전수태(1995), ‘남북한 언어 연구의 최근 동향’, 『통일 대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수태(2003),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극복 방안’, 통일 언어교육 토론회(국회).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전수태(2007), 『세계화 시대의 남북 언어』,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이 희 속

국민화합연구소, 전 북한 사범대 교원

김일성은 언어의 본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 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모든 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더욱 개선 강화하며 모든 기관들에서도 국어 학습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 18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인민학교 1학년 때부터 새로 다듬은 우리말을 배우게 해야 한다. 고유한 우리말을 다 살려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이 어른들의 틀린 말을 고쳐주며 새 세대들의 새로운 언어 의식에서 영향을 받아 늙은 세대들이 낡은 언어 의식과 언어 잔재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의식과 언어 기풍을 점차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어교육이 후대들의 문화예술소양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그의 힘 있는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1. 북한의 학교 제도 개관

북한은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유치원의 높은 반 1년,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 4년, 고등중학교(한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6년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2002년부터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바꾸었다.

2. 북한의 국어 교육과정

북한의 국어과에서 유치원 높은 반에서는 <우리말>이라는 과목으로 우리말의 자모로부터 수자에 이르는 기초적인 것을 학교와 같이 시간표에 의하여 30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낮은 반은 집에서 부모들이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높은 반은 의무교육이므로 무조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북한의 국어과는 도구교과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어과의 성격이 도구교과서라 하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교과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 국어교육과정 - “국어교수법(1973)”을 보면 인민학교 즉 소학교에서 다룰 내용과 범위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 ㄱ) 김일성의 교시 사항
- ㄴ) 언어 생활 지식: 6000개의 어휘 생활어로 고착,
- ㄷ) 읽기 능력: 새겨 읽기, 살려 읽기의 개념, 글토막 개념 이해하기
- ㄹ) 쓰기 능력
- ㅁ) 말하기 능력

북한에서는 혁명적인 책, 글짓기를 균중적으로 벌리도록 하고 있다.

2) 국어교육과정 - 방향을 보면 1966년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본문의 제목위에 ‘말하기교

재' '읽기교재', '쓰기교재'등의 학습영역이 명시되어 나타나고 있었지만 '연습'이나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읽기, 쓰기, 말하기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과서가 읽기 중심에서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 교과서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수렴우상화를 부각시키면서 읽기를 통하여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말하기를 더욱 숙련시키기 위해서이다.

- 3) 국어교육과정 - 남한보다 전체적으로 국어교과 시간수가 많지만 교과서 전체 쪽수는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된다. 즉 전체적으로 학습 활동량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제목을 여러 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배워주고 시는 무조건 외우게 하고 그 과에 대한 질의문답과 필답의 시험을 쳐서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다 알고 넘어 가게 하는 것이다.

1996년을 계기로 국어 교과서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바 1996년 이전에는 소학교 1학년 교과서가 1,2 학기용으로 분책되어 있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1학년 교과서를 합본으로 만든 것이다.

형식은 1996년 이전에는 겉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연습으로 되어 있으나 1996년 이후에는 겉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다.

과구성 형식은 1996년 이전에는 연계형, 완결형이었지만 1996년 이후에는 완결형으로 되고 있다. 교과과정 중심들을 보면 읽기중심, 내용(사상)중심의 교과서로 되고 있었지만 1996년 이후에는 국어기능신장, 언어 활동중심의 교과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중심내용에서도 1996년 이전에는 김일성체제로서 김일성원수님과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을 우상화하는 내용이었다면 1966년 이후에는 김정일 체제로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원수님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1-2를 보면 설명문이 31편 가운데 11편이나 차지하고 학습내용도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국어지식
 - 글자 : 우리글자 차례 이름 필순 익히기
 - 단어: 단어의 뜻
 - 문장: 문장의 이해
 - 토: 토의 이해
- 국어 사용기능

말하기: 묻는 말에 대답하기, 인사말하기, 인사의 태도
글쓰기: 짧은 글짓기, 글씨쓰기, 띄어쓰기

4) 국어교육과정-교과서 구성을 보면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보면 말하기보다 읽기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연습에서는 문화어 사용능력을 기르는 데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북한의 국어(조선어) 교과서 세부 과목 종류

북한의 소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글쓰기>, <글짓기> 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고등중학교 1, 2, 3학년 과목에서는 <국어문학>, <국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중학교 4, 5, 6학년에서는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의 신문<새날>, 잡지 <우리동무>가 있으며 고등중학교에서는 잡지< 아동문학 >이 있어 이 신문이나 잡지에 학생들의 글을 올리도록 되고 있으며 언어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서는 과외로 <국어 소조>, <문학소조>를 운영하면서 웅변대회도 조직하고 글짓기 모임, 화술경연대회, 글쓰기경연 붓글씨쓰기, 한자쓰기 등을 이 소조에서 지도함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그 부문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가하게하고 있다.

4. 북한의 국어(조선어) 교육의 목표

북한에서 국어교육의 목표 즉 국어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김일성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 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공산주의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5페이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는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단행본502페이지)

즉 북한국어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로 수령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의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데 있는 것이다.

- 국어 교육의 목적은 국어 교재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인 우리말과 글의 지식기능을 확고히 다져줌으로써 후대들을 수령의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있다.
- 국어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말의 읽기, 쓰기, 말하기, 국어문법을 비롯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창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정책이 공산주의 강령과 최고 지도자의 서한 등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의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교육이념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육은 철저히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것이며 김부자의 사상과 방침에 근거하여 모든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5. 북한에서의 국어교육방법

5.1 김일성의 교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만 시켜서는 안됩니다.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을 위한 학습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이나 줄줄 외우게 하여서는 그들을 <글뒤주>로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어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 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 단행본, 30페이지)

- 북한에서는 국어교육이 혁명적인 인재양성의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밤낮 책만 붙들고 앉아 있게 하는 낡은 교육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국어교육을 그들의 혁명적 실천과 밀

접히 결합시키며 우리의 말과 글, 문학예술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는 혁명적 활동의 산 현실 속에서 국어의 지식 기능을 실천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 북한에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글을 가르치는 것은 국어교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국어 교수를 구수하게, 흥미 있게 하는 것은 깨우쳐주는 국어 교수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 학습목적에 깨우쳐 주는 방법으로 국어교수를 진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국어 교수의 본질을 똑바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김일성은 우리글을 알기 쉽게 쉬운 말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신이 풍부한 지식과 우리말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6. 국어교육에서 주어야 할 정서교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북한의 국어 교육은 전 과정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김부자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집단과 조직, 동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끝없이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고상한 정치도덕적 감정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 혁명적 낙관주의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아름다움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세워주며 아름다운 것을 옳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감정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혁명적 문학작품을 즐겨 읽으며 혁명적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기의 정신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기의 정서 생활을 건전하게 꾸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7. 북한에서 주고 있는 국어 교육 지식의 내용

-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식을 체득시키는 것이다.

국어교재들을 통하여 낡은 것은 멸망하고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적인 것, 사회주의적인 것, 공산주의적인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동적인 것, 제국주의적인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학생들에게 파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생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은 노동 계급을 위하여,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혁명적 생활이라는 진리를 파악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어문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 것이다.

“소년단원들은 우리말과 우리나라의 혁명역사, 우리나라의 지리를 잘 알며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예술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단행본, 김일성)

우리말을 잘 알며 문화예술지식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 청소년 학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일 반지식의 구성부분이라고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8. 국어교육에서 키워야 할 기능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 글자를 바로 읽고 쓰는 기능을 키우는 것이다.
- 여러 가지 글과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며 감상할 줄 알고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할 줄 알며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될 수 있는 글을 지을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말로 발표할 줄 알며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선전선동의 기초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그러면

9. 일반교육에서 국어과목이 맡고 있는 지식의 체계와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말과 글의 일반지식과 기능을 형성시킴으로서 당의 의도와 정책을 옳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며 과학과 기술,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을 담아 주는 것이다.

-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 지식과 기초기능을 형성시킴으로서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구의 하나인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전문적인 문화예술작품 창작의 토대를 닦아 주는 데 있다.
- 학생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히 하고 생활지식을 넓히며 현실분석의 기초능력을 형성시킴으로서 당의 의도에 확고히 의거하여 생활과 투쟁을 자각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주는 데 있다.

초등국어교육에서는 우리말과 글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형성시키며 생활지식과 현실분석의 가장 일반적인 기초를 줌으로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글자를 배우주고 읽기 쓰기, 말하기의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기능을 형성시킴으로서 중등교육수준의 정치사상과목과 일반교육과목 예능과목을 할 수 있는 언어적 기초를 닦아 주며 점차 우리의 문화어와 문학예술의 기초지식을 넓혀 나가는 데 필요한, 그리고 자립적인 독서 생활에 들어 설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등국어교육은 초등국어교육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당정책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과학지식과 시초기술을 배우며 전문적인 문화어 지식과 문학 예술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문학 지식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10. 소학교 국어교육의 일반기초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1 어문학 분야에서의 일반지식의 내용

-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과 풍부성,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 고유어를 살려 쓰며 말과 글을 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 문학작품이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서 노는 역할에 대하여 알게 한다.
- 책보기를 좋아하고 책을 즐겨 읽는 버릇을 붙이며 혁명적인 좋은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한다.
- 누구나 다 글을 쓰며 글짓기를 균중적으로 벌릴 데 대한 교시 사상을 체득시킨다.
- 웅변대회, 글짓기, 소설감상회, 시랑송모임, 동화발표회 등 국어과외 활동과 당정책선전대, 예술

선전대, 활동을 적극 벌려 열렬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

10.2 북한의 말과 글 언어 생활 지식

- 6000개 내외의 어휘를 생활어로 고착시킨다.
- 생활에 필요한 초보적 생활규범을 인식시킨다.
- 단어와 토를 가려서 바로 쓰는데 필요한 초보적 지식을 주며 보통말과 높이는 말, 존경하는 말을 바로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준다.
- 문장을 바로 만드는 데 필요한 초보적인 규범을 인식시킨다.
- 새겨 읽기, 살려 읽기의 개념을 인식시킨다.
- 글뜻과 요지의 뜻을 인식시키며 주제와 사상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준다
- 글토막에 대한 초보적 개념을 준다.
- 일기, 편지, 회상실기, 견학기, 동요, 동시, 아동소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준다.

10.3 읽기능력

- 글자를 바로 알고 바로 읽을 수 있게 숙련시킨다.
- 단어와 어구의 뜻을 글줄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문장의 뜻을 이해하며 표현들을 깊이 새겨서 느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의 글뜻,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의 주제와 사상을 분석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의 사상정서와 정경이나 인간의 심리가 그려져 있는 개소를 깊이 감상 유미하면서 사고와 정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뜻을 깊이 새기며 사상정서를 깊이 음미하면서 읽을 줄 알게 숙련시킨다.
- 더듬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읽으며 뜻을 이해하면서 빨리 읽게 숙련시킨다.
- 단어, 어구,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숙련을 준다.
- 내용에 맞게 억양, 어조, 속도, 쉬임을 지키며 살려 읽는 숙련을 준다.
- 글의 종류적, 문체적 특성에 적응하게 살려 읽을 줄 아는 숙련을 준다
 - 자립적으로 책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가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10.4 쓰기능력

- 글자를 알고 바로 쓸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바른 자세로 글을 쓸 줄 알도록 숙련시킨다.
- 고운 글씨로 깨끗하게 정확한 맞춤형으로 구두법을 지켜 쓰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정확하게 쓰면서도 일정한 속도를 보장하며 글줄, 간살 등을 바로 잡으면서 받아 쓸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남의 말을 글줄을 잡아가며 적어 나갈 줄 아는 능력을 키운다.
- 목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취하거나 옮겨 적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단어와 토 등을 바로 쓰면서 문장을 지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문법적 요구에 맞게 단어들을 연결시키면서 문장을 지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하고 저 하는 이야기에 매개 문장들을 집중하면서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문장으로 자연정정, 인물을 그려 낼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이야기글, 대화글을 지을 줄 아는 초보적인 기능을 준다.
- 서술과 묘사 대화와 서정을 배합하면서 글을 지을 줄 아는 초보적 능력을 숙련시킨다.
- 책을 읽고 느낌을 쓸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줄여서 형태를 바꾸어 상세히 서술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일기, 편지, 선동글, 기행글을 지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10.5 말하기 능력

- 바른 자세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문화어 발음으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내용에 맞는 억양, 어조, 쉬임, 속도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입말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논리를 세워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물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답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말을 여러 형태의 입말로 고쳐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간단한 해설, 선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자기의 조직생활을 가지고 토론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11.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육의 분과목 특성

글자교수는 1학년 상반기에 끝나고 글씨교수는 1학년 하반기, 글짓기 교수는 2학년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학교 전 학년에 걸쳐 계속되는 것은 읽기 수업이다. 읽기교수는 국어의 지식기능을 종합적으로 형성시키는 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과목이다. 읽기교수는 언어지식과 읽기영역의 기능을 형성시키면서 글짓기의 원리를 가르치며 글씨의 본보기를 배워준다.

글자교수는 읽기교수, 글짓기교수, 글씨교수의 기초로 되며 글짓기 글씨교수는 글 짓는 능력과 글씨를 곱고 깨끗하게 바르게 쓰는 능력을 키워 주면서 읽기의 지식기능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12. 국어교수 방법에 대하여

학교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 방법이다.

깨우쳐 주는 방법은 구체적인 교육교양의 목적과 학과목의 특성, 학생들의 나이,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국어교수는 글을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세워주고 그들을 수령에게 충실한 전사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국어 지식기능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국어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되는 읽기방법, 쓰기방법, 문답과 해설의 방법이며 토론과 논쟁의 방법, 직관의 방법 역시 국어 교수의 중요한 교수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13. 북한 사범대학의 종류, 국어교사 양성, 임용, 그리고 임용후 연수(재교육)

김일성이 내놓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의 사명과 위치와 역할이 자세히 밝혀져 있다. 또한 이 테제에서는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 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시범교육기관들에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 지도원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을 양

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듯 북한은 사범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양성기지로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도(직할시)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대학교원과 고등반의 높은 학년반교사를, 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의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교원대학에서는 소학교 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사범대학 중에서 중앙대학으로는 평양에 있는 김형직(김일성의 아버지 이름) 사범대학이다. 이외에도 평양에는 2사범대학이 있다. 또한 김철주 교원대학이 평양에 있다(김철주 : 김일성의 친동생이름).

국어교사들도 1사범대학과 2사범대학의 어문학부에서 양성한다. 특히 다른 자연과목교사들에 비해 성분을 많이 고려하여 학생모집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교사들은 철저히 당 간부비준절차와 같은 임명절차를 거쳐 교사로 각 학교에 배치되는 바 1사범대학학생들 중에서도 대학교수로 임명되는 경우는 학교 당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교육부를 거쳐 중앙당 간부과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바 집안 형제들을 비롯한 8촌까지 7명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

중학교 교원은 물론 유치원교사까지도 도당, 시당, 군당의 비준을 거쳐 당일군이나 안전원(경찰), 보위원(비밀경찰)들과 같은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뿐만 아니라 교원이 모자라던 1970년대 교원양성소를 많이 만들어 3개월, 6개월, 1년간 교육시켜 교원으로 배치하였고 이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사범대학, 교원대학에 통신으로 방학 때 마다 다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교원들을 재교육시켜 그들이 언제나 당에서 내놓은 시기마다의 당정책을 학생들에게 교육과 결부시키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는 각도, 시군에 <교수강습대>가 있어 그들이 전문적으로 먼저 당정책을 연구하여 방학기간에 교원들을 교과목에 따라 강습을 진행하게 된다.

유치원의 매 과목에서부터 소학교 중학교의 과목에 맞게 시범수업 방식상학도 진행하여 수업에서의 통일성과 교수내용과 교수 목적의 일치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교원들은 모든 강습이나 교수방법토론을 방학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교원들이 1년에 휴가일수는 노동법에 의하여 14일간(2주)다 .

이 휴가도 오직 방학기간에만 받을 수 있으며 방학기간의 휴가도 강습이 없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국어 교수에서도 먼저 교수 강습대가 연구한 내용을 많은 국어 교원들과 토론에 붙이고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강습에 들어간다.

14. 통일에 대비하여 남측학교교육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지금 남한의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거의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통일교육을 시간에 넣어 진행하였으면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신이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심하였으면 한다.

- 지금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하여 교사들이 거의 급여가 없이 학부모에게 의거하여 학생들을 배워주는 조건에서 국가적인 북한의 지원이 된다면 북한의 교원들에게 이곳 교사들이 물질적 지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북한의 학생들이 교과서가 50%도 공급이 못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이를 비롯한 학용품 지원을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동원하여 도와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이다.
- 지금 북한의 학교는 여지없이 그 내부와 외부가 파손되고 수리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도색재료를 비롯하여 뽕끼라든가 칠판, 창문 도색재료, 교실바닥 수리재료, 벽체 수리재료 등 학교 보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치스럽지만 북한의 현실은 이곳 남한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국민들이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조건에서 학교의 설비나 학생들의 학용품들을 제대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15. 남북통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천만의 이산가족과 지금도 계속되는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이산가족 1세대는 거의 운명하여 몇 명이 되지 않는다. 허나 지금도 탈북자 행군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아픔은 멈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먼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남한의 높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배합하여 북한이 자체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준 다음 그들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남북의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될 때 통일도 남북한의 국민모두가 기쁨과 환희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남한 국민들은 먼저 온 통일의 밑거름으로 될 탈북자들과 탈북 청소년들을 통하여 통일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2만도 안 되는 탈북자들의 아픔이나 괴로움도 풀어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만의 북한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통일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두 사회를 다 겪어 본 탈북자들에 의하여 남한의 우상이 북한에 많이 선전되고 있으며 남한의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몰래 시청하기에 이르렀다.

남쪽사람들은 남한의 KBS1 드라마가 방영되어 문을 닫아걸고 시청하고 있으며 북쪽에 있는 중국 국경의 마을들에서는 중국에서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여러 중부 도시들은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디오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 <겨울연가>, <가을 동화>가 들어와 북한 시민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의 북한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희망의 등대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남한이 조금만 신경 써 주고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북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이끈다면 통일의 날은 곧 밝아 올 것이다.

16. 남측 교육 실태 보시고 느낀 점

- 남한의 교육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초등, 및 고등 정신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 남한의 국어교과서에서도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으로 세계의 명인들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주는 데서 학생들이 상식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 문학적인 글이 28개, 논리적인 글 1, 설명적인 글 7, 전기적인 글 1 (중1 <국어 1-1><국어 1-2>),

북한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문학적인 글이 12개, 논리적인 글 6, 생활적인 글 1(고등중<국어 3>)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남한의 국어는 폭넓고 많은 지식을 주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한의 국어를 접하면서 너무나 많은 참고서와 참고 도서가 있고 교과서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너무나 많아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한권으로 통합하여 그 교과서 안에 첫 과에 읽기, 다음과는 쓰기, 말하기 등을 지정해주어 학습에서 단순성으로 일관되어 있었지만 교사가 수업하기에 복잡성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남한은 객관식으로 평가를 함으로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며 공부하는 데서 과연 그 문제를 확고히 이해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지 의심되곤 한다. 저 자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한 생명 보험 자격시험에서 모조건 통달하여 100점을 맞았으니 말이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떨어진 북한이라 하지만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이를 필답과 구답으로 정확히 평가함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답을 쓰거나 말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허나 북한 학생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지식이 폭 넓지 못하고 오직 배워준 한계 내에서만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남한의 교사들에 대하여 느낀 바를 말한다면 너무나 안일하고 교사에 대한 사명감이 적다 보니 남한에서는 선호하는 직업으로 되고 있다.

옛날 속담에 <훈장의 띠는 개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너무나 아이들을 배워주는 데 속이 타서 개가 띠를 보고도 너무나 역해서 달아난다는 말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직업으로, 밥벌이로 생각하면서 대강 배워주는 이런 교사들에게서 나라의 귀중한 후대들을 맡긴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에서 김일성은 이미 전에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교원들은 굶어 쓰러지면서도 교단에서 물러나지 않고 학생들의 교수 교양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가정형편이 한심한 상태에서도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시키는 문제라고 하면서 집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다.

-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더 많이 배워주려는 열정은 높으나 이런 학부모의 열성과 학교 교사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교육은 이 나라의 학부모들을 죽이고 학생들이 고달품 속에서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내는 괴로움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역할을 높여 대한민국의 예상을 많이 넣고 있는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한다면 능히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아도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학부

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푸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학원의 우수한 교사들을 학교에 인입하여 교사로 채용하고 학교의 능력 없는 교사들은 조동시킨다면 이것도 자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혁명이 될 일이다.
- 교사들의 능력평가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정에 오르내리는데 전국적, 또는 시적, 또는 군적, 또는 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게 하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한 교사는 급여도 올려 주고 많이 평가하고 모범교원으로 평가한다면 교원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의욕이 생기리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들에서 교사들은 교권이 없고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학원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의 생활은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에서는 교수요강, 진도표, 교수안이 교원들에게 보장되어 교수의 통일성, 집체성을 보장하였다. 이는 교원들의 실력이 다양한 상태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에서는 국어 수업 하나를 보아도 교사들이 자의대로 수업하고 자질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도 차이가 난다고 본다.

남한 교사들은 자기의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를 안 좋아 한다고 한다.

남한의 학교들에서도 방식상학, 시범상학 시범수업참관 등을 학교들에서 조직하고 우수한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하고 따라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과목과 수업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국어과 수업은 매우 중요한 수업이며 그 어느 나라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60년, 언어의 이질성이 많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이 있다.

남북한의 언어학 학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어, 즉 국문학 교수들과 교사들은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고 자주 만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어 수업의 우점을 서로 살려 국문학 분야에서 먼저 통일성을 보장함으로써 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리라고 믿는다.

독일통일기의 독어교육

이 원 경

연세대

분단의 역사 속에서 야기되어 온 남북한 언어현상의 차이가 한반도의 통일에 수반되어야 하는 내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갈등을 파생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듯하다. 이러한 갈등의 극복은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특히 학문과 교육은 정책적인 방향 설정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논의의 배경도 이러한 역할에 대한 자각일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우리보다 앞서 분단을 극복한 동서 독일의 사례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조명해왔다. 본 발표에서는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극복해야 했던 독일어교육 분야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 즉 교육이념적 차이와 언어사용현상의 이질화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그 극복의 과정에서 독일어 관련 분야의 역할을 돌아보고, 통일 후 20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통합의 길을 가고 있는 독일이 독일어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이 통일기에 통합 독일어교육을 위해 극복해야 했던 동서간의 간극은 크게 교육이념적인 차이와 언어사용현상의 이질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극복해야 했던 과제

1.1 교육이념적 차이

분단 이후 동독이 전개해 온 독일어 교육정책은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서 서독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에서 교육정책은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서기장 Erich Honecker의 아내인 Margot Honecker가 근 20년 간 "인민교육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교육정책의 비중을 엿 볼 수 있다. 동독은 단일화된 전인적인 사회주의 인성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하며, 통일된 교과서와 중앙집권적으로 기획된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했다. 독일어 교육의 원칙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기능', '수업의 정치화'가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였고, '게르만 영웅시대', '투쟁과 운명에 관한 신화', '노동자와 농민의 영웅화' 등이 독일어 교과서 텍스트들에 만연한 주제였다. 구동독 존립 기간 동안 몇 차례 개혁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를 계기로 문학성이 점차 조명을 받기는 했으나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인 이념은 이미 나찌사회주의 독일이 표방했던 "핵심 문학유산"에 대한 정의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¹⁾

1. 문학작품은 단순히 역사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독일의 현시대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지식인적인 양면 가치로 혼돈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독일적인 존재 양식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3. 독자와 청자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즉 단순한 탐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다음은 1955 년 시집 "폐허" (92 쪽)의 한 부분이다. ²⁾

신이 우리의 피와 맺어 준 밭고랑은
우리의 생명줄
노동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자

1) 참고자료: "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1965. 2. 25): Siegfried B. Bildungspolitik in der DDR. Dokumente. Wiesbaden, 1979, 97-130.

2) Jürgen Kolbe (ed.): Ansichten einer künftigen Germanistik, München, 1969 / Neue Ansichten, 1973.

빵을 얻을 자격이 있다네!
 형제여, 너의 영혼 깊숙이 고통을 이고 가라.
 어느 순간 깨달으리라
 인민이라는 존재의 비밀을

통일 이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독일어교육의 이념도 서독의 언어정책을 통해 흡수 통합된다. 통일독일의 독일어 교육의 지향점은 2003년 “독일언어학회”³⁾, “독일학술교류처”, “괴테인스티투트”를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독일언어의회 Deutscher Sprachrat’의 언어관에 잘 드러나 있다. 독일언어의회의 과제는 언어에 대한 논의와 계몽, 언어비판, 독일어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모국어 및 제2언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독일어의 국제적 지위확보, 언어정책을 위한 자문 등에 있다.

1. 독일어는 독일과 다른 독일어권 지역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요소로서 화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상이다. 독일어는 다른 유럽어들과 함께 유럽 문화유산의 역사적인 깊이와 현재 다양성의 근원이다.
2. 다른 유럽어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어는 현재 세계화의 물결 속에 많은 영역에서 영어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미 자연과학과 일부 사회과학, 경제, 정치 등의 분야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인 언어사용영역이나 민속의 영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3. 독일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을 경제적 논리와 의사소통 경제성의 요구에 내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법규가 아니라 언어 교육, 언어연구, 언어비판이다.
4. 학교 독일어교육의 목표는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구어적 문어적 언어능력의 배양에 있다.
5. 유럽의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모국어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목표는 가능한 많은 독일 국민이 두 개의 유럽어로 쓰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유럽어를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외국어 중 하나는 영어이어야 하나, 반드시 제 1 외국어일 필요는 없다. 지역 별로 이웃 국가의 언어 학습을 우선 해야 한다.
6. 이민자들에게는 어린이 성인 모두 제 2언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모국어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7. 독일 학자들은 이중 언어(혹은 그 이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독일 학문의 국제적인 참여를 위해

3) 독일언어학회는 분단 시기 동독의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의 중심점이었다.

서 영어로 저술활동을 하고, 동시에 학술어로서의 독일어의 발전과 독일어 화자들의 학문적 관심 증진을 위해 독일어로도 저술과 강연활동을 해야 한다.

8. 학술교류를 위한 정책시행기관은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독일어 실력을 참고해야 한다.
9. 정치가, 외교관, 공무원들은 EU 기관 내의 실용적인 영어사용 경향에 무비판적으로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제1의 언어인 독일어와 아울러 다른 개별 유럽어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10. “독일 언어의회”는 독일어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관련 학회 및 기관들과 언어정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위에 요약된 “독일언어의회”의 활동 목표에서, 동서독 통합과 맞물린 유럽 통합의 시대에 독일의 언어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공존”을 위한 언어의식의 형성에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언어사용현상의 이질화

동서독의 언어문제는 독일통합과정과 관련된 연구 중 중요한 한 분야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귀결은 동서간의 언어이질화가 파생시키는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것과 이러한 언어적 이질화의 극복이 내적 통합에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이다. 동서독 언어의 이질화 문제와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갈등에 관한 연구를 개관해 보면 동서독 언어이질화 문제는 주로 어휘영역에 집중되어있다. 어휘 영역에서의 차이는 현저한데, 일상어에서 보다는 공적 언어사용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 예를 유형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⁴⁾

- 1) 국가의 조직, 행정, 문화정책 등과 관련하여 양국의 체제에 맞추어 생겨난 신조어
- 2) 동일한 어휘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상에 대하여 동서독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호하는 경우
- 4) 자기 체제의 선전이나 다른 체제의 부정적 선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어휘
- 5) 전환 및 통일 과정에서 널리 통용된 이른바 ‘전환기 어휘 Wende-Wortschatz’

통일 이후 20 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의 체계에 온전히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는 대부분은 구 동독 지역과 그곳에 사는 동독 주민들에 해

4) Hellmann, Manfred W. (Hg. und Mitautor): Ost-West-Wortschatzvergleiche. Maschinelle Untersuchungen zum Vokabular von Zeitungstexten aus der BRD und der DDR. (= Reihe Forschungsberichte des IDS Bd. 48), Tübingen (Narr) 1984.

당 되었다. 학술적 토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언어적 변화의 결과를 현 시점에서 유형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 경제, 법률, 사회복지, 주거, 교육과 관련한 서독어휘의 수용
- 2) 언론매체를 통한 영미 차용어의 유입
- 3) 동독의 국가권력이 주로 사용하던 상투적인 어법들과 체제 관련 명칭의 소멸
- 4) 외연이 같은 명칭간의 교체
- 5) 탈 타부화
- 6) 가치평가의 변화

반면 여전히 사용되거나 재생된 동독 어휘들의 예도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명칭의 변이형으로서 동독 지역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일부는 동독지역은 물론 서독의 언어사용에서도 나타난다. 그 밖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어휘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실제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동서독인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확인되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태도, 동서독 상호간의 부정적인 평가, 의사소통 규칙의 차이 등이 논의되기도 한다.

2. 이질화 극복을 위한 노력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시작으로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은 통합의 공식적 수순을 밟았고,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을 거쳐 한 달 여 뒤인 10월 3일에 두 개의 독일국가가 마침내 통일을 실현하였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급류와 같은 변혁이었지만, 통일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 예술, 청소년교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동서독간 교류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양독은 이미 1972년 12월에 조인된 기본조약과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통해 학술, 기술,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교류의 장을 열게 되었고, 1986년에는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예술, 교육, 학문 등의 협력에 합의했다. 통일조약의 교육관계 조항들은 동독 교육체제에 대하여 평등한 인정을 약속함과 동시에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여, 동독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질적인 제고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질적 체제 속에서 살아온 동독 주민들을 통일 독일국민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

독일어 연구와 독일어 교육 분야에서 통합과정에 기여한 바는 1) 동독의 언어사용현상과 동독 문학에 관한 언어학적, 문학적 연구, 2) 독일어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정치적 의미와 교육적 장 단점에 대한 고찰, 3) 인적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동서독간의 언어 이질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공적 영역에서의 어휘를 주제로 한 연구만도 통일 이전까지의 약 40년 동안 800 여 편 이상에 이른다.⁵⁾ 이 중에는 물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연구들도 많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졌고, 사회학, 정치학 등 인접 학문의 영향이 커졌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언어연구는 서독 측에서는 독일어연구소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DS)와 Hellmann 에 의해 주도되었다.⁶⁾ 동독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언어학 중앙연구소 Zentral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ZISW)를 주축으로 동서독 언어문제를 다룬 일련의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1989년 가을 장벽 붕괴 이후 양독의 언어발전과 그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연구의 대상이 동서독의 언어 이질화 문제였던 반면, 이제는 언어의 통합 문제와 연구의 주안점이 되었고 이를 위한 동서독 학자들 간의 학술적 대화와 언어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협력, 인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독일 언어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시대사 연구의 학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분단 현실이 양산해 낸 내적갈등 극복의 원동력으로서도 가치가 크다.

3. 통일 독일의 언어정책

현재 통일 독일이 독일어교육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1) 모국어로서의 독일어, 2)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각기 국내언어정책과 대외언어정책의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독일 정부는 세계사회에서의 독일의 가치와 지위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대외문화정책 차원에서, 언어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독일의 대외 언어정책은 독일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시대마다 대외 문화정책 내에서의 비

5) Hellmann, Manfred W.: Sprach- und Kommunikationsprobleme in Deutschland Ost und West. In: Gisela Schmirber (ed.): Sprache im Gespräch - Zu Normen, Gebrauch und Wandel der deutschen Sprache. , München 1997, 53-87.

6) 독일어 연구소는 1964년 Mannheim에 건립되었고, 건립과 더불어 분원 "Forschungsstelle für öffentlichen Sprachgebrauch"를 Bonn에 설립하였다. Bonn 분원은 1949년 부터 1974년 까지 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공적 언어사용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이 M. W. Hellmann이다.

중과 그 기본방침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동서독 양극체제 당시의 독일의 언어정책은 서로 대립된 두 체제가 하나의 단일한 언어를 각자의 외교정치적 수단과 대상으로 삼는 특이한 상항으로 요약된다. 결과적으로 동독과 서독은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독일어의 국제적 지위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함으로써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동독의 독문학자들은 모국어의 보급확산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그럼으로써 서독의 독문학자들을 통한 반 공산주의적 선동에 성공적으로 대항해 왔다”는 Kurt Hager의 회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⁷⁾ 동독 언어정책은 정치적인 세력확보와 공산주의 이념 확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대외 언어정책은 오늘날 국제 사회의 산업과 학문 분야에 있어서의 독일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외국인들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동독체류의 소기 목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독일어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그럼으로써 독일어의 국제적 효용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서독처럼 다양한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독일어 강좌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독일어보급의 일선에 선 사람들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언어 보급을 추진한 것이 그들이 처해 있던 경제적 여건에서 가능했던 최상의 방책이었다는 점이다.⁸⁾

동독의 언어정책은 이념적, 경제적,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서서히 붕괴되어 가다가, 통일 직전에는 거의 완전히 청산되기에 이른다. “진보적인 사회주의 자유국가”로서의 동독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바르샤바 조약국을 중심으로 선별된 몇 나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동독의 대외 언어정책은 다각적이고 폭넓은 서독의 언어정책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해외에서의 독일어 보급을 주관하는 기관은 구 서독의 대외 문화정책부로 통합된다. 대외 문화정책부는 각 지역별로 수행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적인 정책의 수행은 대외 문화정책부 산하의 여타 기관들의 통합체인 Ständige Arbeitsgruppe Deutsch als Fremdsprache(SADaF)에서 담당하는데, 괴테 인스티튜트와, DAAD, Internationes, 그리고 해외독일학교 본부 등이 그 주축을 이룬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직후,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이 통일독일 언어정책의 새로운 상대국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독 언어정책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지위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

7) Große, R./Szulc, A. (1978) Zehn Jahre Germanistenkommission der DDR und der VR Polen. Deutsch als Fremdsprache 15, 377-381.

8) Praxenthaler, M. (2000) Förderung von Deutsch durch DDR. In: Sprachförderung. Schlüssel auswärtiger Kulturpolitik. Frankfurt/M., 51-60.

로는 동독이 감당하지 못했던 독일어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재 독일어권 지역에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9천만, 그 외의 지역에 사는 독일어 모국어 화자의 인구는 6백만에 이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인구가 독일어를 외국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천 사백만 인구가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학습하고 있다. 독일어는 현재 일곱 개의 국가에서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어, 스위스, 룩셈부르크에서 공동 국가어, 이태리 남 티롤과 벨기에 동부 지역에서 지역적인 공용어), 유럽공동체의 공식언어 23개 중 하나로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갖고 있다.

통일독일 언어정책의 주요 대상 지역은 분단 시대에 서독의 활동이 미미했던 동유럽과 북미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 한국,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이다. 그 중 동유럽은 통일 직전부터 핵심 대상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독일어 보급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독일은 D-A-CH-L-Kreis 연맹국가인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유럽에서는 독일어가 지난 몇 년간 영어 다음의 외국어 과목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들 중 다수의 국가들이 2005년과 2007년에 EU 회원국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즉 독일이 EU회원국이 되기 위한 수순을 기다리는 국가들에 집중된 것과, EU 국제기구에서 독일어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어 사용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유럽이며, 독일어가 EU 내에서 가장 큰 언어 집단임을 감안하면,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공식적인 지위 확보가 현재 독일 언어정책이 당연히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또한 전 유럽 지역에 있어서의 독일어에 대한 수요에 결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의미심장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일어수업 관련 사업과 그 외의 주요 사업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대학에서의 독일어보급에 대한 방향 전환

- 현재 500여명의 DAAD교수가 파견되어, 해외의 독어독문학과의 독일어가 수업언어인 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나 독어독문학과의 붕괴되고 독일어교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감소해 가는 몇몇 나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독어독문학 및 일반 독일어 강좌에 대한 지원문제가 심각하게 재고되고 있다.
- 독일어 전공이 다른 전공과 연계되어 현실적인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학이나 경제학 등, 독일어 능력이 직업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학과와 연계해서 독일어보급을 추진한다. 따라서 단기 독일어 코스 지원 학생이나 교환학생,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과별 분포를 재고한다.

2) 현지 학교를 통한 독일어 보급 지원

- 독일인교사 파견과 현지인 독일어교사 고용지원을 통해 해외 독일 학교 뿐만 아니라, 선별된 우수한 현지 학교들의 독일어 수업을 지원하고, 각종 독일어능력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테스트 센터로서 기능하게 한다.
- 3) 교사들의 보수교육
 - 중부와 동부유럽 국가들, 구소련 독립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 여 개 국의 우수한 학교들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전문가가 파견되어 현지 독일어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4) 성인교육 차원에서의 독일어교육 지원
 - 외국어 학습이 직업 세계에서 경쟁력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 분야에서 독일어 교육을 지원한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비즈니스 독일어 등 특수한 독일어 강좌에 집중하고, 일반 독일어 강좌는 현지의 학원 강좌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 세계 91개국에 149 개 괴테 인스티튜트가 설립되어 있고, 133개 학교에 독일어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 5) 교재개발과 보급
 -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극 나오래된 교재들로 수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따라별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한다.
 - 괴테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언어와 지역정보를 위한 통합적 교재를 개발하여 기증한다.
 - 많은 정보들은 인터넷 상에서만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교재보급을 도모한다.
- 6) 독일어의 현실적인 효용가치 증대
 - 국내외의 독일 기업도 독일어의 보급에 기여하도록 한다. 즉 인력을 충원할 때 독일어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독일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문화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독일 내 독일기업과의 교류에 있어서 독일어능력에 증대한 가치가 부여됨을 인식시킨다.
- 7) 독일인 소수민 지원
 - 대외 문화정책부는 소련과 구소련 독립국가 지역을 위한 특별 지원을 편성하는 등, 해당 지역 독일인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보급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비하여 수행한다.
- 8) EU내에서의 독일어의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
 - EU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 강좌를 개설하여 적극 지원한다.
 - 라디오나 TV 방송용 독일어강좌를 제작하여 송신한다.

한 나라의 언어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다른 한편, 언어정책적 방안을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안들이 상대국의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정책의 목표 달성은 반드시 상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과거 서독의 언어정책적 진출을 수용했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예나, 현재 EU 내에서의 공식언어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긴장관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언어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다. 다만 매일 매일의 정치적인 사건과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국제 외교정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입지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국제적 입지는 다시금 그 언어의 국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준다.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대국이 펼치는 언어정책 뒤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이라는 동기가 배후하고 있음을 의식한다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하나이다. 이것을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역시 언어정책적인 수단들로써 능동적으로 맞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교육의 방향¹⁾

윤인진
고려대

1. 서론

과거에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또는 ‘은자의 왕국’으로 불리던 조선의 백성들이 19세기 중엽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면서 시작한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어언 1세기 반이 되었다. 그동안 한민족은 미국, 멕시코,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 초기 정착의 힘든 역경을 딛고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한인들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코리아타운과 도쿄와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북한의 살인적인 식량난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언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유랑하는 탈북자의 처지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절박하다. 그런가하면 자녀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떠나고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가족’은 이민의 새로운 풍속도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이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2003년 8월 한 TV홈쇼핑업체에서 내놓은 ‘캐나다 이민 알선 상품’에 수천 명이 몰리는 과히 ‘이민열풍’ 수준이다. 급기야는 자녀에게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주기 위해

1) 이 논문은 필자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출판부, 2004)에서 재외한인 사회와 관련한 부분을 인용하고 최신 통계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국하는 소위 ‘원정출산’이 매년 5,000~6,000명꼴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은 이미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진행 중인 다이나믹한 과정이다.

상이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조국을 떠나 다양한 유형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민족관계를 가진 거주국에서 살아온 재외한인들의 경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에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측면들도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측면들도 있다. 이들의 경험은 우연하고 무작위적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역사적, 구조적 조건하에서 일정한 패턴을 띠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제약조건과 기회구조에 재외한인들이 능동적 행위자로서 대응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들과 주위 환경이 변화해온 것이 재외한인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이다.

2008년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한인의 규모는 6,788,997명이 고 여기에 2008년 외교통상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인의 수 296,168명(2007년 통계)을 더하면 7백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재외한인의 규모는 남북한 인구수의 약 10%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 재외한인은 중국(2,764,784명), 미국(2,023,653명), 일본(629,236명),¹⁾ 캐나다(218,716명), 러시아(207,225명), 우즈베키스탄(178,070명), 카자흐스탄(102,280명), 호주(95,297명)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과 2008년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비교하면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재외한인이 집중해 있는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두 9개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수는 적지만 일반인과 유학생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2000년 이후에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 취업, 방문, 유학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재외한인의 수가 많았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개별 거주국에서 재외한인의 자연증가율은 답보 상태이지만 사업, 취업, 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재외국민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재외한인사회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경우 '뉴커머'(New comer)라고 불리는 신 이민자와 '올드 타이머'(Old timer)라고 불리는 구 이민자 간의 관계는 재외한인사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1) 외교통상부는 2007년 재외한인 통계에서는 1952-2005년 기간에 일본에 귀화한 296,168명을 포함하여 재일한인의 수를 893,740명으로 집계하였지만 2008년 통계에서는 귀화자 수를 제외한 629,236명으로 집계하였다. 2007년에 귀화자 수가 296,168명이라면 2008년에는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1〉 재외한인 집중 상위 20개국의 재외한인 통계

순위	국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유학생	수	백분률
1	중국	2,245,748	3,068	438,656	77,312	2,764,784	40.7
2	미국	825,416	732,329	354,029	111,879	2,023,653	29.8
3	일본	0	523,119	87,665	18,452	629,236	9.3
4	캐나다	95,372	79,760	21,838	21,746	218,716	3.2
5	러시아	198,700	3,200	3,211	2,114	207,225	3.1
6	우즈베키스탄	176,640	0	1,357	73	178,070	2.6
7	카자흐스탄	100,000	95	2,095	90	102,280	1.5
8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24,531	30,101	19,669	20,996	95,297	1.4
9	필리핀	1	436	62,350	28,190	91,477	1.3
10	베트남	2	0	51,546	2,252	53,800	0.8
11	브라질	9,632	39,987	840	64	50,523	0.7
12	영국	1,920	6,645	14,930	18,500	41,995	0.6
13	우크라이나	32,711	20	350	50	33,131	0.5
14	뉴질랜드	12,149	11,728	2,341	6,754	32,972	0.5
15	인도네시아	107	189	30,298	106	30,700	0.5
16	독일	7,009	7,767	9,129	5,895	29,800	0.4
17	태국	52	78	23,864	1,006	25,000	0.4
18	아르헨티나	6,774	14,200	592	26	21,592	0.3
19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즈)	2,000	25	745	130	20,900	0.3
20	싱가포르	84	1,834	8,470	4,100	14,488	0.2
전 세계 재외한인 총계						6,788,997	100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재외동포영사 관련 통계(www.mofat.go.kr) (검색일: 2008.5.24)

재외한인의 이주 동기,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거주국에서의 사회적응의 유형과 수준 등은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의 논문에서 여러 국가의 재외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길고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일본,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민족 이산의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사회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민족 이산의 역사

한민족 이산의 역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국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등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 비교해서 짧다. 그렇지만 한민족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처럼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시도했던 민족은 역사상 그리 흔치 않다.

한민족 이산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합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유민(流民)으로서 당시 입국이 금지되었던 지역에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갔다(이광규, 1994).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1902~19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와이 거주 일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1905년에 한인 이주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1905년까지 7,226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다.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결혼의 형태로 1,000여명 가량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서 이민 가정을 형성하였다(Patterson, 1988).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 난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 만주지역의 한인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약 25만 명 정도가 집단이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태환, 1996).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일하였으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재일한인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한 1945년 8월까지 약 23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가 패전 후 많은 한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자 급속히 감소하여 1947년에는 598,507명으로 급감하였다(이문웅, 1997 : 66-70).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남한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동일시기에 5,000명가량의 아동들이 전쟁고아로서, 혼혈아로서, 또는 입양아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와 같은 두 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 한인 이민자의 2/3을 차지하였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000명가량의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누릴 사회적 권위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 눌러 앉거나 또는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호가 활짝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이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Yu, 1983 : 23-24).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1962년에 남한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 1962년의 이민정책의 근본 목적은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서 인구압력을 줄이고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교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과 캐나다가 그 이전까지는 북서구 유럽계 이민자들만을 선호하던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민의 문호를 한인에게도 개방하자 많은 수의 한인들이 보다 넓은 신분상승의 기회를 찾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화이트칼라 직에 종사했던 중산층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Yoon, 1997).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이주를 포기하거나 역이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주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증가함으로써 해외이주의 지역별 분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가족초청 이주는 줄어드는 반면 사업이주와 취업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민족 이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현상이며 계속해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될 것이다. 과거 ‘조용한 아침의 나라’ 또는 ‘은자의 왕국 (hermit kingdom)’으로 불리며 내부지향적인 민족으로 알려진 한민족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으로 변신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한민족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처럼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시도했던 민족은 역사상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재외한인은 인종과 민족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민자, 모국과 거주국, 이민의 시기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이민자와 그 후손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사례를 제공한다.

앞서 보았듯이 한민족 이산의 각 시기는 모국과 거주국의 상이한 요인들에 의해서 유발되었고, 각 시기의 한인 이주자의 이주 동기, 배경 특성, 인적 자원 등은 크게 달랐다. 이로 인해 세계 각 지역의 한인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거주국 사회로 편입되었고 이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양상도 사뭇 다르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 출산률 감소와 국내외 인구가동으로 인한 동북3성의 연변자치주의 인구감소와 쇠퇴 등의 문

제를 경험하고 있다(한상복·권태환 1993; 정신철 2000; 김강일·허명철 2001). 하지만 북경, 심양, 상해, 청도 등의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상업, 판매서비스, 생산직 등 도시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자발적 결사체와 조선족 언론매체를 통해서 느슨한 형태의 도시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윤인진 2003). 따라서 동북3성의 농촌 동족공동체는 해체되거나 약화되지만 도시 동족공동체는 활성화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한인의 경우에는 1989년의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1991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비등하는 원주민 우대의 민족주의로 인한 차별, 민족어의 상실과 민족문화의 소멸과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연해주 또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직업, 주택, 소득,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인진 2002).

재일한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로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직장, 공직, 정치참여에서의 차별, 2~3세대의 증가하는 일본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귀화, 민족교육의 약화로 인한 일본사회와 문화로의 급속한 동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한경구 2002). 1989년 한국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로 도입한 한국인들은 ‘뉴커머’(New comer)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올드타이머와 다른 직업, 생활양식,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재일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재미한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한인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풍족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생존의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고 인종차별도 최소한 법과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금지되고 배척되고 있다. 대신 재미한인사회에서는 민족정체성, 족외혼, 세대갈등, 정치참여 등과 같은 정신적이고 사회참여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Hurh 1998). 1992년의 4.29 폭동 이후 흑인과의 관계는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멕시코인과 같은 히스패닉(Hispanic)과의 인종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언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캐나다 한인들은 이민과 정착의 역사가 미국에 비교해서 짧기 때문에 아직 초기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실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별히 최근에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들은 30~40대의 고학력, 전문직, 화이트칼라가 주류를 이루는데, 캐나다 고용주가 현지에서의 노동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영업, 기술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정식 이민자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업부진,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정서불안, 가정교육의 부실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인진 2001).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표 2>에서 재외한인의 이주배경, 이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재외한인의 문화접변 수준, 호칭을 시기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시기적으로 대별하면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엽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주했던 구 이민자들과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신 이민자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구 이민자들은 기근, 압제, 식민지 통치와 같은 모국의 배출요인에 의해 이주하게 되었고, 계층배경은 주로 농민, 하층계급이었고,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정착보다는 일시체류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신 이민자들은 모국의 배출요인 못지않게 거주국의 흡인요인(높은 생활수준과 교육기회)에 강하게 끌렸으며, 계층배경은 도시출신의 고학력,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처음부터 영구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중산층 배경 정착 지향성으로 인해 신 이민자들은 이민 1세대 내에 거주국에서 중산층 지위를 획득하는 등 빠른 신분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구 이민자와 신 이민자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이주한 지역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 이민자들이 주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로 이주한 반면 신 이민자들은 북미, 남미, 유럽 등 지리적으로 멀뿐만 아니라 주로 백인문화권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신 이민자들은 구 이민자들에 비교해서 이주로 인한 문화충격이 더욱 컸고 유색소수민족으로서 백인중심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컸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중국, 미국, 캐나다는 초기에는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다수집단의 사회문화로 동화하도록 강요하였지만 이후에는(중국은 192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소수집단의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다원주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들 국가의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참여하고 소수민족으로서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민족자공심의 수준이 높다. 이에 비교해서 독립국가연합 한인은 과거 구소련 시기에 적성국가의 국민으로 일본의 한인들은 피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 편견과 차별을 당하였고 다수집단의 사회문화로 동화하도록 강요받았다. 현재 이 두 국가에서 한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감소하였지만 소수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들은 다수집단의 사회문화로 빠르게 동화되었고 특히 일본에 사는 한인들은 자신이 한인임을 숨기는 등 민족자공심의 수준이 대체로 낮다.

〈표 2〉 재외한인의 이주 배경요인, 이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호칭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주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 이전	1903-1905	1967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구성	3,4세가 주류	2,3세가 주류	2,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지역	현재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현재 의 북한지역(함경 도, 평안도)/ 1930년 이후: 한반 도 내 지역으로 다 양화	현재의 남한지 역(경상도, 전라 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출신과 소수 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이주동기	주로 경제적 이 유(경제유민)/정 치적 동기(독립 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 (경제유민)/ 정치적 동기(독립운 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 유 (노 동 이 민)/1937-1945 년에는 강제징 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 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사 회문화적 이유(자녀 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 •유민(流民)의 성 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 제에 떠밀린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 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 •체류자 (sojourner)와 강 제 이 주 자 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농민, 노동자 중기: 국제결혼 여성, 전 쟁고아, 유학생 후기: 고학력, 중산층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 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 이민의 성격이 강함	•고학력, 전문직, 중 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 (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변용 수준	러시아문화로의 동화	민족문화 유지	일 본 문 화 로 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 족문화 유지	캐나다문화로의 동화 와 민족문화유지
호칭	고려 사람	조선족	재일(在日)한인	코리아-아메리칸	캐나다 한인

3. 각 국가별 재외한인의 현실과 과제

3.1 중국의 조선족

3.1.1 국내이주

이주 초기부터 조선족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포함하는 동북지방에 밀집되어 거주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3년에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1,103,000명으로 중국 내 조선족 인구의 99.2%를 차지하였다.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동북3성의 조선족 인구는 1,865,000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97.1%를 차지하였다. 특히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821,000명으로 중국내 조선족 인구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이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조선족 집거구는 약화되고 대신 북경, 심양, 상해, 청도 등 대도시에는 이주 조선족으로 형성된 코리아타운이 성장하고 있다. 최우길(1999)은 중국 국가민족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면서 1990~1996년 기간에 약 20만 명의 조선족 농촌인구가 연해지방과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족 전체 인구의 10%가 유동인구라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전체 인구의 6.8%가 유동인구로 알려진 한족보다 훨씬 이동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인해 1970년대에 조선족 인구의 30% 정도가 도시와 읍에 살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도시인구가 조선족 인구의 50%를 넘게 되었다. 여기서 도시인구는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토지를 이탈하여 도시에 나와 장사를 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화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중국 전체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조선족은 타민족에 비교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도, 대련 등 연해도시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조선족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도시화를 촉진하고 있다.

3.1.2 교육과 경제생활

조선족은 이주 초기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밭농사에 종사한 한족과 만족이 버린 늪지나 강가의 하천부지를 논으로 개간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1930년대 초기에 전 동북지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조선족의 벼농사는 당시 동북의 전체 벼생산량의 90.1%를 차지할 정도로 증대되었다(정신철 2000: 21). 그리고 벼농사의 수확량이 밭농사의 잠곡보다 많았기 때문에 한족과 만족보다 경제소득이 높았다(이광규 2002: 39).

조선족은 교육면에서도 타민족에 앞섰다. 전통적으로 조선족은 지식을 숭상하고 교육을 중

요시하고 전통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과 과거시험 제도는 교육을 베풀하고 가문을 빛내는 중요한 통로로 여기게 하여서 가능한 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려 하였다. 1990년 인구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문맹률은 중국 전체 22.2%, 소수민족 30.8%, 한족 21.5%에 비교해서 조선족의 문맹률은 7%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 연수를 보면 전체 중국 평균 수준이 6.25년, 소수민족 평균이 5.29년에 비교해서 조선족은 8.25년이었다. 교육인구 매 1만 명 가운데 대졸 학력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78명, 한족 평균 79명, 소수민족 평균 61명에 비교해서 조선족은 227명에 달했다(정신철 2000: 81).

조선족의 높은 교육 수준은 직업면에서도 타민족에 비교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982년 중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나타난 조선족의 직업분포를 보면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7.6%이다. 생산직과 운송업에 종사하는 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20.8%이고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상업, 서비스업 등 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21.5%에 달했다. 당시 전국 평균 72%가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6.7%만이 전문기술직과 관리직에 종사한 것에 비교하면 조선족의 직업분포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이르러 조선족의 직업분포는 더욱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농림어업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의 비율은 1982년의 57.6%에서 1990년의 51.7%로 감소한 반면 생산운송의 2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82년의 16.6%에서 20.8%로 증가하였다. 전문기술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1982년의 13.2%에서 1990년의 15.2%로 증가하였다. 개혁개방에 힘입어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의 비율은 1982년의 2.7%와 3.4%에서 1990년의 5.2%와 4.4%로 증가하였다. 직업분포의 변화에 있어서 중국전체, 한족, 소수민족은 그다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교해서 조선족은 농업분야 종사자가 줄고 대신 비농업분야,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가게를 돕는 차원에서 소규모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활동이 계절성으로부터 일상적인 활동으로 변하였다. 이제는 남성과 대학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와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3.1.3 민족정체성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사회에서도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 데에는 조선족 자신의 의지와 노력, 중국 정부의 민족평등주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조선족이 민족집거지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공동체적 사회, 경제생활을 해 온 것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백연구재단(1998)에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재외동포들의 언어 상황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 응답자의 81%는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의 최근 이민자가 주류를 이루는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94%가 한글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민 2,3세가 주류를 이루는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10%, 그리고 이민 3,4세가 주류를 이루는 러시아의 고려 사람의 경우에는 15%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 추석 등 모국의 주요 명절을 지내는 비율은 조선족의 경우 85%로 가장 높고 고려 사람 65%, 재일동포 46%, 재미동포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중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조선족이 오히려 민족 언어와 민족문화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흔히 중국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정체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항상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립되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딜레마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선족의 정체성 담론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최우길(2000)은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 전개되는 정체성 담론을 ‘낳은 정 기른 정’, ‘며느리론’, ‘조국과 모국’, ‘중국 국민으로서의 조선족’으로 정리한다. 필자는 이 네 가지 담론들을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들을 묶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즉 ‘낳은 정 기른 정’, ‘친가와 시가’, ‘모국과 조국’과 같이 조선족은 혈통적으로는 한민족이고 조선은 모국이지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중국은 조국이기 때문에 그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고이다(김재국 1996; 정판룡 1996).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은 중국과 조선의 정체성이 융합되어 모체와는 다른 제3의 정체성이라는 사고이다(김강일 2001).

조선족의 정체성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 최우길(2000)의 논문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사무위원회의 주임인 김중국이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김중국은 1992년에 연변 조선족 1천 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서 “당신의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가량이 중국을 조국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계층과 연령에 따라 응답결과는 달라지는데,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간부의 95%는 중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농민의 경우에는 30%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80%는 중국으로 조국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60%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1.4 해외이주와 초국가적 생활세계

최근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이주이다. 현재 25~3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장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경제, 교육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주로 모국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 미국 등지에도 많은 수의 조선족이 진출하였고 조선족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박광성 2006).

조선족의 한국진출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에 한국에 친척이 있는 조선족이 친척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략 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은 돈을 벌어서 귀국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혹은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초기의 불법체류에서 점차 합법적인 진출과 체류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정책완화와 연관되어 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불법체류 구제조치를 취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상기 지역 동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조치를 내놓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들에 한하여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상기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조선족의 한국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체류방식에 있어서도 불법체류에서 합법적인 체류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특히 혼인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친척초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조선족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선족은 더욱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면서 경제활동을 벌일 전망이고 이로 인해 조선족의 생활세계가 초국가적 공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족 경제생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경제적 분화와 상호 연계이다. 동북 지역 조선족 공동체의 변화는 한국과 같은 국외지역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집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동북지역에는 국외에서 보내오는 송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방대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면, 동북지역은 주요한 노동력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해 지역 조선족사회 형성에 대한 국외 진출자들의 경제적 지원의 영향이 크며, 연해 지역 진출자들은 국내의 발전상황과 경제 기회를 국외 진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연해 지역의 자영업 발전과 국외 진출자들이 연해지역에서 주택구매를 늘리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경제생활은 어느 특정 유형의 커뮤니티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분화와 상호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박광성 2006).

초국가적인 해외이주로 인해 조선족의 가족구조와 가족생활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조선족은 보편혼의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과 성, 이혼에 대한 규제가 엄한 제도적 특성, 폐쇄적인 생활세계 등 요인들에 의하여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이런 안정된 가족생활은 가족성원들이 낮은 이동, 정상적인 가족구조(핵가족 혹은 3대 가족) 유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 이동에 의해 조선족의 가족은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주요 특징이 바로 가족분산이다. 가족생활의 주요 형태였던 핵가족과 가족공동체가 분산되면서 조선족의 가족생활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박광성, 2006). 첫째, 가족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필요에 따라 흩어져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가족 분산의 장기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선족의 가족 분산은 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국외진출에 의하여 초래되며,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도 지역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령,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갈라지게 된다. 즉 가족이 갈라져 생활하면서 필요와 충족도 지역적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가족생활이 파괴되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분산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수입이 보장됨으로써 경제적인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족 가족의 수요와 충족도 초국가적 맥락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족의 가족분산은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산 속에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족의 ‘가족공동체’ 분산은 이동에 의한 핵가족의 분산에서 기인되고, 이동정착과정에서 친척관계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출지에서 ‘가족공동체’의 관계가 복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가족공동체’에 뿌리를 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렇게 원래의 공동체에서 파생된 공동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지역을 탈피한 ‘가족 공동체’구조를 형성된다. 가족분산 이동결과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조선족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과 3대 가족이 중심으로 되어있었고, 이를 기초로 가족성원의 구성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핵가족이 표준적인 가족유형이었다고 한다면 갈수록 노인·손자 가정, 편부모 가정, 독거 가정, 동거 가정, 형제 가정, 친척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조선족의 국내 이주와 해외이주 과정에서 조선족의 공동체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조선족은 동북3성에서 집거지를 형성하여 생활하여 왔다. 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이동 없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성원들의 사회관계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세대교체를 거치면서도 지

속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대규모의 이동을 거치면서 조선족의 공동체는 심각한 변화를 맞게 된다. 기존의 공동체는 심각한 변화 또는 해체에 직면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성에서 벗어나 연결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도지역에 진출한 조선족은 혈연과 지연의 기초 위에서 직장생활, 동호회활동, 기업가 협회와 노인협회와 같은 조직 결성, 교회 활동, 직업소개소와 같은 모임의 장소를 통한 교우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집단 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윤인진 2003).

조선족 공동체의 변화 중 중요한 측면은 지역성을 탈피하여 연결망에 기초하는 탈지역적 공동체의 형성이다. 탈지역적 공동체는 기존 사회관계의 지연적 분산과 연결유지에 기초한다. 즉 이동으로 인한 기존 사회관계의 분산이 관계해체의 결과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에 기초하여 탈지역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조선족의 이동에서 혈연과 지연이 주요 연결고리로 되면서 일부 지역으로 성원들이 모이기 되는 특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진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기 때문에 작은 지연 그룹이 형성되며, 이러한 소그룹이 그들의 외지 생활에서 중요한 단위로 되기 때문에 지연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원 거주지와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조선족 이주민들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룹에도 불구하고 친목회, 비즈니스협회 등 이차결사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족언론매체(조선족 신문 및 방송)는 넓은 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민족공동체의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알게 하고 공통의 문제의식과 연대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과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 광고 등을 통해 조선족 이주자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인진 2003).

정리하면 조선족은 중국-한국-일본-미국 등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가족이 분산되기도 하지만 시부모/친정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자녀양육 및 교육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면서 초국가적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주, 경제생활, 가족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국과 거주국, 전통과 현대의 이항적이고 국민국가 단위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독립국가연합의 고려 사람

3.2.1 이주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된 후 그해 12월 21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를 중심으로 발틱 3국을 제외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결성한 정치연합체이다. 외교통상부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533,97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민권자가 518,437명(97%), 영주권자가 3,342명(0.6%), 일반인이 9,052명(1.7%), 유학생이 3,145명(0.5%)이다. 일반인과 유학생은 한국 국적을 소유한 재외국민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200년 현재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한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러시아(209,025명), 우즈베키스탄(184,600명), 카자흐스탄(102,280명), 키르기스스탄(20,900명), 우크라이나(13,131명), 타지키스탄(1,640명), 벨라루스(1,200명)의 순이다. 2001년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한인의 수가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230,800명), 러시아(156,650명), 카자흐스탄(99,700), 키르기스스탄(20,222), 우크라이나(8,958), 투르크메니스탄(2,500), 타지키스탄(1,550) 등의 순이었다. 2001-2007년 기간의 한인의 인구변화는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피해 고려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로 이주한 것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인들이 사업, 취업, 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로 이주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교육과 경제생활

1860년대 중반 이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만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벼농사는 고려 사람들에게 의해 처음으로 이 지역에 도입되었다. 이주 후 고려 사람들은 콜호즈와 소포즈 등의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였다. 갈대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벼품종을 개발하여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카자흐스탄의 김만삼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려 사람들이 벼, 목화, 야채 재배로 노력영웅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고려 사람의 집단농장은 타민족의 것에 비교해서 수확량이 뛰어나서 높은 소득을 벌었고 농장 안에 학교, 구락부, 유치원 등을 세워 도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1954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거주이동의 자유가 생기자 고려 사람들은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56년에 70% 이상이 농촌 인구이었으나 1970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59.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어서 1999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 고려인 인구의 86%에 달한다. 이러한 도시화

와 교육수준의 향상의 당연한 귀결로 고려 사람들의 직업도 전문직, 사무직이 대증을 이루게 되었다.

고려 사람들의 높은 교육수준은 여러 설문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다. 이는 유난히 교육열이 강한 고려 사람들이 구소련 시기 무상의 대학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각 독립국가에서 대학교육을 유료화하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고려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하향추세에 있다. 필자가 1997-1998년에 독립국가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중등기술 학력 소지자가 10.2%이고 4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학력 소지자가 38.3%에 달했다. 초등학교 학력만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사학회 연구팀이 1995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479명의 고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명규 외, 1996). 전체 응답자 중 11년제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6.1%, 청년학교·기술학교·강습학교·전문학교 졸업이 52%, 대학과 대학원 이상이 34.6%로 나타났다.

직업지위에 있어서도 고려 사람 응답자들의 선택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고, 관리직에 5.7%, 사무직에 7.5%가 종사하는 등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8.3%에 달했다(윤인진, 1999). 반면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4.4%에 불과하였고, 우수토베와 폴리토젤과 같은 농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농어민의 비율은 10%에도 못 미쳐서 고려 사람들의 도시지향적 직업경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형태의 직업분포는 다른 설문조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7년 7월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378명의 고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성호(1997)에 따르면 이 두 나라에 거주하는 고려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인들의 직업은 주로 기술자, 의사, 교사, 공무원들이라고 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로 인해 필자의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고려 사람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계층지위는 중상류층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의 58.4%가 자신을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중류층과 중하류층의 비율까지 합하면 총 81.2%가 중산층 소속의식을 갖고 있었다(윤인진, 1999). 공보처(1995)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해외 한민족 의식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신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해서 고려 사람 응답자 중의 12.1%는 자신이 상층에 속하고 19.5%는 하층에 속하고 나머지 68.3%는 중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소득, 직업, 고용

지위 등)과 비교하면 고려 사람 응답자의 계층의식은 약간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설문조사에서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18세 이상~65세 이하의 경제활동가능인구 중에 33.8%만이 현재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9.5%에 불과해서 중앙아시아 전체의 높은 실업률에 비교해서 비교적 안정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족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8.1%가 연 500 달러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고 15.8%는 500~1,000 달러의 소득을 벌고 있다. 그러나 알마티와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거주 응답자들 중에는 각각 24%와 32.4%가 연 5,000 달러 이상의 가족소득을 벌어서 고려 사람 응답자들 간에 소득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독립 이후 고려 사람들은 양파, 파, 참외, 수박 등의 야채와 과일을 특화 재배하기 위해 볼고 그라드,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카프카즈, 시베리아, 우랄 등지로 소위 ‘고본질’이라 불리는 계절임차농을 다니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다. 고본질은 타민족과는 구별되게 고려 사람만이 실행하는 농업형태이다. 구소련 체제에서 고본질과 같은 투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불법이었지만 고려 사람들은 이를 통해 높은 수입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려 사람들이 타민족에 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2.3 민족정체성

고려 사람들이 신분상승의 전략으로 도시화, 고등교육, 전문직화를 추구하면서 이들은 언어, 의식, 생활방식 등에서 러시아의 사회문화에 동화되었다. 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지역의 이슬람문화에 대해 단순한 무관심 차원을 넘어 경멸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박명규, 1996: 41). 필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러시아어를 본인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로 삼고 있다(윤인진, 1999). 3,4세대 응답자 중의 98%는 러시아어를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민 세대와 별 상관 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와 같은 현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0.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언어적,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람들은 강한 민족적 동일시와 민족적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세대에 걸쳐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러시아인 또는 토착민으로 동일시하기보다는 고려 사람으로 동일시하였다. 족외혼과 족내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본 결과 고려 사람들은 여전히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특히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과 같은 토착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고려 사람과의

결혼은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세계에서나 그러하고 실제로 알마티와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타민족과의 결혼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서 태도와 행동사이에 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김계르만, 1998). 특히 이민 3,4세 가운데는 족외혼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 가능한 고려 사람 배우자의 수가 줄어들어 드는 상황에서 타민족과의 결혼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려 사람들이 언어, 문화적으로 정착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소수민족으로 구별되고 다르게 대우받는 것에 기인한다. 신체적으로 러시아인들과 토착민들과 구별되는 고려 사람들에게 동화는 본인의 의사나 희망여부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구소련 체제와 현재의 독립국가연합 체제에서는 개인의 민족성이 여권 및 각종 공문서에 기재되고, 교육, 직업, 이동의 자유 등 개인의 생활기회를 제약해왔다. 이렇듯 고려 사람의 생활세계에서 민족성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타민족성원들에 의해서 고려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고려 사람의 민족성은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찾고, 교회를 다니고, 직업을 찾는 등의 과정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기준이 된다.

3.3 일본의 재일한인

3.3.1 거주지 분포와 결혼

재일한인 1세는 일본 사회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유지했다. 이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출신지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사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오사카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고 히로시마에는 경남 함천 출신이 많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이문웅, 1996: 131-132). 재일한인은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 후쿠오카 등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에 자리를 잡은 2,3세들이 한인에 대한 차별을 피하고자 한인 부락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광역 도시내에서의 한인 밀집거주지역은 점차 분산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사카市(2001년 현재 95,385명) 이쿠노(2001년 현재 34,852명(전국 재일한인 중 5.5%)이 거주함)와 같이 특수한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조선인 부락을 해체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거주연수가 길어지면서 재일한인의 인적구성은 변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대교체이다. 이제 1세는 5%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재일한인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에서 밀려났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가 재일한인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가치지향성은 모국으로부터 거주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본인과의 접촉하고 교류하는 정

도가 높아지고 민족의식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일본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 국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단의 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에는 7,249건의 혼인 가운데 한국적인 사람끼리가 3,618건(49.9%), 일본인과의 혼인이 3,552건(49%), 기타 외국인과의 혼인이 87건(1.2%)이었다. 이후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체 혼인 중 83.4%가 되었고 1999년에는 87.3%로 늘어났다.

3.3.2 교육과 경제생활

경제적 적응과 관련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도입한 한인은 단순미숙련노동자로서 근근이 생활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재일한인 노동인구의 80% 이상은 노동직에 종사하였다. 노동직에서도 ‘잡역 및 일용인부’와 같은 단순육체노동자가 대부분이고 공업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적,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1%에도 못 미쳤고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1920년 이후에는 2% 이내에 머물렀다. 노동직 다음으로 많이 종사한 분야는 행상과 암매와 같은 상업이었다. 한인은 직업에서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다. 1920년대에 한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60~70% 정도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50%에 지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으로 복무했거나 해외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귀환하면서 재일한인은 종전에 종사했던 단순미숙련 노동은 물론 산업구조의 저변에 배치되었던 사람들마저도 거의 다 축출되었다. 낱팜팔이, 자유노무자, 분료수거, 청소부, 토목인부 등의 일자리에서마저도 재일한인은 일본인에 의해 축출되었다(한경구, 2002). 정규노동시장에서 밀려난 한인은 행상, 암매, 밀조, 담배 불법매매, 양돈, 폐품수집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일한인의 직업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단순 노동직, 농업, 폐품 수집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소 감소하고 영세규모의 공장이나 판매업, 운수업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직종은 일본국적을 갖지 못하고 학력도 낮은 1세대에게는 최대한의 직업지위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응렬, 1990). 또한 이들은 일본 사회의 차별로 인해 일본 기업에 고용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자영업뿐이었다(한경구, 2002).

최근의 재일한인의 직업구성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하층노동계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문기술직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았으나 기능공생산공정작업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964년에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비율은 12.9%였으나 1995

년에는 그 비율이 46.1%로 3.5배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기능직, 생산직, 노무직 등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비율은 동일 기간에 48.5%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재일한인의 직업 구조가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인의 직업구조와 비교하면 여전히 노무작업자, 판매업 종사자, 운수 및 통신업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피고용자의 비율이 낮고 더욱이 대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는 매우 적다. 그리하여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며 자영의 경우에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영업 중에서 제조업 부문을 보면 설비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단순조립이나 수공업에 가까운 단순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제조부문에서는 고물상, 음식숙박업, 오락 등의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며 소자본으로 자금회전이 빠른 분야에 종사한다. 이처럼 재일한인 상공인이 다른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은 비단 금융지원, 업종제한 등 제도상의 차별만이 아니라 일정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본인 상공인들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이문웅, 1996: 151).

재일한인의 교육수준도 세대가 지나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1990년 일본의 국제조사에 따르면 60~74세 연령층에서 대학/대학원 졸업자의 비율은 8.2%에 불과했으나 50대와 40대에서의 비율은 각각 15.1%와 21.8%로 보고되었다. 20대 남성의 비율은 25.2%였고 20대 여성의 비율은 9.3%로서 남녀간의 학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의 비율은 60~74세에서 53.6%, 50대에서 40.8%, 40대에서 26.8%, 20대 남성에서 9.6%, 20대 여성에서 5.5%로 연령이 젊어질수록 낮아졌다. 이민 3,4세에서는 일본인 평균 학력과 동일한 정도로 상승하였다(福岡安則·金明秀, 1997).

3.3.3 민족정체성

공보처에서 1995년에 실시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는 재일한인의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재일한인 성인 중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34%, 고졸 이하가 36.8%, 대졸 이상이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재일한인의 교육수준은 미국과 독립국가연합 한인에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에 관련해서는 재일한인 응답자의 18.5%는 자신을 상층, 69.4%는 중층, 나머지 12.1%가 하층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을 중층 또는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국 또는 독립국가연합 한인 응답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족문화와 정체성과 관련하여 재일한인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들에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적인 조건에서 살아왔다. 재일한인은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이주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피식민지

의 국민으로 폄박과 차별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단일민족신화를 믿는 일본사회에서 독자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사회와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받았다. 한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일본사회의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취직, 거주, 교제, 연애, 혼인 등 일상생활에서 한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이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한인은 미국의 흑인과 같은 피압박 소수민족이다. 또한 재일한인은 남북분단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 왔고 지금까지도 재일한인사회는 민단과 총련으로 양분되어 있고 대다수의 한인들이 여전히 한국 국적 또는 비공식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3세대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조국의 개념이 바뀌고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국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생활적으로 일본문화에 동화되는 정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인과 일본인, 국적과 민족의 이분법적 구분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다른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띤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그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성, 복잡성, 다차원성을 보여준다. 윤건차(1999)는 ‘재일’(재일한인)을 규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재일한인을 규정하는 것에는 국적, 혈통,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현재 재일한인의 상당수는 위의 요건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시각에서 재일한인은 일본과 조선의 두 개의 국가와 민족, 출신과 언어, 습관과 문화가 혼재된 존재이며, 이 두 가지 요소는 때로는 공유하기도 하지만 분열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재일한인 젊은 세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국민과 민족을 동일시하는 일본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일본의 ‘국민교육’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건차, 1997).

소냐 량(2002)은 재일한인 정체성의 현재 상태를 ‘홈리스(homeless)’로 기술한다. 과거 1세의 정체성이 통일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강한 귀속의식과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젊은 세대의 정체성은 돌아갈 조국도 없고 자신을 기꺼이 반기는 모국도 없는 ‘립보’ 상태라는 것이다. 그녀는 윤건차가 지적하였듯이 현재 재일한인의 대다수는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일상생활에서 재일한인은 일본어만을 사용하고,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갈 의사도 없고, 김치를 먹기는 하지만 안 먹어도 상

관없고, 통명을 사용하고, 자신의 민족적 기원을 폄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에 별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조국에 유대감을 가질 만한 문화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조국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동시에 비록 이들이 일본문화에 동화되어 일본인과 똑같이 말하고 생활하더라도 여전히 일본사회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모호하고 양면적인 정체성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디아스포릭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경구(2002)는 이론적으로 재일한인은 세 가지의 적응방식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는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즉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인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이고, 셋째는 총련이 취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 또는 북조선국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후쿠오카의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 방식은 간편한 것 같지만 귀화하는 한인에게 매우 커다란 심리적 희생을 요구하며, 세 번째 방식은 다수의 재일한인,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텐데 일본사회가 재일한인을 여전히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 또한 결코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진단한다.

3.4 미국의 재미한인

3.4.1 교외화

1903년 한인 이민이 시작된 후 1950년대까지 한인사회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부류의 이민자들이 이주하면서 한인들의 지리적 분포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한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처럼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어느 아시아인 집단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 인구의 44%가 서부, 23%가 동북부, 12%가 중서부, 그리고 21%가 남부에 거주한다. 미국 전체 인구의 24%가 서부, 19%가 동북부, 21%가 중서부, 36%가 남부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은 서부와 동북부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한인들은 도시, 그것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을 이루는 광역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전체 한인 인구의 96%에 달한다. 미국 전체 인구의 80%가 광역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인들의 대도시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역지역 중에서도 한인들은 거대한 광역도시들에

거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인 인구의 72%가 13개의 광역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리버사이드-오렌지-샌버나디노-벤추라 광역지역에 전체 한인 인구의 1/4이 살고 있어 이 지역이 미주 한인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광역지역 내에서도 한인들은 중앙도시보다는 교외에 더욱 많이 살고 있다. 중앙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비율이 40%에 비해 교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57%에 달한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인의 교외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인들의 교외화 정도는 미국 평균 50%보다 앞선다. 한인들의 교외화는 인도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3.4.2 교육과 경제생활

앞서 지적하였듯이 1970년대 이후의 한인이민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다 더 좋은 생활기회를 찾아 이민 온 사람들이 많다. 1990년 미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한인들 중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34.5%에 달하였다. 미국인 중에서 동일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대체로 아시아인들의 교육수준은 백인을 비롯한 전체 미국인들보다 높는데 인도인들의 58.1%, 중국인들의 40.7%, 일본인들의 34.5%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난민신분으로 이민 온 베트남인들의 경우에는 17.4%만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져서 아시아인들 중에서 낮은 교육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을 제외한 아시아인들의 학력이 미국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인들의 44%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반면 미국인 전체 중에서 동일 수준의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1990년과 마찬가지로 인도인들의 학력이 가장 높았는데 인도인들 중 64%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한인들 중에 동일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44%여서 중국인보다는 약간 낮지만 일본인과 필리핀인과는 비슷한 수준의 교육 수준을 보였다.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분포에서 한인들은 미국 전체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더욱 높은 비율로 종사하였다. 199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한인 인구의 31%가 관리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였지만 미국 전체 노동자의 25%만이 이 두 직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미국사회에서 좀 더 안정되게 자리 잡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비교하여 이 두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자영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아시아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는 1990년 한인들의 직업분포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00년 현재 한인들의

직업분포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8.7%로 높은 반면 농림어업, 건설설비, 운송, 군인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0.2~4%로 낮다. 생산, 교통, 물류 운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은 12.2%로 전체 미국인 비율인 14.6%에 비교하면 낮다. 세대별 직업분포의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등 저숙련 분야에서는 1세의 종사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관리직, 관리지원 및 사무직 등의 고숙련 분야에서는 1.5세와 2세의 종사 비율이 높다. 이런 결과는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가면서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미한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갖는 통념중의 하나는 대부분이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더욱 많은 한인들은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다. 사기업체의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비율은 1세보다는 1.5세와 2세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1세에서 높게 나타나고 1.5세와 2세로 옮겨갈수록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공직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비율은 1세보다는 1.5세와 2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이민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1세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언어와 미국사회문화에 익숙한 1.5세와 2세는 사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취업과 직업지위에서는 대체로 양호하나 소득과 빈곤률에서의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한인들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1990년에 한인의 연평균 가구소득(\$33,909)은 미국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35,225)과 백인의 가구소득(\$37,152)에 비교해서 낮았고 한인의 가구소득은 백인 가구소득의 91%에 해당했다. 더욱이 한인의 14.7%는 빈곤선 이하에 처해있었는데 이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의 빈곤률(10%)과 백인의 빈곤률(7%)에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한인은 백인에 비교해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인도인에 비교해서도 한인은 가구소득에서 낮고 빈곤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한인의 가구소득은 \$40,037로 미국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41,994)과 백인 가구소득(\$44,687)보다 낮았는데, 한인 가구소득은 백인 가구소득의 90%에 해당하여 1990년에 비교해서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2000년에 걸쳐 한인과 백인의 가구소득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유의할만하다. 한인의 가구소득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낮으며 베트남인들처럼 난민신분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보다도 낮았다. 한인의 위치는 개인소득에서 더욱 불리하게 나타났다. 한인의 개인소득은 \$18,805에 불과해서 백인 개인소득의 79%에 불과하고 베트남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인의 개인소득보다 낮았다. 유의영

(Yu et. al., 2002)은 한인의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낮은 이유를 첫째,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일부 고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세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둘째, 한인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력과 직업경험을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많은 점들을 들었다.

3.4.3 민족정체성

재미한인은 재일한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민족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크게는 7가지 작게는 4가지로 구분되며 국적, 정치적 이념, 세대, 일본 사회문화로의 동화 정도에 따라 분절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미한인의 경우에는 세대에 따른 차이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재일한인의 경우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재미한인의 경우에는 민족성과 국민성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 원인은 거주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과 지배집단의 인식에 기인한다. 일본과는 달리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된 미국은 소수민족에 대해 관용적인 가치체계를 갖고 있고 소수민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문화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다문화주의 사상이 확대되어가면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민족성을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재미한인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있다.

재미한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 특히 1.5세와 2세 한인에게서 이러한 이중정체성은 강하게 표출된다. 반면 1세는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아무리 오래되고 모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미약해졌어도 미국이 자기 나라라기보다는 남의 나라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다. 이런 1세의 정체성은 미국에 사는 한인(Koreans in America)에 가깝다.

필자가 1996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인들의 민족동일시, 민족애착, 민족간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윤인진, 1996).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있어서 현저한 세대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1세에 비교해서 이민 2,3세들이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약했고, 다른 한인과의 교류의 정도와 족내혼과 모국어 사용과 같은 한민족의 가치와 관습을 인정하고 지키는 정도가 약했다. 하지만 이민 2,3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한민족의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강화

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친구들이 한인인 것처럼 사회적 관계도 대부분 한인 민족공동체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민족 정체성과 애착은 민족어 구사능력과 민족의 역사, 문화에 관한 지식과 같은 객관적 여건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인에게는 민족성이 유럽계 백인 민족집단들에게서 발견되는 상징적 의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직업, 결혼, 교우관계 등 자신의 생활기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민 2,3세대의 주류사회 진출과 족외혼 비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적 동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3.5 캐나다 한인

3.5.1 이민

2006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캐나다 동포 인구는 117,065명으로 2001년 센서스에 나타난 101,715명에 비교해서 15% 증가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의 2009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캐나다 동포 인구는 223,322명으로 추계되었다.

1997년 말의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내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에 불안감을 느낀 30대 중에 해외이민의 바람을 일으켰다. 1999년에 5,267명이 취업이민으로 떠났고 2000년에는 그 수가 8,369명으로 증가했다. 대졸 학력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의 취업비자 발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취업을 목적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은 30대가 주류이며, 고학력·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민을 두고 한편에서는 기술의 해외 유출과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우려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서 정착하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30대 중산층 이민자는 과거 1960~1970년대의 이민자에 비교해서 ‘준비된 이민자’이다. 이들은 전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거주국 사정에 대해 미리 정보도 수집하고, 최소한 2~3만 달러 이상의 정착금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현지사회에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저소득, 가정불화, 스트레스 등 사회부적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언어문제와 현지 사회 경력 부족이 취업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다행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상사와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 간 직업을 찾다가 실패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분야와는 동떨어진 자영업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캐나다 한인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구집단은 한국에서 조기유학 또는 영어연수 목적으로 방문하여 단기 체류하는 조기유학생과 언어연수생이다. 1994년 5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면제가 발효되면서 미국에 비교해서 비교적 입국이 자유롭고 교육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캐나다로 유학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국하였다. 이들은 단기 단기간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라기보다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고 한인 동포들과 공감대가 별로 없어서 서로간의 접촉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으로 인해 토론토와 밴쿠버 등지의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업소, 하숙집, 어학연수원 등의 주요 고객이다.

조기유학생과 언어연수생이 캐나다로 대거 입국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대학 입시 경쟁과 극히 제한된 대학 진학의 기회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 능력이 취업과 승진에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 학부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6개월~1년 정도를 휴학하면서 언어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유학 자율화 방침으로 인해 미국과 호주에 비교해서 양질의 교육과 가격경쟁력을 갖는 캐나다로의 유학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언어연수생은 대부분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생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응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조기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 또는 하숙집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영어문제와 학업문제로 고민하더라도 위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부모가 보내주는 송금을 가지고 유흥과 현시적 소비에 쓰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동포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5.2 지리적 분포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은 산업이 발달하고 동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캐나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180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의 열 명 중 9명이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거주하는 비율이 1996년에는 84%였고 2001년에는 85.4%로 약간 증가했다. 앨버타와 퀘벡에는 약 12%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캐나다의 동

부와 중부에는 한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

한인은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토론토와 밴쿠버에 집중되어 있으나 몬트리올에는 그다지 몰려 살지 않는다. 1996년과 2001년에 한인 인구의 70%가 토론토와 밴쿠버에 거주하였으나 몬트리올에는 3.7%만이 거주하였다. 대체로 한인은 퀘벡주의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불어구사능력이 떨어지는 한인이 불어권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영어권 도시들에 많이 사는데 특별히 한인이 많이 사는 도시들(예를 들어 토론토, 해밀튼, 런던, 오타와, 키치너 등)은 온타리오에 몰려 있다.

3.5.3 교육과 경제생활

한인은 캐나다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집단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한인 중에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37%로 캐나다인 중에서 동일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인 15%에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수준이다(윤인진·임창규·배영준, 2007).

한인의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받은 대학교육은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대학졸업자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등을 전공했기 때문에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취업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한인이 원래 자신들이 훈련받고 종사했던 직업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순 노동,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는 낮은 취업률로 나타난다. 2001년 캐나다 센서스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한인 인구 중 51%만이 취업하였는데, 이는 동일연령의 캐나다 전체 인구 중 62%가 취업한 수치에 비교해서 11% 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인의 취업률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4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캐나다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취업률이 특별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25~44세의 청장년층에서 한인의 취업률은 59%인 반면 동일연령의 캐나다 전체 인구의 취업률은 80%에 달했다. 반면 45~64세의 중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한인의 취업률은 동일연령의 캐나다 전체 인구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결국 전체 한인의 취업률이 낮게 된 것은 45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별로 취업률을 비교하면 15세 이상의 한인 남성 중 57%가 취업한 것에 비교해서 동일연령의 한인 여성 중 47%가 취업하여서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남성들은 45

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캐나다 남성들의 취업률을 따라잡는 것과는 달리 한인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캐나다 여성들의 취업률에 여전히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

낮은 취업률로 인해 한인의 실업률은 캐나다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높다. 2001년에 한인 중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인구 중에서 실업률은 8.9%인 반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7.4%였다. 특히, 15~24세의 청년층에서 한인들의 실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한인 남성의 실업률은 16%이지만 캐나다 남성 실업률은 14%였고, 한인 여성의 실업률은 캐나다 여성의 실업률인 13%와 같았다.

취업자 중 한인은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2001년에 한인 취업자 중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7%를 차지했는데 캐나다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한인은 또한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매우 적었다. 한인의 직업분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1년에 한인 취업자 중 31%가 자영업에 종사했는데 캐나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보수 가사노동자 비율도 높게 되는데, 한인들은 캐나다 전체 노동자 수의 0.3%에 불과하면서도 캐나다 전체 무보수 가사노동자 수의 2%를 차지하였다(Statistics Canada, 2007).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소득이다. 199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16,934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5,196달러의 67%에 불과하다. 2001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20,065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9,769달러의 67%에 불과했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 중에 한인의 소득은 캐나다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취업률에서는 한인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취업률을 따라잡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해도 여전히 캐나다 전체 인구의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을 비교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교해서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15세 이상의 여성들의 평균개인소득(모든 소득원 포함)은 16,919달러였는데, 이 액수는 한인 남성들의 평균개인소득은 23,370달러의 72%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인 남녀간의 소득격차는 6,451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남녀간 소득격차인 13,980달러에 비교해서 대략 1/2 수준이다.

소득상황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996년에는 한인 가구의 44.5%가 빈곤가구였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전체 가구의 19.7%에 비교해서 2.3배에 해당하고 캐나다에서 하층계급에 속하는 흑인과 라틴계의 빈곤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에는 한인 가구의 43%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16%였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에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빈곤가구 비율은 19.7%에서 16%로 3.7%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한인의 빈곤가구비율은 44.5%에서 43%로 1.4%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 인구에서 빈곤가구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 당시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48%가 빈곤가구의 자녀였는데 동일연령의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 중 빈곤가구비율은 비율은 19%에 그쳤다. 독신 성인(unattached adults)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에 한인 독신 성인들의 72%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인구 중 독신자의 빈곤률은 38%였다. 독신 노인들은 특별히 빈곤층이 될 위험이 크다. 2000년에 65세 이상의 한인 독신 노인들의 80%가 빈곤층이었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독신 노인들의 빈곤률의 2배에 해당한다. 독신 노인 여성들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다. 2000년에 85%의 독신 한인 노인 여성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였는데, 이 수치는 독신 한인 노인 남성들의 빈곤률 57%와 캐나다 독신 노인 여성들의 빈곤률 4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캐나다 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세대별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1세는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및 소득 수준간의 불일치가 심하고 낮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으로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상황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자영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되고 장시간 노동과 무보수 가족노동을 통해 생계유지 차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 반면 1.5세와 2세는 교육수준과 전문직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는 세대간 상향적 신분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4 민족정체성

필자가 2000년에 토론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한인에게서 민족동일사와 관련해서 세대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윤인진, 2001). 이민 1세와 1.5세는 자신을 캐나다인이라기보다는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민 2세는 자신을 한인이라기보다는 캐나다인에 가깝다고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이민 1.5세와 이민 2세의 1/3 가량은 자신을 캐나다인도 한인도 아닌 코리안 캐나다인(Korean Canadian)이라고 동일시하였다. 만약 자신을 '50% 한인'으로 보고한 사람을 코리안 캐나다인과 같은 범주로 취급한다면 이민 1.5세와 2세의 55% 가량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과 캐나다 중 어느 하나에 귀속할 수 없는 코리안 캐나다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한인으로서의 혈통 및 문화적 유산 이외에도 현지사회 또는 국가의 성원으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정

체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족애착과 관련해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팀과 캐나다 팀이 경기를 하게 될 때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와 “가족의 결혼 상대자는 누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올림픽 경기에서 응원할 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세대별로 비교하면 이민 1세와 1.5세는 압도적으로 캐나다 팀보다는 한국 팀을 응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배우자로서 선호하는 민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응답자의 다수가 한인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로 옮겨갈수록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의 생활영역을 직업선택, 친구관계, 이웃관계, 배우자 선정, 음식문화, 사고방식, 주거지역 선정, 대학교 전공 선택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민 1세는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이 생활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일, 친구와 이웃을 사귀는 일, 배우자를 정하는 일, 음식문화, 사고방식 등에서 자신의 한인 민족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영역에서 한인 민족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사는 지역을 정하는 일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민 1세가 자의반 타의반 캐나다사회에서 제공하는 생활기회구조에 참여하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비교해서 이민 1.5세와 2세는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한인 민족성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지 배우자를 정하는 일과 음식문화에서는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캐나다사회에서 제공하는 생활기회에 참여하고 향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5.5 재외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민족문화와 정체성, 사회문화적 적응 유형을 비교하면 <표 3>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3〉 재외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유형 비교

	거주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참여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					사회문화적
	직업	소득	교육	거주지	종교활동	민족어	족내혼	민족문화	민족정체성	적응유형
조선족	과거에는 벼농사에 종사, 타민족에 비교해서 2,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높음, 1980년대 이후 상업활동 증가	소수 민족 중 높은 소득	소수민족 중 높은 교육수준	과거에는 동북3성 농촌지역에 집중, 1980년대 이후 대도시로 이주 증가	과거에는 종교활동 미미, 개혁개방 이후 한국 개신교회 선교활동 활발	민족어 사용수준 높음, 최근 들어 젊은 세대의 민족어 상실 가속	족내혼 비율 높음	민족문화와 관습을 잘 유지, 실행	높은 민족동일시와 애착심, 이중정체성	과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 1980년대 이후 수용형 증가
고려사람	과거에는 벼농사에 종사, 1950년대 중반 이후 전문직과 관리직 진출, 최근 들어 상업활동 증가	소수 민족 중 높은 소득	소수민족 중 높은 교육수준	과거에는 농촌 한인집단농장에 집중,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증가	과거에는 종교활동 미미, 개혁개방 이후 한국 개신교회 선교활동 활발	민족어 사용능력 낮은 수준, 러시아어로의 언어동화 높은 수준	족내혼 비율 낮음	러시아문화에 동화, 중앙아시아 원주민 문화에는 동화 안됨	높은 민족동일시와 애착심, 이중정체성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 195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수용형 증가, 현재 동화형으로 전환 중
재일한인	과거에는 육체노동, 단순직에 종사, 196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종사자 증가, 자영업 비율 높음	과거에는 매우 낮은 수준, 점차 생활수준 향상	과거에는 낮은 교육수준, 현재는 일본 평균과 동일	이주 초기부터 대도시 집중, 점차 한인 밀집주거지역에서 분산	토속신앙, 불교, 기독교 혼재, 개신교회 선교활동 미미	민족어 사용능력 낮은 수준	족내혼 비율 낮음	1,2세는 일본문화에 저항, 3,4세는 동화	다양한 정체성 존재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 1960년대 이후 수용형 증가, 현재 동화형으로 전환 중
재미한인	이민 초기에는 농장, 단순직 종사, 1970년대 이후에는 자영업 참여 높은 수준	중상층 지위	높은 교육수준	대도시에 집중, 코리아타운이 점차적 약화, 근교화 활발, 코리아타운의 분산	한인교회 참여 높은 수준	2세 이후의 한국어 사용수준 낮음	2세 이후의 족내혼 비율 낮음	한국의 식생활, 명절 유지	강한 민족정체성과 동일시, 이중정체성	초기에는 고립형, 현재는 수용형 지배적, 2세 이후는 동화형으로 전환 중
캐나다한인	자영업 참여 높은 수준	중상층 지위	높은 교육수준	대도시에 집중, 코리아타운의 분산	한인교회 참여 높은 수준	2세 이후의 한국어 사용수준 낮음	2세 이후의 족내혼 비율 낮음	한국의 식생활, 명절 유지	강한 민족정체성과 동일시, 이중정체성	초기에는 고립형, 현재는 수용형 지배적, 2 이후는 동화형으로 전환

조선족은 과거에는 주로 벼농사에 종사하였으나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상업을 포함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민족에 비교해서 높아졌다. 소득과 교육면에서는 여전히 타민족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타민족에 대한 비교우위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거주지면에서는 과거에는 동북3성의 농촌지역에서 집성촌을 형성하여 살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도시와 연해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종교 면에서는 과거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종교활동이 미미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한국 또는 재미한인 개신교회들의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신교들이 늘어가고 있다.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와 관련하여 조선족의 민족어 사용수준은 여타 재외한인보다 높다. 족내혼, 민족문화와 관습의 유지 및 실행 수준이 높고 높은 민족동일시와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족은 과거에는 고립형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참여하면서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려 사람은 조선족과 같이 과거에는 주로 농촌 집단농장에서 벼농사에 종사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적인 직업, 즉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자영농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소득과 교육에서는 여전히 민족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젊은 세대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타민족에 대한 비교우위가 떨어지고 있다. 종교 면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구소련 체제에서는 종교활동이 미미하였지만 1990년대 초부터는 한국 및 재미한인 개신교회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개신교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이민 3,4세가 주류를 이루는 세대 구성으로 인해 러시아 사회문화로의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민족어 사용능력이 매우 낮고, 타민족과의 족외혼 비율이 높다. 하지만 언어,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람은 높은 민족동일시와 애착심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 사람은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용형이 증가하고 현재는 동화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재일 한인은 과거에는 육체노동, 단순직에 종사하여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 참여자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교육수준이 낮았으나 현재는 일본인 평균수준과 동일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거주지면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대도시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한인 밀집주거지역에서 분산되고 있다. 종교는 토속신앙, 불교, 기독교가 혼재된 상태이고, 개신교회 선교활동이 전체적으로 미미하나 뉴커머를 중심으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일한인의 일본 사회문화로의 동화수준은 타 지역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높다. 이는 이민 2,3세가 재일한인의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일본사회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일한인의 민족어 사용능력은 낮고 일본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타 지역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이는 세대뿐만 아니라 국적 및 이념에 따라 정체성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재일한인은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수용형이 증가하고, 현재는 동화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재미한인은 이민 초기에는 농장, 단순직에 종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의 신 이민자들은 주로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과 교육면에서는 미국의 타민족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중류층의 계층지위를 점유한다. 주거면에서 1970~1980년대에는 도심의 코리아타운에 한인들이 집중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교외화가 두드러졌다. 교외로 이주하는 한인들을 따라 교외에 코리아타운들이 작은 규모로 형성되었다. 종교 면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개신교회는 한인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한인의 60~70%가 교회에 출석할 정도로 종교 활동이 활발하다. 재미한인은 아직 이민 1세가 주류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문화로의 언어, 문화적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 2~3세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매우 낮고 이들의 타민족과의 족외혼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한민족으로서 강한 민족동일사와 애착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고립형이 우세하였으나 현재는 수용형이 지배적이고, 이민 2세 이후에는 동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캐나다 한인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현지에서의 정착이 최대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과 중산층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에서는 출신 배경에 상응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타민족에 비교해서 대체로 높으나 중류층 또는 중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미한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으나 교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코리아타운도 근교에 형성되고 있다. 이민교회는 한인의 중요한 신앙공동체이면서 사회문화적 조직이고 대다수의 한인들이 한인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직 이민 2,3세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캐나다 사회문화로의 동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 2,3세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낮은 수준이고 타민족과 혼인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애착은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수용형이 지배적이고 2세 이후에는 동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외한인이 거주국에서 보이는 사회문화 적응유형은 시기와 거주국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정착초기에는 고립형이 우세하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용형과 동화형이 증가한다. 둘째, 동일 재외한인 집단 내에 여러 적응유

형이 공존하고 민족정체성도 다중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적응유형은 이주세대, 계층,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이민 2,3세 이상, 중상층, 도시거주민들 중에서 수용형과 동화형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셋째, 주변화형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재외한인이 거주국이든 모국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소속감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주자의 신분으로 거주국 사회에 편입되고 거주국에서 인구와 권력 면에서 소수집단인 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화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색소수민족으로 다수 지배집단에 의해서 구별되고 차별받는 상황에서 한인은 거주국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은 거주국 사회의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신분상승을 추구하면서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의 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이민세대가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면서 한인의 가치정향성은 모국중심에서 거주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민 3,4세에게 민족문화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이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족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주국의 타민족인종과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민 3,4세는 민족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민족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유형은 수용형에서 동화형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재외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이 압축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물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에 연결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초국가주의이다. 여타 국제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외한인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문화접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유연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선족의 이주와 경제생활, 그리고 가족생활이 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자칫 거주국의 주류사회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재외한인 차세대에게 모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재외한인 차세대 중에서 한민족 정체성이 부흥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자신의 경력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재외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유형에서 공통점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주 초기에는 다수집단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한인 특유의 근면성과 신분상승에의 강한 욕구로 인해 점차 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한다. 비록 재외한인 중 하

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흑인, 멕시코, 푸에르토리칸처럼 영구적인 하류계층으로 전락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인들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상류층으로 진입한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서 결국 거주국 민족계층체계에서 중간계층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한인들로 하여금 정치, 군사, 공직분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의 소지가 적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자영업(자영농업 또는 자영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자영업 중에서도 현지 주류집단 성원이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인들은 주류사회의 계층구조에서 자신들이 타민족들에 비교해서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적소(niche)를 개발해서 제한된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이민1세가 자영업 등을 통해 축적한 물적자본을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2,3세대들이 전문직, 화이트칼라직업에 종사하여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자영업과 자녀교육 기회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들도 거주국의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이민역사가 짧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은 물론이고 이민역사가 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은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성은 단지 상징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결혼, 교우관계, 신앙 등 자신의 생활기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이들의 민족성은 전적으로 한민족의 혈통과 전통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집단적 경험이 함께 강조되는 이중정체성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초국가적 환경에서 재외한인은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개인과 가족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모국에서의 취업, 교육, 결혼 기회는 재외한인 차세대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모국에 대한 애착과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사회는 앞으로 세대, 이민 시기, 사회계층 등에 의해서 내적으로 더욱 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1세대와 차세대, 올드 타이머와 뉴커머, 노동자와 자본가, 코리아타운 거주자와 교외 거주자 등 상반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회집단 간 차이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부 집단 간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해서 재외한인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가 향후 재외한인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로 고립된 존재로 살아 온 각국의 재외한인들을 서로 네트워크 하여 공존공영의 협력체로서 한민족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4. 미래지향적 민족교육과 한국어교육의 방향

한민족이라는 공통의 민족정체성은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 요건이므로 무엇보다 민족정체성의 객관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를 보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히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 실행할 과제는 재외동포 차세대가 역량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지원, 한민족 네트워크의 강화,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증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의 모국 방문, 모국에서의 유학, 연수, 취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를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민족교육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모국어 구사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올판’이라고 하는 민족교육 및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다양한 수준과 지역의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올판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인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영토 안과 밖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도 지속적인 연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도 올판에 버금가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 차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추진 주체로는 한국학진흥연구원과 같은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 한국역사, 한국문화, 한국인의 사상 등에 관련된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 구성방식으로는 기본 내용의 골격을 만들어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즉 하루 프로그램, 2~3일 프로그램, 1주일 프로그램, 1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재 및 교구, 시청각 자료, 지도용 지침서 등을 전체 하나의 세트로 개발한다. 활용방안으로는 재외동포가 많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언어를 중심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한국관련 기관, 한국기업의 해외 사무소, 한국문화원, 한글교육기관, 교민회관, 국외 한국인 종교기관, 한국인 관련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한다. 프로그램 교육자 양성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 교육자, 한글학교 및 한국문화원 등 관계자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수자 혹은 진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가 이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역할

을 하거나 다시 이 프로그램의 교수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하지만 민족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되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문화배경과 학습욕구를 고려한 다문화적 민족교육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거주국에서 출생한 2·3세 재외한인에게 한국은 ‘외국’이고 거주국은 ‘자기나라’로 비쳐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은 이중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민족교육은 이들의 거주국에서의 경험과 시각이 주체가 되는 다문화적 민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익숙한 거주국의 문화와 역사를 모국의 문화와 역사와 비교대조를 통해서 양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통해서 양쪽 문화와 사회를 애정을 가지고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역시 우선 이중언어와 이중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세계화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약해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 민족교육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는 자기방어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의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인간개발이 되어야 한다. 우선 의식면에서 소수자로서의 주변적 위치를 원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류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직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편협한 자기민족주의를 벗어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교육은 인권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대인들이 백인지배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학문,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이중언어 능력과 이중문화 지식은 글로벌 세계체제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런 국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교육은 세계화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보처. 1995. 『광복 50주년 한민족공동체 의식조사』.
- 김강일. 2001.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연길: 연변인민출판사, pp.3-44.
- 김강일·허명철 편. 2001.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인민출판사.
- 김계르만. 1998.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의 당면 과제 및 전망.” 1998년 전남대학교 국제학술회

- 의 논문집. 광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20-32.
- 김응렬. 1990. “재일한국인의 사회적 기회: 사회적 제약과 규범의식.” 『재외한인연구』1호: 35-58.
- 김재국. 1996. 『한국은 없다』. 서울: 민예당.
- 권태환. 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서울: 통일원.
- 박광성. 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명규. 1996. “중양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중양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한국사회사학회 편,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1-54.
- 박명규 외. 1996.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건차. (하중문·이예숙 역). 1997. 『일본국민론』(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 _____. 1999. “21세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85-315.
- 윤인진. 1996.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1996. 『재외한인연구』 6호: 66-95.
- _____. 1999. “독립국가연합 한인의 민족관계에 관한 의식.” 『재외한인연구』 8호: 111-143.
- _____. 2001. “토론토 지역 한인의 생활과 의식.” 2001. 『재외한인연구』11호: 5-56.
- _____. 2002.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생활과 의식』. 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_____. 2003.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연구.” 『재외한인연구』13권 2호: 49-89.
- _____.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인진·임창규·배영준. 2007. “캐나다 한인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한국캐나다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10월 5일.
- 이광규. 1994. 『재중한인-인류학적 접근』. 서울: 일조각.
- _____. 2002.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서울: 백산서당.
- 이문웅. 1997. 『세계의 한민족 일본』. 통일부.
- 정성호. 1997. “중양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한국인구학』 20권(2호): 161-180.
- 정신철. 2000.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 정판룡. 1996. 『세계 속의 우리 민족』. 沈陽: 료녕민족출판사.
- 최우길. 1999. “중국 조선족과 한국: 특례법인과 관련해서.” 「재외동포 특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재외한인학회 주최. 서울 국회도서관 회

의실, 6월 4일.

_____. 2000.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위치와 역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경구. 2002.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일본.”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하)-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민족통합』.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pp. 91-149.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한백연구재단. 1998. “재외한인 한민족 공동체의식 비교연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지역” 『포럼 21』22: 5-30.

福岡安則 · 金明秀. 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日本: 東京大學出版會.

Hurh, Won Moo. 1998. *The Korean America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Kim, Illsoo. 1981.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n, Pyong Gap. 1993.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ch.9 in Ivan Light & Bhachu Parmmole (eds.). *Immigr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cations.

Patterson, Wayne. 1988.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Ryang, Sonia. 2002.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Review of Korean Studies* 4 (no.2): 55-86.

Statistics Canada. 2007. “The Korean Community.”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9-621-XIE/89-621-XIE2007014.htm>, date modified: 2007-08-28)

Yoon, In-Jin. 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Yu, Eui Young. 1983. “Korean Communities in America: Past, Present, and Future.” *Amerasia Journal* 10: 23-51.

Yu, Eui-Young, Peter Choe, and Sang Il Han. 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6 (no.1): 71-107.

Yuh, Ji-Yeon. 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이 선 근
뉴욕 한국어교육원장

1. 들어가는 말

1996년에 미국 대학교 입학시험과목에 한국어가 외국어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2009년 현재 87개 대학교에 한국어가 외국어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짧은 기간 안에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큰 발전을 보았다. 그리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 한국어를 응시하는 학생도 4,000명이 넘는다.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계 학생들만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한국학생들만 한국어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어가 아직도 고등학교 정규외국어과목에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때 명실 공히 한국어의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이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10여 년 전부터 일본어와 중국어를 세계화 시키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여 왔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 문제해결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뉴욕 일원에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뜻을 모아 2007년 10월에 한국어 정규과목채택추진회를 발족시키고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았다. 사업 추진을 통해서 부닥쳤던 문제점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동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공시킬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도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여기에 그 설명을 전개해 보려고 한다.

2.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1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1965년에 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아시아계의 이민자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서부터 한인들의 이민이 시작되었으며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도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초 한국학교로 세워진 학교는 1970년 4월 4일에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서 설립한 한인사회학교이다. 바로 이어 같은 해 5월에 텍사스 휴스턴 한인교회 한글학교, 1971년 7월에는 인디애나 주에 인디애나폴리 한국 학교, 동년 10월에는 미시간 주에 한인 인사들이 앤아버 한글학교를 세우면서 전 미국에 수많은 한글학교가 개설되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8년 사이에 미주 전역에 58개, 1980년부터 1989년까지 260개 학교, 1990년부터 1999년까지 390학교가 설립되었다. 설립연도가 미확인된 학교 수도 222개 학교나 된다. 재외동포재단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2월 말까지 전 미국에 세워진 한글학교 수가 1,038개 정도나 된다. 8,637명의 교사와 58,666명의 재학생이 있다. 미국에서의 한글학교 설립은 미국에 이민을 온 동포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뿌리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세웠기에 비용도 교사 채용도 교과서도 부모 자신들이 담당하였다. 모든 것이 불가능에서 한강의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한글학교의 반 이상이 미국에 있다. 동포들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2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하여 실시한 이중언어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어도 이중언어 교육 정책에 따라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이중언어의 한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국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한국어반이 많이 개설되었고 그 다음으로 뉴욕 시에서도 한국어반이 개설되었다.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05/31/09)에 의하면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가 현재 64개 학교이고 133개의 학급이 있으며 학생 수는 5,250명이다. 그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온 학생이거나 조기유학생 또는 한국인 2세들이다. 비한국계 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10% 미만이다.

2006년 가을학기에 한국어반이 개설된 학교는 California 주에 40개(Southern California 주에 38개, Northern California 주에 2개), New York 주에 12개, Washington 주에 3개, Illinois주에

3개, Maryland 주에 1개, Virginia 주에 1개, Michigan 주에 1개, Connecticut 주에 1개, Pennsylvania 주에 1개, New Jersey 주에 1개로 총 64개 중·고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강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규 필수외국어과목이 아니어서 전임교사 채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강 학생 수도 적고 학급도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교과서마저 맞는 것이 없어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금년 안에 한국어 진흥재단에서 준비한 한국어 교과서가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없는 것이다. 한국어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ESL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새로운 언어교육방법론이 1966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이원언어교육(Dual Language Program)이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California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언어교육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언어교육 방법론이다.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여 똑같이 모어처럼 구사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방법론이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하루는 영어로 다음날은 외국어로 전 교과목을 가르친다. 미국 전역에 현재 수백 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데 그중 뉴욕을 예로 든다면 뉴욕 시에만 76개 초등학교에서 이 언어교육방법론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 언어로서는 중국어가 6개 학교에서, 한국어는 1개 학교에서 3년 전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아서 금년 9월 학기부터 1학년을 늘리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를 1명을 더 채용하여 1, 2, 3학년에 한국어반이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시가 주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뉴욕 시 교육청에 접촉하여 이원어교육 한국어반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앞으로 정규 한국어반 개설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그것도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어반을 늘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2.3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미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59년에 Columbia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개설한 것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한국학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다가 한국의 경제 부흥의 힘을 얻어 10여 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지만 본격적인 한국어 붐은 1996년 한국어가 미국 대학교 입학시험 SAT II 외국어 과목에 채택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특별히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택하게 되었다. AATK(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에 의하면 87개 대학교(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도 10-20여 개 학교가 된다)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 중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를 개설한 학교가 9개, 한국어, 한국 문화 강좌를 개설한 학교가 12개,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화 강좌를 모두 개설한 학교가 19개이다.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대부분이 한국계 학생들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아직도 필수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외국어,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가 국제 언어가 되려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필수 정규 외국어 과목이 되어야 하며 한국학 전공자도 많은 비 한국계 학생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3. 미국의 언어 정책

미국은 2000년에 Flagship Scholarship(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을 발표하면서 9개 외국어 안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고, 2004년 Bush Grant의 Flap Grant(Foreign Language Assistant Program) 6개 외국어 안에도 한국어를 넣었으며, 2008년의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10개 언어에도 한국어를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언어의 하나로 한국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도 재미 동포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재정 지원과 외교 활동으로 미국 정부와 접촉을 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어반 1,000개, 일본어반 700개를 개설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뉴욕 인근 동포 학자들이 모임을 갖고 한국어를 중·고등학교에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시키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후 바로 추진회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4. 일본과 중국의 국어 세계화 정책

California Los Angeles에 있는 Japan Foundation은 해외 일본어 세계화 진흥을 전담하는 기구로 일본어를 미국 학교 교육에 핵심 외국어로 정착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고 New York시에 있는 Japan Foundation은 일본 문화 세계 진흥을 전담하는 기구로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자리매김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다. Los Angeles Japan Foundation은 일본이 세계 경제 강대국인 것을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정규 외국어 과목의 가장 중요한 언어로 자리를 잡게 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고등학교 일본어 수강생의 다수가 미국 학생들

이며 대학 진학을 한 후에도 계속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8년 말 현재 일본어를 개설한 학교 수가 700개가 넘고 수강생 수도 40,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Hanban기관은 중국어 세계화 진흥을 전담하는 기구로 언어 보급 진흥 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교사 양성, 중국어 반 개설, College Board 재정 지원, 미국 주 교육청 외교 접촉 및 중국어 개설 협조 요청 등을 하여 중고등학교에 중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시키는 데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8년 사이에 1,000개 학교에 중국어반을 개설하고 7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말에도 중국어가 AP과목에 채택된 것에 감사하는 표시로 College Board에 1,000만 불을 지원해 주었고 중국어 교사와 교수들을 대거 중국에 초청을 하여 연수를 시키는 사업마저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정부 3개 부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진흥 사업을 관장하여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교육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교과서와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담당하여 왔고 문화관광부는 국어세계화추진회,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및 한국어진흥 재단(L.A.에 있음)을 통해 교재 편찬과 교사연수 사업, 재외 한글학교를 지원하여 왔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세계 대학교 한국학 지원과 한글학교 지원 및 한국어 반 개설을 위한 교장 초청 연수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관장해 오고 있지만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 미국에서의 한국어의 세계화 계획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다. 한국어진흥재단 2008년 통계에 의하면 67개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반이 개설되어 있고 5,000명의 수강생이 있다. 이 67개 한국어 반도 정규 필수 외국어 과목이 아니고 교양 선택과목이어서 한국어 기초반을 만들 수 없어 미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수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5.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설립 배경

미국은 2000년에 National Flagship Language Initiative(NFLI)법안이 통과되면서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을 발표하고 9개 외국어 안에 한국어를 포함시켰고, 2004년 Bush Grant의 Foreign Language Assistance Program 6개 외국어 안에도 한국어를 넣었으며, 2008년의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10개 언어에도 한국어를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언어의 하나로 한국어를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어를 중요시보고 있는데도 재미 동포와 한국 정부는 구경만 하고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9년 사이에 엄청난 재정 지원과 외교 활동으로 미국 정부와 접촉을 하여 중국어반 1,000개, 일본어반 700개를 각각 개설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된 뉴욕 인근 동포 학자들이 모임을 갖고 한국어를 미국 중·고등학교에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시키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고 2007년 10월 20일에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를 발족시켰다.

5.1 설립 목적과 역할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우선 미국 중·고등학교에 정규 한국어반 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K13(유, 초, 중, 고)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각 교육 기관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본 추진회의 역할로 삼았다.

5.2.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을 위한 전략

지난 30년 사이에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경제 13대 강국이 된 한국은 이런 발전에 발맞추어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위치에 있다. 언어는 문화의 핵이기에 한국어가 국제 언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회는 세웠다.

- 1)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배출
- 2) K16 교과과정에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학교를 증가시키고 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3) 한국어의 적절한 교과과정, 교재, 평가 방법과 현대 언어 교수법 이론을 사용한 교수법 개발 및 연수

6. 한국어정규과목 개설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

추진회는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을 위해 2008년 사업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다.

6.1 회원 확보 운동과 모금 운동

회원(연 \$20이상) 등록 운동을 한인 학부모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모금 운동도 전개시켜 한국어 교사 양성과 한국어반 개설 추진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은 범 동포적으로 확대해야 소기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에 교회나 사회단체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으며 한국인 2세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에 등록 운동을 벌였다. 현재까지 249명의 서명을 받았고 \$44,000을 모금하였다.

6.2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기초 조사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사업과 차세대 한국어 교사 배출 추진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심층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해부터 시작한 제1차 조사에서 뉴저지 Bergen 카운티 안에 1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25% 이상 재학하고 있어 한국어반 개설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학교에는 재학생 50%가 한국인 2세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한국인 교사도 수십 명이 현재 근무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계 학생들 대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이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한인 교사들도 우수한 교사로 좋은 평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뉴욕 주에 있는 학교 조사에서는 한국계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는 뉴욕 시 안에 10개 학교가 있었고 이미 선택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어 가르치고 있었다. 몇 개 학교에서는 새로 이민 학생이 줄어들어 한국어반을 폐쇄한 학교도 생겼다.

6.3 한국어 교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단기 교육 실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TESOL이나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을 갖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현재 한국어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현재 사범 대학원에서 TESOL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등 한국인 5명을 선발하여 2008년 9월 학기부터 Rutgers University에 개설되는 단기 한국어 교사 자격 프로그램 과정에 입학시켜 과정을 수강토록 하였다. 이 교육은 2010년 봄 학기까지이며 수료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가능하면 2010년 9월 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주 교육청의 도움도 요청하려고 한다. 지난 6월 말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한국어교육과정 과목도 수강하였다.

6.4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학과 New York University에 개설 추진

정규 한국어 반 개설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석사과정)을 뉴욕대학교 사범대학 안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뉴욕 대학교 사범대학원 담당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2009년 5월 29일에 외교통상부 소속 국제교류재단 박준구 이사와 같이 뉴욕대학교 담당 책임 교수와 만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여름 방학부터 교육과정의 준비와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학교 측 심의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6.5 Hi Hangeul(Teen Club) 특별 강연회 개최

한인 2, 3세들에게 뿌리 찾기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인 1.5세 또는 2세로서 현재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이 어떻게 자기 전공을 택하였고 대학교와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경험담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강연회를 4회나 개최하여 한국인 정체성도 심어주고 한국인의 긍지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이 틴(Hi Teen)은 제1회 강연회의 강사로는 뉴욕 고등법원 판사 Danny K. Chun(전경배), 제2회는 뉴저지 에디슨 시의 시장인 최준희 시장, 제3회는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의 초대 회장 홍성철 변호사, 제4회는 타이거 아시아 황성국 사장, 제5회는 ABC 방송국 앵커우먼인 Juju Chang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7.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개체 학교에서 개설을 원하여도 주 정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가능하며 주 정부 교육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정규외국어 과목으로 지정을 하였어도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없으며 교과서도 없다고 하면서 개설 예산을 주지 않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정규 한국어반 개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중국 정부나 일본처럼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 같다. 더구나 지난 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한국어반 개설 추진 사업에 큰 제동이 걸렸다. 예를 들어 뉴욕 시는 시 예산 안에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15% 이상 삭감시켰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도 바로 그 영향이

끼치게 되어 기존 외국어 과목도 잠정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다.

한국 학생이 7%(250여명)나 재학하고 있는 Stuyvesant High School은 선택과목으로 몇 년 동안 가르쳐 온 한국어 반을 이번 9월 학기부터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West East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에서도 2년 전에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 학생들을 이번 9월 학기부터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여 교사는 물론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다가 학부모들이 후원금을 모아 뉴욕 시 교육청에 전달하고 한국어 교육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다행히 해결되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으로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산이 삭감되어 기존 외국어 과목도 폐쇄하려는 학교나 주 정부 교육국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더 쉽게 한국어반을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개설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중국이 자기 언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되도록 미국 주정부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정부가 투자한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Palisade Park시 교육국은 정규 한국어 반을 개설하기 위하여 FLAP(Foreign Language Assistant Program)grant를 신청하고 얼마 전에 추진회 임원을 초청하여 한국어 교사 지원 여부 가능성을 문의하였다. 그리고 뉴욕 시 Bronx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한국어 반을 개설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규 한국어반 개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필수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 시키려는 목적이 우리 한인 2세나 후손들에게 뿌리 교육과 정체성을 얻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한국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8.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제언

한국어의 세계화 추진은 한국의 선진화 사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세계가 우리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미국 정부가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주말한글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고등학교 교육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시키는 일은 한인 동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성취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기업체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한국 정부의 도움이 꼭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9년 전에 동양 언어가 미국 안보에 필요한 언어라고 발표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국 언어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제 침체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 정부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업은 뉴욕에서 시작했지만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가 미국에서 정규 외국어 과목이 된다면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뒤쫓아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한국어의 세계화가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이선근(2003),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SAT II 한국어, 대뉴욕한인 100년사.
이선근(2007), 재미동포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447-468.
손호민(199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09-142.
www.klacusa.org, 한국어진흥재단.
www.aatk.org,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www.korean.net, 재외동포재단.

남북 언어 규범의 차이와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

김영수

연변대 조선-한국학학원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세계 조선어(한국어)의 한 갈래로서 그와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1945년 8.15광복 전까지 모든 조선민족은 다 같이 1933년 조선어학회 공포 『한글맞춤법』과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등에 준하여 서사생활과 언어생활을 진행하여 왔기에 조선, 한국과 중국 조선어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광복 후 조선에서는 재래의 표준말과 평양말을 위주로 평안도, 함경도 방언을 곁들인 새로운 “문화어”를, 한국에서는 재래의 표준말과 중부방언을 위주로 경상도, 전라도 방언을 곁들인 새로운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약 190여 만 명으로서 중국 총인구의 0.15%를 차지하는데 56개 민족 가운데서 13번째 순위에 있다. 그 분포 상황을 보면 길림성에 100여 만 명, 흑룡강성에 35여 만 명, 료녕성에 20여 만 명이고 산해관 이남에 30여 만 명이 있는바 해방 후 중국 조선족들은 재래의 표준말과 동북방언을 위주로 한어식 말을 곁들인 중국 조선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 제4조에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민족정책 하에 자체의 민족교육체계를 이루고 언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조선어의 계승과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학술단체를 만들어 연구 활동도 진행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조선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단위로 방송국 23개, 출판사 6개, 예술단체 10여개가 있으며 조선 언어문자로 발간되

는 간행물로 신문 15종, 잡지 30여 종이 있고 소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567개 학교에서 조선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상술한 조선어문 사용 분야들에서는 1992년 중한 수교 전까지는 조선의 규범과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중국 조선어규범에 따라 출판, 보도, 교육 등을 진행하여 왔으나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별반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반 세계가 지구촌으로 집착되고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중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밀접해 지면서 중국 조선어는 규범 통제력의 약화, 표기 혼란 등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었다.

중국 조선어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은 주로 남과 북의 규범이 다른 데서 인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남과 북의 규범의 주요한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조선어 사용실태와 규범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에 관한 견해를 내놓으려고 한다.

1. 남북언어 규범의 몇 가지 차이

남북의 언어규범을 비교해 보면 일치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표준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 그 차이가 바로 중국 조선어의 사용에 혼란을 빚어내는 근원으로서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1 두음법칙에서 생긴 차이

남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락원-낙원, 녀자-여자” 등과 같은 표기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1.2 사잇시옷 표기에서 생긴 차이

남에서는 사잇시옷을 직접 표기하지만 북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가-내가, 해빛-햇빛” 등과 같은 표기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1.3 띄어쓰기에서 생긴 차이

남과 북은 띄어쓰기는 모두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쓴다는 총적 원칙은 같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남에서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많이 하고 북은 상대적으로 붙여 쓰는 경향이 짙은바 불완전 명사(의존명사), 보조용언, 수사,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등의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불완전명사(의존명사):

예: 좋은것, 떠난지, 학교앞에, 말뒤에, 처마끝에, 5시, 두살, 다섯개, 세마리 (북)/ 좋은 것, 떠난 지, 입을 수, 인민대중 속에, 대문 밖에, 걸어갈 제, 여덟 마리, 일곱 대 (남)

▶ 보조 용언:

예: 읽고있다, 읽고싶다, 찾아보다, 써놓다(북)/ 도와 드린다, 아는 척하다, 잊어 버리다, 읽 어 보다(남)

1.4 외래어 사용에서 생긴 차이

남은 세계화로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고유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북은 주체사상의 지도 하에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외래어를 받아들이며 될 수록이면 고유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문 용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 종자집뿔개-내피외층, 암피테시움, 자낭반벽(amphithecium), 뼈도드리, 뼈끝부-골기, 골돌기, 아포피시스, 용기부, 지낭, 후구음편(apophysis), 세포죽음-세포자살, 아포토시스(apoptosis), 역꿈틀운동-역연동(antiperistalsis), 꼭대기띠-정단고리(apical ring), 부동짜씨-부동배우자 (aplanogamete)”, “염색체가로무늬-밴드(band), 악틴섬유-액틴필라멘트(actin filament), 음이온통로-음이온채널(anion channel), 역균향체-아블라스틴(ablastin), 초산염-아세트산염 (acetate), 초산-아세트산(acetic acid), 초산화-아세트화작용(acetification)”

이 외에도 “자모음의 배열순서, 문장부호법” 등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술한 몇 가지 규범에서의 차이들이 중국 조선어의 규범과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 조선어의 규범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교착되면서 아직까지 견해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 중국 조선어 사용 부문들의 규범 실시 상황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8월 흑룡강성 해림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1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어맞춤법, 조선말띄어쓰기, 문장부호법” 4법을 채택하고, 11월에 『조선말규범집(의견청취고, 초고, 시용방안)』(동북3성조선말규범집집필소조 편집)이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1983년 8월 할빈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6차 실무회의에서 채택되어 1985년 1월에 『조선말규범집(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판공실)』이 정식 출판되었다. 그리고 80년대 출판된 『조선말소사전』(연변언어연구소 1980), 『조선말맞춤법사전』(문창덕, 류은중, 박상일 1981) 등 사전들도 역시 중국 조선어 서사규범에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7차심사회의에서 중국 조선족 자체의 『외래어표기법』세칙이 채택되었고 1996년에 또한 『조선말규범집(수정보충판)』(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판공실)출판되었다. 최근2007년 동북3성 조선어문협의소조 설립30돐을 맞이하여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편 『조선말규범집』(연변인민출판사)에 출판되었는데 이는 1996년에 나온 『조선말규범집』(수정보충판)을 바탕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보충하였다. 규범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 것이므로 국내 조선어사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조선어문사용 부문들에서 조선어규범을 실시하는 상황이 구경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8월에 대학교를 망라한 중소학교와 신문, 방송 부문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규범의 집행과 보급에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

중소학교의 상황을 보면 교과서를 출판하는 연변교육출판사의 영향으로 조선족 교육은 대체적으로 중국 조선어규범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규범화의 관철에 있어서는 허다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중국 조선어로 학생을 가르치는 중소학교 교원 47명을 대상으로 “중국조선어규범이 실제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에 47명 중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11명(23%)이 되고, 중국 조선어 규범화의 내용 4칙 즉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 교원은 2명뿐이었으며, “조선어규범화의 기준이 자체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12명뿐, “평양이나 서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35명(74%)이나 되었다.

연길시의 공원소학교, 연신소학교, 3중, 13중의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선어규범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조선어 띄어쓰기 장악정도를 조사해보았는데 “대명사와 체언 사이, 동사와 보조동

사 사이, 명사와 의존명사 사이, 뜻이 같거나 비슷한 부사와 부사 사이, 수사와 단위명사 사이” 등에서 중국 조선어의 규범에는 맞지 않고 한국의 규범을 따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위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의 원인은 중소학교 교원 자체가 중국 조선어의 규범을 잘 모르는 데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원인은 한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한 수교이후 한국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한국의 많은 “아동도서, 드라마, 가요” 등이 초등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규범의 영향을 받아 중소학생들의 조선어 사용에서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어휘나 맞춤법에서도 한국식도, 중국식도 아니게 쓰는 현상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한마디로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중국 조선어규범을 따르면서 한국어 규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신문, 잡지, 방송, 출판” 등 매체들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여 중국 조선어의 4칙규범을 지켜면서 어휘사용 면에서 한국식을 따르는 것도 있고 아예 한국규범을 따르는 매체들도 있다.

우선 조선문도서출판단위들과 잡지 그리고 조선말종합신문들인 《연변일보》,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등은 중국 조선어 4칙규범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어휘사용에서는 한국어의 영향으로 수많은 외래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심지어 한 신문에서 서로 다른 외래어들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다음 한국어 규범에 치우치는 매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위들로는 연해지구를 상대로 발행하는 부문들로서 아래와 같다.

이름	사용범위	독자대상
《흑룡강신문》(주말신문)	90%이상	북경, 상해, 청도 등
《길림신문》(동북저널)	90%이상	북경, 상해, 청도 등
《경제생활》(순간잡지)	90%이상	북경, 천진
중국국제방송국	80%이상	중국국내와 해외
흑룡강조선어방송국	혼용	중국국내와 해외

흑룡강조선어방송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도 공식적으로는 중국 조선어규범의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한국 KBS에 연수를 다녀왔기에 한국식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짙었다.

민족출판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한 조선-한국학 관련 도서 30권의 맞춤법 사용정황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어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 15권으로서 50%, 한국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 9권으로서 30%(그 비례는 2004년 후부터 늘어나고 있는 편), 중국 조선어 규범과 한국 규범이 혼용되어 쓰인 것이 6권으로서 20% 차지했다.

이밖에 북경, 천진, 상해, 청도, 대련 등 지구의 일부 기관과 단위,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간행하는 신문과 잡지, 광고물들이 많은데 거의 다 한국어 규범을 따르고 있다.

3. 중국 조선어 사용에서의 문제점과 규범의 필요성

근 반세기 동안 중국은 북과 비슷한 중국 조선어규범을 실시하다가 최근 10여 년간 남의 영향이 날 따라 커지면서 중국 조선어 규범화와 사용에는 일련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3.1 한자 혼용 문제

중국의 조선어는 일찍 50년대 초에 한자혼용을 취소하고 조선문 전용을 채택하기로 규정하였는데 지금 한국의 영향을 받아 일부 조선문 신문과 잡지들에서 한자혼용을 다시 씀으로써 조선족 독자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간자체와 번자체를 혼용하여 씀으로써 한국규범도 아니고 중국 조선어의 규범도 아닌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3.2 규범의 혼란과 통제력 약화 문제

한국 어문규범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어의 규범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통제력이 약화되어 우리 말과 글의 사용에서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적지 않은 신문, 방송 등 매체들에서 중국 조선어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한국과 중국 조선어의 규범을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텔레비전, 신문, 잡지, 도서,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중소 학생들의 작문들에는 한국식도, 중국식도 아니게 어휘나 맞춤법들이 틀리게 쓰이는 현상들이 대폭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사용은 조선어 사용자들에게 필요 없이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데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문제로 되었다.

3.3 외래어 범람 문제

중국 조선어는 전에는 외래어에 대하여 시종 고유어거나 한자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될수록 외래어를 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외래어를 많이 쓰는 한국의 영향으로 신문, 보

도 매체들에 외래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조선어 사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3.4 중국 조선어 규범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조선족 앞에는 규범화와 정확한 보급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의시일정으로 나서고 있다. 언어가 발전하자면 규범화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규범화 표준은 동태적 원칙 위에서 건립되므로 반드시 언어사용 가운데서의 새로운 변화와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적 요소와 각종 사회적 요소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흔히 언어현상의 변화 발전의 배경과 그 변화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을 보아내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규범화 작업에서 실제에 부합되는 정확한 표준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과 한국의 규범이 다르고 남북 사이의 언어적 차이가 점점 심해져 이질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고 중국의 조선어도 중국어의 영향과 한국어의 영향으로 규범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사회의 언어생활을 자연 발생 상태에 내맡겨 둔다면 멀지 않아 중국 조선어 내부에서의 혼란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과 한국과의 언어교류에도 막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의 조선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규범이 수요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원칙에서 규범을 제정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4. 규범에 대한 견해 및 규범원칙 제정 방안

새 시기에 들어와 조선족 사회에서는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사업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범화의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들이 있다.

첫째는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이 활발해진 한국의 규범을 절대적으로 따르자는 견해이고 둘째는 조선과 한국에 통일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어규범을 계속 고수하다가 앞으로 조선과 한국에서 통일규범이 작성되면 그 통일규범을 따르자는 견해이며 셋째는 조선과 한국의 통일규범이 나오더라도 국정이 다르기에 중국 조선어규범은 자체의 특성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남과 북의 규범이 다른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어가 어떤 규범 원칙과 세칙을 세우는가는 중국 조선족의 운명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중국 조선족의 의사소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 세계 조선민족과의 의사소통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바 한 지역의 언어실태도 존중해야 하고 세계 전체 민족의 언어현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규범원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선과 한국의 규범원칙과 실태를 조사, 연구한 후에 될수록 그들과의 차이를 줄이고 공동성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민족어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는데 유익하며 경제, 문화교류에도 유익하게 될 수 있다.

이 총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따라 4칙과 어휘규범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들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첫째로, 한국과 조선의 규범이 일치한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한국어와 문화어 그리고 중국 조선어의 공동성분을 늘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간혹 우리의 것이 다르더라도 포기하고 조선과 한국을 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과 조선에서는 한 조항의 규정에서 예외적인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그 조항의 [붙임1.2.3..]의 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중국은 <<*>> 표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과 조선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한국과 조선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될수록 합리한 쪽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두음법칙이거나 사이시옷의 표기는 남북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중국의 실정으로 보아도 계속 현유의 규범을 견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하다.

셋째로, 한국과 조선에서 각기 달리 쓰이는 말들이 각기 조선어의 단어조성법에 맞고 의미표달이 명확하면 형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다 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규범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현재 남북에서 편찬하는 <<겨레말사전>>도 이런 원칙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섯째로, 어휘처리에서 지나친 고유어화, 한자어화와 외래어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조선에서의 말다듬기에는 합리한 부분도 많지만 지나친 부분도 있는데 이를 테면 “나귀”를 “하늘소”로 다듬었다든가 “입쌀”, “이밥”을 “흰쌀”, “흰쌀밥”으로 고친 것들은 되려 우리의 언어생활에 폐단을 주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나치게 외래어를 받아들여 훌륭한 고유어와 한자어휘들이 밀려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역시 따를 바가 아니라고 본다. 이를테면 “안혜”, “개업”, “열쇠”와 같은 고유어와 한자어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오픈”, “키”와 같은 외래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본받을 바가 아니다. 그리고 한어어휘를 우리말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재래의 조선어 한자음 독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 한자어휘는 우리뿐만 아니라 조선과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편인데 어느 일방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중국 실정에 불가피하게 쓰이는 한자 어휘들은 우리 스스로 규범하고 한국과 조선에서도 받아들이게끔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의해 생기는 중국 조선어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것은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없다. 마땅히 중국 조선어가 부딪친 현실을 정시하고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 시대의 조류에 적응하고 발전에 유리하게 하여야만 중국 조선어는 올바른 궤도에 오르고 발전할 수 있다.

중국 조선어 규범화 및 중국 조선어의 정확한 사용과 보급에 있어서도 중국 조선어규범이 흔들리는 현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가장 정확한 규범화의 원칙을 세우고 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언어사》, 민족출판사, 1995
- 연변대학조선언어문화연구소 편, 《korean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인민출판사, 1997.6
- 연변언어연구소 편, 《조선어연구》(1),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5
- 연변언어연구소 편, 《조선어연구》(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8.9
- 연변언어연구소 편, 《조선어연구》(5),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12
- 전학석 주필, 《중국조선족언어문자 교육 사용 상황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00.4
- 최윤갑 주필,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2.6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과 언어 사용 양상

조 의 성
일본 동경외대

1. 머리말

1.1. 목적

본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족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금의 민족어 교육이 어떤 상황인가에 관해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또 하나는 재일교포가 사용하는 민족어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어가 일본어인 재일교포가 구사는 민족어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속에 섞여 쓰이는 민족어 어휘에 관해서도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1.2. 재일교포에 관한 개관

재일교포는 일본에 도향한 시기에 따라 ‘구 교포’(old comer)와 ‘신 교포’(new comer)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하여 구 교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며, 신 교포는 해방 후에 일본인과의 혼인 등으로 인해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따지면 구 교포는 1945년 9월 3일¹⁾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후손

1)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다음날이다.

들이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영주 자격’²⁾이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한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재일교포는 약 60만 명 정도이며, 그중 구 교포는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구 교포와 신 교포는 생활 습관이나 언어생활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고찰하기는 어렵다.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은 구 교포가 반세기의 세월에 걸쳐 정비해온 것이며 거기서 사용되는 민족어의 화자는 구 교포이기 때문에 민족교육과 민족어 문제를 논의하려면 구 교포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구 교포에 한정해서 언급하기로 한다³⁾.

현재, 재일교포의 본적지별 통계는 공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95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표 1>과 같다. 경남, 경북 합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출신자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재일교포의 출신지별 인구 비율은 현재도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재일교포의 본적지별 인구(1959년 법무성 ‘체류외국인 통계’⁴⁾)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경상남도	231,352	38.08	충청북도	12,377	2.04
경상북도	153,636	25.29	경기도, 서울시	9,707	1.60
제주도	85,036	14.00	강원도	6,530	1.07
전라남도	62,132	10.23	기타(이북)	10,342	1.70
충청남도	14,017	2.31	불명	8,407	1.38
전라북도	13,997	2.30	총계	607,533	100.00

2. 민족교육의 역사

2.1. 해방 직후의 민족학교와 한신 교육투쟁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은 1945년 8월 15일의 조국해방 직후에 일본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서당식의 ‘국어강습회’가 그 효시다. 국어학습 운동은 1946년에 들어 조선(재일본 조선인

2) 구 식민지 출신자(한반도 출신자와 대만 출신자)와 그 후손들에 대해 그 역사성을 감안하여 일반영주 자격과 달리 부여된 영주 자격을 ‘특별영주 자격’이라 한다.

3)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재일교포’, ‘교포’라 하면 구 교포를 지칭하기로 한다.

4) 모리타(1996:39)에서 다시 인용.

연맹)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4월에는 초등학교, 10월에는 중등학교 등 ‘조선인학교’를 창설했다. 조련은 교육 방침을 세우면서 독자적인 학교를 인가 제도를 도입⁶⁾, 교과서도 독자적으로 작성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학교 형태는 일본정부가 관할하는 정규 학교⁷⁾가 아니었다.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GHQ(연합군 총사령부)⁸⁾는 좌익적인 조련이 관할하는 조선인학교를 ‘이적(利敵) 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탄압 정책을 취했다. 교포의 민족교육에 대해 일본정부는 1948년 1월 24일에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내려 (1) 교포 자녀를 일본인학교에 다니게 하며⁹⁾, (2) 교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현(縣) 지사(知事)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3) 기준 미달의 민족학교를 제한, 폐쇄시키는 것이었다(제1차 폐쇄령).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포들은 민족교육을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생각하여 조련은 ‘조선인교육 대책 위원회’를 조직해서 반대운동을 각지에서 벌였다. 특히 한신(오사카-고베) 지방에서 벌어진 반대운동은 아주 극렬했고 4월 26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린 교포 15000명 집회에 대해 일본 경찰이 발포하여 김태일 소년(당시 16세)이 경찰의 총탄에 쓰러졌다(한신 교육투쟁). 그리하여 5월 5일에 조련 조선인교육 대책 위원회와 일본 문부성은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합의를 교환해서 투쟁은 매듭지어졌다.

2.2. 제2차 학교 폐쇄령과 민족학교

일본정부는 1949년 9월에 조련을 강제해산시키고, 10월 13일에는 교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며 인가받지 않는 조선인학교를 폐쇄한다는 각의(閣議) 결정을 했다(제2차 폐쇄령). 이때 문부성은 조선인학교 337군데 중 92군데를 조련의 직접 운영이라는 핑계로 즉시

5) 좌익 인사들이 중심으로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한 최초의 재일교포 단체. 조련에 반대하는 우익 인사들은 1년 후인 1946년 10월 3일에 재일본 조선 거류민단(현재의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을 결성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 좌익 운동은 민주적 운동, 진보적 운동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어, 조련은 대부분의 재일교포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민중적인 교포단체로서 존재했다.

6) 인가 받은 학교는 ‘조련 ○○ 초등학교’처럼 공통된 명칭을 사용했다.

7) 일본의 정규 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된 학교를 이른다. 조선인학교는 학교교육법의 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 보면 ‘학교’가 아니라 그저 ‘민간 교육 기관’에 불과한 셈이다.

8) 일본은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의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연합군의 점령 밑에 놓이게 되었다. 연합군에 의한 점령 시대에 일본은 형식적으로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GHQ의 간접 통치를 받았다. 점령은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끝났다.

9) 재일교포는 해방 후에도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유지되었고 교포가 일본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947년 5월에 외국인등록령을 발령하여 구 식민지 출신자(즉 조선인, 대만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인과 대만인은 이중 기준이 적용되었다. 취급의 적용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자의적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사정에 맞게 어떤 때는 일본인으로 취급되고 어떤 때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폐쇄시키고, 나머지 245군데 학교에 대해 사립학교로 개편을 촉구했다. 245군데 학교 중 128군데는 개편에 응했으나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불과 2군데였고¹⁰⁾ 남은 126군데는 심사 불합격으로 폐쇄되었다. 또 개편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17군데 학교는 모두 폐쇄되었다.

동경에서는 제2차 폐쇄령 후에 민족학교가 일본의 공립학교로 남는 길을 택했지만 ‘공립학교’라는 것은 바로 ‘일본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뜻한다. 동경 교육 위원회는 교포에 대해 민족교과를 과외 수업으로 하고, 학급 담임교원을 일본인 교원으로 삼고, 교수 용어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등 갖가지 요구를 하면서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시킨다고 선고했다. 이와 같이 공립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다.

민족학교를 유지하지 못해 학교를 폐쇄한 곳에서는 그 대신 일본인학교 속에 ‘민족 학급’을 만들어 방과 후에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취했다¹¹⁾.

이와 같이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에 걸쳐 민족교육은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에 걸쳐 민족학교 수와 학생수, 교원수의 추이이다.

〈표 2〉 조선인학교의 수적 추이(林慶植 1989:322)

	소 학교			중 학교			고 등 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47	541	46210	1250	7	2761	95	-	-	-
1948	561	56210	1196	7	2330	115	-	-	-
1949	288	32368	955	16	4555	165	3	364	50
1952	154	14144	327	17	2914	110	3	570	54

1952년,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1945년 이래 계속되었던 연합국에 의한 점령이 끝나 정식으로 독립국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에 맞춰 동경 교육 위원회는 1953년 10월 4일에 “1955년 3월 31일로 공립 조선인학교를 폐쇄한다”는 통고를 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만을 수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변칙적’이라 이와 같은 조선인학교의 운영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55년 4월부터 조선인학교는 각종학교¹²⁾로 인가를 받고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10) 그 중 하나는 지금도 정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백두학원(건국학교)이다. 이에 대해서는 2.2.도 참조.

11) 민족 학급은 주로 한신 지방에 많았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12) 일본 학교교육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각종학교로 규정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학원’류 가 말하자면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각종학교는 정규 학교와 비교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 대신, 교과 과정 면에서 정규 학교는 일본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한편 각종학교는 어느 정도 자유롭

에는 이와 같이 많은 민족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운영되게 되었다.

2.3. 총련 결성과 민족학교

1955년 5월에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총련)이 결성되자 대부분의 민족학교는 총련 산하로 들어갔다¹³⁾. 총련은 조련의 민족교육 중시책을 승계하고 민족학교를 적극 지원했으며 1956년에는 조선대학교를 개설(2년제, 1958년에 4년제로 개편)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일관된 민족교육 기관을 마련했다. 총련 산하 학교는 1967년에 94군데 학생수 35589명으로, 큰 융성을 보였다.

그런데 1960년대쯤부터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총련 산하 학교에서도 사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자, 그 교육 방침에 대해 교포들의 반발이 일어나 민족학교를 기피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그 결과, 1981년에는 학생수는 22940명까지 줄어들었다(朴慶植 1989:398). 학생수의 감소 경향은 그 이후도 계속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총련은 교육의 개혁에도 착수했으며, 2003년도부터는 새 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상교육적인 내용을 줄였다.

3. 민족학교의 현황과 민족어 교육

3.1. 민족학교의 현황

민족학교에는 남한계(민단계) 학교와 북한계(총련계) 학교가 있다¹⁴⁾. 북한계 학교는 총 68군데가 있다¹⁵⁾. 2.3.에서 보았듯이 1955년 이후에 총련의 산하로 들어간 학교들로,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민족학교가 북한계 학교에 속한다.

〈표 3〉 민족학교의 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남한계	2	3	4	4	0
북한계	3	58	34	10	1

계 교과 과정을 짤 수 있다.

13) 총련 산하의 학교들은 일본 국내에서 흔히 ‘조선학교’라 불린다.

14) 일반적으로 남한계 학교는 ‘한국학교’, 북한계 학교는 ‘조선학교’라 불린다.

15) 북한계 학교의 수는 규슈 조선 중고급학교 홈페이지의 기술에 의거했다. 한 군데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병설하는 곳도 있다.

남한계 학교는 총합 4군데이다. 그 중 3군데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된 정규 학교이며¹⁶⁾, 각종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는 동경 한국학교 한 군데뿐이다. 이와 같이 남한계 학교는 우선 양적으로 교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적다. 더군다나 1980년 이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는 주재원이 많아지면서 주재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서의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¹⁷⁾.

북한계 학교는 모두가 각종학교이다¹⁸⁾. 북한계 학교는 전성기에는 무려 150군데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생수 감소와 아울러 학교의 폐쇄, 통합이 잦아 학교수가 줄고 있다. 북한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위에서 보았듯이 사상 교육 등 재일교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이라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련은 교포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강구해서 2003년도부터는 새 교과서를 도입했다.

민족학교는 남한계도 북한계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한 학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초등교육(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중학교) 3년,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3년이며, 북한계 학교는 고등교육(대학교) 4년과 후기 고등교육(대학원) 5년(석사 2년, 박사3년)이 있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교포 자녀의 비율에 관해 최근의 통계를 찾지 못했다. 吳滿(1993:185)에는 주일대사관 장학관실 발행 ‘교포교육개요’(1968년도)에 의거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남한계 학교는 3,784명(2.9%), 북한계 학교는 34,338명(19.2%), 일본인 학교는 134,858명(77.9%)으로 되어 있다. 1968년의 수치가 이 정도이니 현재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교포 자녀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3.2. 남한계 학교

남한계 학교는 정규 학교이냐, 아니면 각종학교이냐에 따라 교육 방법에 차이가 날 수 있고 3군데 있는 정규 학교도 교과 내용은 한결같지가 않다. 여기서는 마에다(2005)를 참고하면서 정규

16) 3군데 학교는 다음과 같다.

- (1) 백두학원(건국소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 1946년 ‘건국 공업학교’, ‘건국 고등 여학교’로 개설, 1951년 정규 학교로 인가. 1976년까지는 남도 북도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으나 1977년 이후 남한계 학교로서 기치를 밝혔다.
- (2) 금강학원(금강소학교, 금강중학교, 금강고등학교) : 1946년 ‘니시나리(西成) 우리 학교’로 개설, 1949년 폐쇄령 후 1950년 금강소학교가 인가, 1961년 한국 문교부 인가, 1985년 정규 학교로 인가
- (3) 교토(京都) 국제 중학교, 고등학교 : 1947년 교토 조선 중학교로 개설, 1958 각종학교로 인가받으면서 교토 한국 학원으로 개편, 2004년 정규 학교로 인가, 개편
- 17) 초등부(초등학교) 학생 589명 중 일본 영주 자격을 가진 학생은 119명에 지나지 않는다.
- 18) 각종 학교는 정규 학교가 사용하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계 학교에서는 각각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대학교’라 부른다.

학교인 백두학원(건국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백두학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도를 받는 정규 학교이다. 그러므로 교과 과목은 다른 일본 인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서 인정되어 있는 독자적인 교과의 범위 안에서 한국 관련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마에다 2005:227). 교수 언어는 한국어 수업을 제외하면 일본어이며 교원은 일본의 교원면허를 가진다. 학생은 재일교포와 주재원 자녀가 있지만 일반 수업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고 한국어 수업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세 반은 교표용), 본국반(주재원 자녀용)으로 나눈다. 본국반 학생의 비율은 학년마다 다르나 학년 인원의 약 20-50% 정도다.

3.2.1. 수업

백두학원 소학교에서는 주당 한국어 수업이 4개가 있다¹⁹⁾. 동경 한국학교 7개, 북한계 학교 9에 비하면 수업 시간수가 상당히 적지만 이는 정규 수업 시간외에 민족 과목을 실시해야 할 정규 학교의 숙명이기도 하다. 한국어 수업에서 교수 언어는 100% 한국어이다. 교포반에서는 처음에 학생들이 당황해하지만 점차 익숙해진다고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주당 3개 있다.

일반 과목들은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검열(검정)을 받은 각종 교과서가 출판되어 있으나 한국어에 관해서는 학습지도 요령도 없고 정해진 교과서도 없기 때문에 교포반 수업에서는 교재 선정도 문제가 된다. 마에다(2005)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의 중학교 교재는 ‘한국 국제교육원이 만든 재외동포용 교재는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며 시판 교과서는 어른 또는 여행자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결국 직접 만든 프린트물을 나누어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마에다 2005:239)²⁰⁾.

3.2.2. 교원

교원은 ‘현지교원’(일본인, 교포 교원)과 ‘파견교원’(3-5년 임기로 한국에서 파견되어 오는 교원)이 있고, 한국어 수업은 실질적으로 파견교원이 운영한다. 파견교원이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가장 큰 이점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알기 어려운 뉘앙스 차이, 교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한 표현’ 같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모어화자 교원 덕분이라고 한다. 그 한편,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현지교원의 역학이 낮은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비모어화자 교원과 모어화자 교원은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터인데, ‘한국어는 한국인에게, 중국어는 중국인에

19) 소학교의 수업 한 개 45분짜리이다.

20) 최근에는 시판 교과서가 다양화되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모어화자 주의' 때문에 양쪽 교원의 협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또 파견교원이 일종의 한국어의 '모범'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어, 그 결과 현지교원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모자란다고 느껴 학생 앞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총련계 학교가 자신들의 언어 공간을 만들어 나간 것과 반대로, <규범>이 주어지고, <규범>에 얽매이고, 약간 경직된 언어환경이 되었다'(마에다 2005:259)고도 한다.

3.3. 북한계 학교

3.3.1. 개요

북한계 학교는 해방 직후 조련의 조선인학교의 승계한 학교이며,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의 거의 전부를 짊어져 온 학교이다. 그 교육은 교포 자녀들이 '장래에 일본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깊이 연관되는 민족의 뿌리를 확실히 가지고 항상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한 삶을 사는'(金德龍 1991:125)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민족교육을 받는 교포 자녀는 주로 일본에서 태어난 3세 이후의 세대이며, 모어도 일본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의 기축은 민족어 교육이다. '해외 거주자에게 모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인 아니라 각 개인 또는 민족 집단으로서의 재외 공민의 민족적인 심리, 공유의식의 핵심'(金德龍 1991:129)이기도 하고, 또 재일교포에게는 그것이 민족적 정체성 회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북한계 학교는 모두가 각종학교이며 교육 방침과 교과서는 총련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1977년도, 1983년도, 1993년도, 2003년도의 네 번에 걸쳐 개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과 과정의 변천은 북한의 해외공민 교육으로서 귀국을 전제로 한 1970년대까지의 방침으로부터,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일본에 정착하는 세대에 맞춘 교육으로 점차 바뀌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이전에는 문어적인 교육이 많았는데 반해 최근에는 구어적인 교육, 즉 실천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양성하는 교육 쪽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²¹⁾. 이것은 나중

21) 申昌洙(2005:282)에 의하면 1983년 개정 초급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 대부분이었지만 199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28과 중 14과에 구어 표현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또 총련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입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생활을 반영한 기초적

에 언급하겠지만 북한계 학교에서의 교원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3.2. 수업

초급학교(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100%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필연적으로 제2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이 된다. 초급학교에서는 1학년 때에 주당 9개, 2학년 때는 주당 8개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 이는 같은 학년의 일본어 수업이 주당 4개임에 비교해서 훨씬 많은 수업수이다. 북한계 학교에서는 일본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실시하며 기타 모든 학교 생활의 장면에서 한국어가 사용된다.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국어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초급학교 1학년의 한국어 수업 풍경을 기술한 李月順(1998:113-115)을 아래에 인용한다.

초급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배운 것이 모음과 숫자다. 숫자는 교사가 그림이 그려 있는 종이를 칠판에 붙여 ‘이것은 몇 명입니까?’라고 일본어로 질문하고 민족학교 유치원으로부터 진학한 아이에게 대답시킨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일본어 어미만을 한국어로 바꿔서 질문한다. 일본어 ‘-desuka’를 한국어 ‘-입니까’로 바꿔서 질문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그것을 어느새 따라 쓰기 때문에 문법을 몰라도 괜찮았다. 숫자부터 시작해서 대답의 ‘예’도 금방 익숙해졌다. (중략) 한꺼번에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말을 일본어 속에 섞었다. 우리말과 일본어는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 쉬웠을 것이다.

한국어 수업의 비율은 중급학교(중학교)에서도 높고, 일본어 주당 4개에 비해 한국어는 5-6개이다.

3.3.3. 교원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일간에는 국교가 없다. 따라서 북한계 학교라고 해도 북한과 인적 교류는 전혀 없고 교원은 모두가 교포이다. 교원은 같은 북한계 학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양성하며 교육학부, 문학역사학부 등을 졸업한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경우가 많다. 교원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모임을 지역 단위로 가지며 ‘교육연구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린다(申昌洙 2005:280).

교원이 모두 교포라는 사실은 민족어 교육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즉 교원이 본국

회화가 중심 -4가지 기능(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을 종합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들였다’고 한다.

의 언어를 모르고 이른바 ‘재일한국어’라 불리는 교포식의 특수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언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정통성 있는 언어’로 간주한다면 본국과의 인적 교류가 불가결한데, 현재 북한계 학교에서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룩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4. 재일교포의 언어사용 양상

4.1. 재일교포의 한국어 사용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재일교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적고,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계 민족학교 중 하나인 건국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자식이 다 본국 태생인 경우와 부모·자식이 다 일본 태생인 경우에서 가정 내 사용언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오고시 2005:32).

〈표 2〉 건국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부모·자식이 본국 태생(35명)	부모·자식이 일본 태생(84명)
한국어만 사용	38%	0%
한국어가 더 많음	35%	0%
절반 정도	24%	0%
일본어가 더 많음	3%	35%
일본어만 사용	0%	65%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상황이 이 모양이니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은 더욱 적어질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처럼 재일교포 2세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어가 일본어이며 한국어는 많은 경우에 주로 민족학교를 통해 제2언어로 습득된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의 언어사용 양상을 보고 본고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민족학교에서 습득되는 한국어의 양상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학교는 설치수, 학생수 다 북한계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재일교포 2세 이하 세대에서 제2언어로서 습득되면서 일정한 사회환경 속에서 상용되는 민족어는, 북한계 학교에서 사용되는 민족어이다. 여기서는 북한계 민족학교에서 습득되는 민족어를 임시적으로 ‘조선학교 한국어’라고 부르고 이 언

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하나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그 속에 섞어 쓰는 한국어 어휘의 양상이다. 재일교포는 일상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어휘는 한국어 어휘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이중언어 생활(bilingualism)이라기보다는 일본어로서 차용된 한국어 어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한국어 기원 어휘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4.2. 조선학교 한국어의 특징

이토(2006:40)에 의하면 조선학교 한국어는 (1) 화자의 모어가 일본어이며 한국어는 민족학교를 통해 얻어진 제2언어이고, (2) 민족학교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한반도에서 언어형성기를 보낸 모어화자가 아니라, 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형 bilingualism’의 재생산이 계속되어 왔으며, (3) 그 결과 이 언어는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오용과 많은 공통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

4.2.1. 문법적 특징

조선학교 한국어는 문법적인 현상에 관해 적지 않은 보고가 있다. 많은 경우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오용’이다. 아래는 특징적인 조사 사용 예이다.

- (1) a. 세시에(<세시가) 되면 거기서 기다리겠소.²²⁾
b. sanji-ni nar-eba sokode matu.
- (2) a. 선생님부터(<선생님한테서) 빌린 책
b. sensei-kara karita hon
- (3) a. 나는 아직 우리 말이(<말을) 잘 모릅니다.
b. watashi-wa mada kankokugo-ga yoku wakar-imasen.

(1)-(3)은 각각 일본어를 직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은 일본어 동사 nar-u(되다)가 한국어와 달리 조사 -ni(-에)를 용구하는 데서 온 직역 표현이다. (2)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가 한국어에서는 ‘-부터, -에서, -에서부터, -로부터’ 등 몇 가지가 있는 데 반해 일본어는 -kara 한 가지 밖에 없어, -kara를 ‘부터’로 일률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3)은 일본어 동사 wakar-u(알다)가 -ga(-이/가)에 의해 대상어가 표시되는 것을 직역한 것이다.

22) 용례는 이토(1989), 宋實成(2007)에서 인용했다. 표기법, 띄어쓰기는 북한식을 따랐다.

용언에 관해서는 주고받기에 관련된 표현이나, 상 표현에 특징이 있다.

- (4) a. 벌써 서고있습니다(<서있습니다).
b. mou tat-te i-masu.
- (5) a. 책을 빌려 받고싶습니다(<책을 빌려주었으면 합니다).
b. hon-o kashite mora-itaidesu.
- (6) a. 먹게 시키다(<먹게 하다, 먹여주다)
b. tabe-saseru
- (7) a. 집에 돌아가보면(<보니) 손님이 와있었다.
b. ie-ni kaette mi-tara kyaku-ga kite ita.

일본어는 ‘-고 있다’와 ‘-어 있다’의 형태적 구별이 없이 둘다 -te i-ru로 표현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 있다’로 옮긴 것이 (4)이다. (5)는 일본어의 보조동사 mora-u(받다)를 직역한 결과,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문형이 된 예이다. (6)는 saseru(시키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7)는 일본어 어미 -tara가 ‘-으면’, ‘-으니’ 양쪽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으면’으로 일률적으로 옮긴 결과이다.

문장의 문말 형식을 보면, 주로 합쇼체와 해라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²³⁾. 사용되는 형식이 한정되어 있으면 화자의 섬세한 감정 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본어 어미를 한국어에 직접 붙여 뉘앙스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 (8) a. 싫다wa(<싫어).
b. iyada-wa.
- (9) a. 너 작다na(<작네).
b. omae chiisai-na.

나아가서는 일본어 동사를 본체로 하고, 뒤에 ‘-입니다’를 붙여서 활용어미를 만들고 섬세한 뉘앙스를 나타낼 때는 그 뒤에 다시 일본어 어미를 붙여 표현하는 혼합 형식까지 있을 수 있다.

- (10) a. ikanai입니까ne(<안가는지요). (필자에 의한 청취)
b. ikanai-desuka-ne.
안가다-입니까-(어미)

23) 북한계 초급학교 학생의 언어를 조사한 宋實成(2007)에 의하면 최근 아동들 사이에서는 해요체가 합쇼체 대신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2. 어휘적 특징

어휘는 일본어의 간섭으로 추정되는 연어 관계를 볼 수 있다.

- (11) a. 키가 높다/낮다(<크다/작다)
b. se-ga taka-i/hiku-i
- (12) a. 옷에 단추를 붙인다(<단다).
b. huku-ni botan-wo tsuke-ru.
- (13) a. 꿈을 보았다(<꾸었다).
b. yume-o mi-ta.
- (14) a. 손도 발도 만나간다(<아무것도 못한다).
b. te-mo ashi-mo de-nai.

(11)은 일본어 takai(높다), hikui(낮다)를 그대로 옮긴 것, (13)은 일본어 mi-ru(보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2)는 일본어 tuke-ru에 해당되는 한국어 어휘가 ‘달다, 붙이다, 묻히다, 바르다, 매기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붙다’를 선택한 것이다. (14)는 일본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4.2.3. 음운적 특징

조선학교 한국어의 음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부정확하나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h/와 /k/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음소가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r/와 /l/, /t/와 /d/도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리/와 /서리/는 같은 발음이 되고, /구리/와 /그리/도 같은 발음이 될 수 있다.

자음에 관해서 보면, 어중, 어말에서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구별이 모호해질 경우가 적지 않고, 어두에 있어서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모두가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것은 조선학교 한국어가 자음 음소를 유기와 무기, 성문폐쇄의 여부로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처럼 유성과 무성으로 변별하는 경우가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받침소리는 비음 /m, n, ŋ/ 세 가지의 변별성이 떨어지고, 폐쇄음 /b, d, g/ 세 가지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일본어에는 음소로 구별되는 음절말 자음으로 비음인 발음(撥音)과 비음이 아닌(폐쇄음, 마찰음) 축음(促音)이 있는데²⁴⁾, 조선학교 한국어에서는 /m, n, ŋ/을 일본어 발음

24) ‘발음’은 흔히 /N/이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음소다. 이 음소는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m, n, ŋ, N], 비모

(撥音)처럼 인식하고 /h, ㄷ, ㄱ/을 일본어 축음(促音)처럼 인식하는 모양이다²⁵⁾.

(15) [hasseŋ] 학생 cf. 일본어 /haQseN/ [hasseŋ]

(16) [tɕosoõsaraN] 조선사람 cf. 일본어 /cosoNsaraN/ [tɕosoõsaraN]

4.3. 일본어에서 혼용되는 한국어 기원 어휘

재일교포가 일본어 속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기원 어휘는 한정적이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특정 어휘부류에서 한국어 기원 어휘가 자주 사용되는 것 같다. 金由美(2005)에서는 친족명칭, 제사 관련어휘, 식생활 관련어휘에서 한국어 기원 어휘의 보고가 있다. 예를 들어, 金由美(2005:129)에서 다룬 한국어 기원 친족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7) aboji(아버지), omoni(어머니), hanme(<함매?; 할머니), harube(<할배; 할아버지), aje(<아제; 숙부), ajime(<아지매; 숙모), kunaboji(큰아버지), kunome(<큰어매; 큰어머니), iisanchon(외삼촌), imo(이모), komo(고모)

이러한 어휘들을 보면 남부 방언, 특히 경상도 방언으로 간주되는 어휘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는 필시 재일교포가 경상도 출신자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기원 어휘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도 있다. 용언은 요리에 관련된 어휘가 많아 보인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용언의 활용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용언을 그대로 일본어에 섞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용언 어형을 ‘-아/-어’형으로 바꾼 다음에 일본어 동사 suru(하다)를 붙여 일본어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8) pokka-suru(볶다), koa-suru(고다), mara-suru(말다), chiji-suru(찌지다), pibi-suru(비비다), munchi-suru(<문쳐; 무치다)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어휘)

형용사의 경우도 조어법은 마찬가지다. 즉 뒤에 동사 suru를 붙여 일본어화시킨다. 형용사, 동사 할 것 없이 suru를 붙이는 것은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가 형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da(-이다)를 뒤에 붙이는 사람도 있다.

음과 같은 이음으로 나타난다. ‘축음’은 흔히 /Q/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음소다. 이 음소 역시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p, t, s, x, k]와 같은 이음으로 나타난다.

25) 사카이(2003)에서는 북한계 학교 출신자 두 명의 대화를 문자화한 자료에서 실제 발음에 의거해서 ‘실삼’(십삼), ‘가고 싣다’(<싣다), ‘창’(<참), ‘얼다’(<없다)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
- (19) chirugii-suru/chirugii-da(질기다), shingubu-suru/shingubu-da(<싱겁어; 싱겁다)
shii-suru/shii-da(시다),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어휘)

金由美(2005:135-136)에서는 또한 한국어 기원 어휘가 ‘부정적 의미의 단어에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휘를 들고 있다²⁶⁾.

- (20) a. chesu-ga nai ‘재수가 없다’
b. nunchi-ga nai ‘눈치가 없다’
c. chicchibe-suru ‘짹짹하다’
d. monsara-suru. ‘못살다’(<몬살아)

그런데 金由美(2005:118)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한국어 기원 어휘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은 아직 없’고, 연구 자체도 거의 없다. 이러한 어휘들은 세대 차이, 출신지 차이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그 전체 모습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5. 마무리

이상과 같이 민족교육에서의 민족어 교육과 재일교포의 한국어 사용 양상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민족교육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본국에 소개되는 일이 있었지만, 재일교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이나 일본어에 섞여 쓰는 한국어 기원 어휘에 관한 연구는 본국에 소개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연구자와 재일교포 내부에서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분야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도 ton(똥), ojun(오줌), pyonso(변소), chunshin nai(정신 없다), monnemi(<몬냄이; 못난이), paabochukku(바보축구)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공봉식, 이영동(1997) “재일동포”, 서울: 문학관

김송이(1993) ‘재일자녀를 위한 총련의 민족교육 현장에서 —오사가 조선고급학교에서의 〈국어〉 수업과 〈세계문화〉 수업을 두고—’,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金相賢(1969) “在日韓國人”, 서울: 檀谷學術研究院

金洪圭(1993)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吳滿(1993) ‘일본의 공립소·중학교에서의 「민족학급」에 대하여’,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이중언어학회(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4, 서울: 집문당

이중언어학회(1993)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10, 서울: 탑출판사

정병표(1993) ‘우리말 지도의 현황과 과제 —백두학원 건국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洪錫華(1993) ‘모국어 교육의 현장, 민족학교 —金剛學園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2) 일본어 문헌

姜徹(1994)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第二版]”, 東京: 雄山閣

金徳龍(1991) ‘在日朝鮮人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 Maher, J., 야시로[八代京子] 편저 “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 東京: 研究社

金由美(2005) ‘殘存韓國語語彙の様相—ある在日2・3世の場合—’,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마에다[前田眞彦](2005) ‘韓國系民族學校の事例—白頭學院建國幼・小・中・高等學校の場合—’,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모리타[森田芳夫](1996)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朴慶植(1989)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 東京: 三一書房

사나다[眞田信治] 외 편(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大阪: 和泉書院

사카이[酒井麻由美](2003) “定住コリアンの使用する朝鮮語について—朝鮮總聯系民族學校出身者の用いる朝鮮語の記述—”, 東京外國語大學 졸업논문

-
- 宋實成(2007) ‘朝鮮學校兒童らの朝鮮語使用—談話文字化資料から見た文法諸形式の使用状況について—’, 오고시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 수록
- 申昌洙(2005) ‘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學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 오고시[生越直樹](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變化’,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 오고시[生越直樹]편(2007) “在日コリアンの言語”, 移民コミュニティの言語の社會言語學的研究 研究成果報告書(2)
- 李月順(1998) ‘朝鮮學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バイリンガル教育の視點から’, 나카지마[中島智子] 편저 “多文化教育 多様性のための教育學”, 東京: 明石書店
- 이토[伊藤英人](1989) ‘在日朝鮮人によって使用される朝鮮語の研究の必要性について’, “日本の多言語使用についての實態調査”, 東京外國語大學 人文科學
- 이토[伊藤英人](2006) ‘現代における朝鮮半島以外のコリア語’, “世界のコリアン”, 東京: 勉外誠出版

(3) 인터넷

규슈 조선 중고급 학교 <http://www.jade.dti.ne.jp/~f-chouko/>

동경한국학교 <http://www.tokos.ed.jp/>

학교법인 금강학원 <http://www.kongogakuen.ed.jp/>

학교법인 백두학원 건국학교 <http://www.keonguk.ac.jp/>

[관련 자료]

〈자료 1〉 동경 한국학교 초등부 수업 시간 일람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일본어	일본 사회 지리	영어	특별 활동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1	7	5	3	6		4		2	1		29
2학년	1	7	5	3	6		4		2	1		29
3학년	1	6	5	2	4	6		4		5	1	34
4학년	1	6	5	2	4	6		4		6	2	36
5학년	1	6	5	3	4	5	1	4	1	6	2	37
6학년	1	6	5	3	4	5	1	4	1	6	2	37

<http://www.tokos.ed.jp/elementary/sub4.html>을 다시 정리

〈자료 2〉 도쿄 조선 제1 초중급학교 초급부 수업 시간 일람

	사회	국어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산수	이과	일본어	보건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9			4		4	2	2	2	23
2학년		8			5		4	2	2	2	23
3학년	1	7			5	3	4	2	2	2	26
4학년	2	7			5	3	4	2	2	2	27
5학년	2	6		2	5	3	4	2	2	2	28
6학년	2	6	2		5	3	4	2	2	2	28

<http://www1.tcn-catv.ne.jp/t-kor1/information/karikyuramu.htm>

〈자료 3〉일본 소학교의 표준 수업시간 수(2008년도)

	일본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 공작	가정	체육	도덕	특별 활동	종합 학습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8		3.4		3	2	2		2.6	1	1		23
2학년	8		4.4		3	2	2		2.6	1	1		24
3학년	6.7	2	4.3	2		1.7	1.7		2.6	1	1	3	26
4학년	6.7	2.4	4.3	2.6		1.7	1.7		2.6	1	1	3	27
5학년	5.1	2.6	4.3	2.7		1.4	1.4	1.7	2.6	1	1	3.1	27
6학년	5	2.9	4.3	2.7		1.4	1.4	1.6	2.6	1	1	3.1	27

http://www.mext.go.jp/b_menu/houdou/11/04/990406o.htm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_icsFiles/afieldfile/2009/04/01/002.pdf

Koreans and Korean language at Uzbekistan

Bronislav Lee
니자미 사범대¹⁾

Speaking about actual problems of Korean community at Central Asian countries,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main question - what are perspectives on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what are forms of 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rebirth and renovation?

The situation is almost the same at Uzbekistan, Kazakhstan and Kyrgyzstan, as for Tadjikistan there is a small information, Turkmenistan is a black spot. Numbers of Korean community: Uzbekistan - about 180 thousands, Kazakhstan - more than 100 thousands, Kyrgyzstan - 20 thousands, Tadjikistan - about one thousand, as for fifth country - unknown. Study of Korean language at middle schools and universities is at first three countries, at universities - at four countries, Center of education of ROK is acting at first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Activity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s closely connected with above mentioned main question and problem of "survival": How much it is possible to become worthy part of Uzbekistan society keeping and restoring as much as possible our language and culture?

Segmented Korean movement at Uzbekistan where three organizations are in action causes anxiety of Korean community as well as local authorities and Korean embassy.

Two states are on Korean Peninsula and accordingly - organizations oriented to them. (Kazakhstan and Kyrgyzstan have united Korean public organizations). Solely we can not suppose that persons being in these organizations are acting on their certain belief or conviction (political, moral and others).

In Korean public movement, it is desirable combination and coordination of businessmen and

1)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y, Uzbekistan.

research workers, scientists.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of Uzbekistan as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 unites more than 40 structural units, including regional 9 - 12, city and district cultural centers having own state registration. Diverse activity of them is oriented to keeping and renovation of 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habits and traditions of Korean people. Korean public organizations are celebrating so holidays as Seol, Owol Dan-O, Chuseok. Every Korean structure has different children and adults folklore ensembles.

At central office of AKCC there is section of creative workers (artists, singers, writers, poets), Center for Korean studies, scientific and technical society, Newspaper “Koryo Sin Mun”.

Certainly in AKCC a great attention is paid to Korean language being a basis of all cultural activity, basis of whole process of cultural rebirth. Almost all Korean organization has courses of Korean language. These courses (total – 16) are organized for Korean community and represents a part of educational system at Uzbekistan. Characteristics of these courses have the same merits and shortages as in whole system of Korean language teaching in Uzbekistan.

In general it is a law of every community life to lose language and culture, as culture of country of stay is absorbed and mastered(condition of surviving). For example culture of CIS countries Koreans is amalgamation of Korean, Russian, Central Asian and European cultures. Culture of American, Japanese or Chinese Koreans are not exclusion.

1. Korean language study

Chair of Korean language is started since 1956 at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y. After deportation in 1937 there are schools with Korean language and after war years (1945) Korean language is studied at Korean kolhoz(former farm) as native language. By the way even now at TSPU sole university where teachers of Korean language is prepared, status of Korean language is written as “nativ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ecessity to learn Korean community to native language was a basis to establish this department. Now Korean language became a foreign oriental language.

Now chairs or faculties are at five universities at Uzbekistan and Korean language is learned at 11 universities. Only at Tashkent city Korean language is studied at 39 middle schools, 3 lycees and two professional colleges. At Tashkent region – 20 middle schools and one college. At all regions only one region has no educational organization. We know one middle school where after 40 years of Chinese language they changed to Korean language.

Total amount of teachers of Korean language at all educational organizations is equal to 240

persons.

Effectiveness of Korean language study depends on aim forming, content of learning, principles and methods of training, means of learning, level of professional and methodical training of teachers.

2. Attitude to Korean language

Relation to this language, social demand to this language is formed first of all by Korean community since 1937 and under influence of two factors: Korean investments and origin of joint ventures and technical training of Uzbekistan youth at Korea(now quota is equal to 12500 plus 5or 6 thousands of illegal trainees).

One important detail until now Korean language is studied as additional(optional), though necessity to create school with Korean language training is existing.

3. Conditions of learn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t Uzbekistan volunteers of KOICA, Center of education, Sejong school are acting we can state about process of mastering by Korean language as ‘frontier’ case in language sphere and out of country. Participation of foreigners means sinking in language environment, mean of integration into new society, primary attention to content of communication, usage of non language means, all styles of language, compensation of limited educational time by communication out of lesson. That is why at our university and others are usual competitions on oratory on Korean language, student scientific conferences, competitions on composition on Korean language, summer internet schools, Korean sport and culture festivals with participation of Korean guests.

4, Methodical preparation of teachers

Effect of Korean language training depend on how teacher knows modern theory and practice of foreign language study. Shortcomings in teachers personal are the following: not large part of persons with university diploma, not high level of Korean language, small share of lecturers with scientific degree(only two candidates). Many of teachers with great pedagogic experience but not in Korean language(for example in mathematics and so on). Center of education plays a great role in methodical improvement (permanent seminars and study).

5. Korean language for Koreans

Foreign language is a mean providing integration of a person to new society, into social situation in general case. But for Koreans of Uzbekistan (Kazakhstan and so on) it is a certification of national identification. In fact study of Korean language for Koreans of Uzbekistan is a form of professional preparation(though a small experience of family culture is existing), it is a form of survival in som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al environment.

6. Language situation and state language study

Korean community at Far East had educational organizations, Korean language was used on official level and on family level. Deportation of 1937 and founding of independent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twice cardinal change of language situation for Korean community. Not competent in state language has no possibilities for carrier growth. Change in attitude to state language is necessary not only on level of calls and slogans or on level of competitions of oratory on Uzbek language(TSPU is holding this event the fourth time).

7. Curriculums and standards

At universities standards, curriculums, typical and working programs are existing and acting (though their improvement is necessary). But on level of middle schools and colleges teacher himself makes up this question. Small possibilities in hours connected with subjects on option do not give to students to select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ests. Fixed for all four years set of subjects is offered to students that differs our country from others. On level of middle school it is expedient to put a task to achieve basic features of secondary language personality, for universities – attainment of fourth grade in Korean language.

8. Means of study & Textbooks

We are successfully using a lot of textbooks issued at Seoul, Yonsei and other Korean universities. Also manuals prepared by Ministry of education of ROK under participation of Uzbekistan specialists must be mentioned. But these textbooks are universal. We need educational materials in Uzbek

and Russian languages. Set of textbooks seems to include books on phonetics, grammar, morphology and syntax, on theory and practice written in Uzbek and Russian languages. One essential note: times of grammar and translation method were passed and pragmatic approach must be realized.

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of TSPU students study Culture of Korea, History of Korea, Country study. No one of these subjects supports by text books. Necessity is for linguistic and country dictionary, different anthologies for schools, different manuals grounded on Korean culture. Unfortunately every educational organization on secondary level on own standard due to option status of Korean language and weak material and financial support of Korean language.

While elaborating textbooks on Korean language cooperation is desirable between specialists from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Educational materials must be oriented to representatives of Central Asia as a realization of formula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As it is stated mastering of foreign language is an overcoming of language and culture barriers. In addition in Russian literature on Korean linguistics many moments are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as well as different understanding of teaching methods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raditions and culture in education in every country it is necessary to take some other barriers.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of Central Asia is perhaps meaningful not only materials must be prepared in Uzbek and Russian languages, but they know difficulties that our students is feeling while study of Korean language, they know Central Asia culture in general and culture of foreign languages study in their countries.

9. About speech practice

Mastering of foreign language supposes speech practice as dialectology, language practice, pedagogical and so on. If organized by state practice is absent then some kind of substitution must be find.

Usage of original materials is a very great interest in methodics of Korean language study. Speaking is about literature, films, newspapers, TV. Introduction of these materials demands special subjects or different forms of acting with them.

So we stated situation with Korean language for Koreans in Uzbekistan, what does it mean Korean language for Koreans, what are main problems in study of Korean language in central Asia.

해외 교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영 춘
국립국제교육원, 전 북경국제한국학교장

1. 들어가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재외동포교육이라고 할 때, 이러한 재외동포교육은 왜 필요하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이태리,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와 같이 큰 규모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재외동포를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화 전략에 활용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해외 화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상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화교경제권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태리는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이태리 공동체를 이태리의 대외 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두보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 등의 나라들도 역시 재외동포들에게 국내 출입국 및 투자, 구직 등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외동포를 자국의 세계 경제력 고양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이종훈, 2000).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들은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전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를 집결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진동섭, 2003).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포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혈통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로 하여금, 모국과의 일체감·유대감을 강화하게 하고, 굳건한 생활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외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그들을 결집,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한글 모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밖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집을 떠나면 집이 그리듯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고향의 노랫가락이 절실히 그리울 때가 있다.

독일 베를린의 택시 운전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베를린에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는 택시 운전보다는 한국 관광객을 안내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그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일념에서다. 그는 고국이 너무나 그리운 날이면 후미진 곳에 택시를 몰고 가 한국가요 테이프를 들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 모국어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해외 교포들은 자녀의 모국어 교육에 열의를 보인다. 교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재외한국학교와 한국어 교가 없는 곳이나 타언어권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주말에 열리는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재외한글학교는 재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 운영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세계 각 국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교육센터 중의 하나이다.(이양교, 2002)

2. 재중한글학교 현황

재중국한글학교들은 정보의 공유 및 교민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발족하여 북경한글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 연 2회의 협의회를 통하여 교사 연수 및 정보 교류, 교재 보급 등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2.1 재중한글학교협의회 연혁

- 2007년 8월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제1회 교사 연수)
- 2008년 2월 재중한글학교협의회 창립총회(제2회 교사 연수)

- 정관 제정, 북경한글학교를 협의회 회장 학교로 선임
- 2008년 8월 재중한글학교협의회 제3회 교사 연수
- 2009년 2월 재중한글학교협의회 지역별 교사 연수
- 2009년 8월 재주한글학교협의회 제4회 교사 연수

2.2 회원학교 현황

구분	관할 기관	지역분회장 학교	학교명	교원수 및 학생 현황	비고
북경 분회	주중대사관	북경한글학교	북경한글학교	교사21명 초등 17학급 451명, 중등 3학급 69명 총 520명	북경한국국제학교 부설
			해전한글학교	학생수70명 기초반1, 초등 5, 중등 1학급	교회부설
			주원한글학교	학생수 90명 유치반 2, 초등 6, 중등2학급	사립
			천진한글학교	교사10명 초등 110, 중등 19명	천진한국국제학교 부설
			무한한글학교	교사6명, 초등 13명	
			서안한글학교	교사 10명(담임 5명, 보조교사 등 5명)초등 23명 5학급	서안한인교회부 설
			우루무치한글학교	교사 6명, 초등 20명, 중등 2명, 주중학교, 주말학교 함께 운영	
			세종한글학교, 석가장한글학교		
동북 분회	심양 총영사관	심양한글학교	심양한글학교	교사 28명, 13학급 249명, 기초반 21명, 초등 158명, 중등 51명, 고등 5명	학부모 설립 국제학교 교사 유상임대
			장춘한글학교	교사 30명 기초반 22명, 초등 53명, 중등 62명, 고등 61명	건물유상임대
			하얼빈한글학교	교사 10명, 기초반 7명, 초등 15명, 중등 4명	한인회 설립 교회건물 사용
			하얼빈 한국기업인 재배훈중심	교사 14명, 기초반 8명, 초등40명	전일제 기숙학교, 교회설립, 건물유상임대
			대련한글학교	교사 13명, 기초반 53명, 초등 47명, 중등 13명	건물유상임대

구분	관할 기관	지역분회장 학교	학교명	교원수 및 학생 현황	비고
			단동한글학교	교사 13명, 조선족, 한족학생 대상	한인회 설립, 건물유상임대
			대련 한국국제학교 부설한글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부설		
연안 분회	청도 총영사관	청도한글학교	청도한글학교	교사 26명, 기초반 17명, 초등 250	
			위해한글학교	교사 15명 초등 60명, 중등 10명	교사유상임대
			교주한글학교	교사8명 초등 60명, 고등 5명	교회설립, 유치원 건물 유상임대
			교남한글학교	교사 10명, 기초반 5명, 초등 21명, 중등 4명	교회설립, 교회건물 무상사용
			황도한글학교	교사 8명, 기초반 2명, 초등35명, 중등5명	황도한인교회 설립, 교회건물무상사용
			유산한글학교	교사7명, 기초반 3명, 초등 9명, 중등 4명	교회설립, 교회건물 무상사용
			문등한글학교	교사 6명, 초등 5학급	다문화가정특별반 별도
			일조한글학교	유치원 30명, 초등 10명	
			제남한글학교, 평도한글학교		
화남 분회	광주 총영사관	심천한글학교	심천한글학교	교사 26명, 학생수 540명	한인상공회 설립, 중국학교교사 유상임대
			광주한글학교	교사 15명, 기초반 32명, 초등170명, 중등 30명, 고등 4명, 총 250명	한인상회 설립, 건물 유상임대
			동관한글학교	교사 6명, 초등 185, 중등 36, 총 학생수 221명	한인회 운영, 교회건물 유상임대
			해주한글학교	교사 9명, 기초반 12명, 초등 35명, 중등 12명	교회설립, 교회건물 유상임대
			샤면한글학교	교사 10명, 기초반 1명, 초등 6명, 중등 3명	한인상인협회 설립, 협회사무실 무상임대
			해주주말한글학교	교사 8명, 학생 64명	
			해주한국주말학교, 판위한글학교, 주해주말한글학교, 주해한글사랑학교, 판위은혜한글학교, 중산한글학교		
서남	성도	성도한글학교	성도한글학교	교사 11명, 기초반 14명,	한인교회설립,

구분	관할 공간	지역분회장 학교	학교명	교원수 및 학생 현황	비고
분회	총영사관			초등 44명, 중등 19명 총 90	중국어교사 유상임대
			곤명한글학교	교사 10명, 초등 15명, 중등 18명	교회설립, 중국어교사 유상임대
			중경지구촌한글 학교	교사 6명, 기초반 3명, 초등 19명, 중등 3명, 성인 6명	교사유상임대
			시닝한글학교, 중경한글학교		

총 32개 도시에 43개 학교가 설립되어 한글교육과 더불어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3 협의회 주요업무

2.3.1 교사 연수

- 매년 8월 재중한글학교협의회 연합 교사 연수 시행
- 매년 2월 지역 분회별 교사 연수 시행

2.3.2 개발 교재 지원 및 교과서 보급

- 1) 2008년 2월 제2회 재중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시 자체 제작 교재 5종 및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제작 교과서 4종, 교사용 지도서 2종 지원
- 2) 2008년 4월 북경한글학교 보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제작 교과서 4종 우송
- 3) 2008년 4월 7월, 10월 북경한글학교 보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제작 교과서 4종, 자체 제작 교과서 다수 회원 학교에 우송

2.3.3 한글학교 교재 개발

3. 한글학교 교육과정 개정 배경

3.1 2007 개정교육과정과 더불어

3.1.1 역사교육 강화

-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인 대처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3.1.2 논술교육 강화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 필요

3.1.3 한글 기초 부족 아동에 대한 지도 강화

- 1) 학생의 읽기, 쓰기의 기초 능력 신장
- 2)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능력 갖추기
- 3) 재외국민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대 교민 교육서비스 강화
- 4) 국민 기초 교육에 대한 학교교사의 책무성 강화로 재외국민교육의 내실화

3.2 2007개정교육과정의 주요내용

3.2.1 역사교육 강화

- 1)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 필요
※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06. 9. 23.) 결과 :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78.9%)과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90.3%)를 보임
- 2)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사)의 독립
- 3)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 수업시수 확대 : 주당 2시간 → 3시간
※ 고1 국사에 근·현대사 내용 추가에 따라 '06년부터 재량활동 중 1시간 국사시수로 활용권장(역사교육 강화방안 세부추진 계획, '05. 7. 8.)
- 4) 고등학교 선택과목 '동아시아사' 신설

3.2.2 논술교육 강화

1) 필요성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수학 능력에 있어서도 논술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함
- ※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창의적·논리적 사고력 배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필요
- 논술 교육은 학교교육과정 및 방과후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실시되어 왔으나,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등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논술 관련 단원이 미비하다는 지적

2) 개정 내용

- 국어과를 중심으로 논술관련 내용 강화
- ※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강화
-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논술지도 가능 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반영
- ※ 사회, 과학, 도덕 등 논술지도가 가능한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요소 및 평가 내용을 추가 설정하여 논술지도 방안 강구

3.3 2007개정교육과정 적용 과정

- 2009. 3 : 초 1, 2
- 2010. 3 : 초 3, 4 / 중 1
- 2011. 3 : 초 5, 6 / 중 2 / 고 1
- 2012. 3 : 중 3 / 고 2
- 2013. 3 : 고 3

3.4 한글학교 교육과정 적용 범위

3.4.1 역사교육 강화

-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재외국민 역사 교육 강화

3.4.2 논술교육 강화

- 수업 과정에서 논술관련 내용 및 지도 강화

3.4.3 한글 기초 부족 아동에 대한 지도 강화

- 한글 기초 부족 아동에 대한 교재 개발 및 지도 대책 강구
- 한글기초반 운영(2009. 4월부터 - 현재)

3.4.4 교재 개발 현황

구분	교재명(2008년 1학기)	교재명(2008년 2학기)	교재명(2009년 1학기)
	즐거운 경필쓰기-1	즐거운 경필쓰기-1	즐거운 경필쓰기-1
	즐거운 경필쓰기-2	즐거운 경필쓰기-2	즐거운 경필쓰기-2
	즐거운 경필쓰기-3	즐거운 경필쓰기-3	즐거운 경필쓰기-3
단어교재	한글기초교재		한글기초교재
	단어야 놀자-1	단어야 놀자-1	단어야 놀자-1
	단어야 놀자-2	단어야 놀자-2	단어야 놀자-2
	단어야 놀자-3	단어야 놀자-3	단어야 놀자-3
	단어야 놀자-4	단어야 놀자-4	단어야 놀자-4
	단어야 놀자-5	단어야 놀자-5	단어야 놀자-5
	단어야 놀자-6	단어야 놀자-6	단어야 놀자-6
	단어야 놀자-중1	단어야 놀자-중1	단어야 놀자-중1
	단어야 놀자-중2	단어야 놀자-중2	단어야 놀자-중2
단어야 놀자-중3	단어야 놀자-중3	단어야 놀자-중3	
	우리는 논술박사-1	우리는 논술박사-1	우리는 논술박사-1
	우리는 논술박사-2	우리는 논술박사-2	우리는 논술박사-2
	우리는 논술박사-3	우리는 논술박사-3	우리는 논술박사-3
	우리는 논술박사-4	우리는 논술박사-4	우리는 논술박사-4
	우리는 논술박사-5	우리는 논술박사-5	우리는 논술박사-5
	우리는 논술박사-6	우리는 논술박사-6	우리는 논술박사-6
	우리는 논술박사-중1	우리는 논술박사-중1	우리는 논술박사-중1
	우리는 논술박사-중2	우리는 논술박사-중2	우리는 논술박사-중2
	우리는 논술박사-중3	우리는 논술박사-중3	우리는 논술박사-중3
		우리는 논술박사-고1	우리는 논술박사-고1
	우리는 논술박사-고2	우리는 논술박사-고2	
			평가문제집초1~고2

3.4.5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한국국제학교들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한국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지의 특성을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생 구성원 중 일시 체류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귀국 후 본국에서의 적응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주말에만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 5일 간의 학교에서 순수 영어, 중국어로만 생활하며 일부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의 경우 가정에서도 중국어,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치 외국인과 유사하여 기초한글맞춤법에서 작문까지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이 있다. 이에 많은 한글학교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 분	현행 북경한글학교 교육과정 시간편제
편제와 시간 (단위) 배당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1~4학년의 경우(1일 4시간 수업기준) 읽기 - 2시간, 쓰기 - 1시간, 교재 - 1시간 ※ 초등 쓰기와 읽기 시간에 듣기, 말하기를 축약하여 병행 지도 ※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기초반을 2009.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 미해득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지도를 원칙으로 운영. 기초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된 다수 아동이 원적반으로 복귀되어 학습하고 있음. » 초등 5~6학년의 경우(1일 4시간 수업기준) 읽기 - 1시간, 쓰기 - 1시간 한국문화(한국사) - 1시간, 교재 - 1시간 ※ 초등 쓰기와 읽기 시간에 듣기, 말하기를 축약하여 병행 지도 » 중학교(1일 4시간 수업기준) 국어(생활국어포함) - 3시간, 국사 - 1시간 교재 - 과제로 제시 » 고등학교(1일 4시간 수업기준) 국어 - 3시간, 국사 - 1시간 교재 - 수업과 병행하여 지도 ○ 논술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역사 교육 강화 요구 반영

4. 한글교육의 문제점

4.1 한글학교 운영상의 애로점

- 가. 매년 학생 수 변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강좌 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나. 예산부족으로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음
 - 학생수 격감 등으로 세입 예산이 부족한 경우, 최소경비로 책정하여도 자체 수입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많음
 - 인건비도 최소경비로 책정하였으며, 지도교사의 열정에 비하여 적게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음
- 다.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가 많이 부족함.
- 라. 한국문화 소개 및 체험 자료(놀이도구, 전통악기류 등) 부족
- 마. 한글학교 재직 교사 대상 다양한 연수 등의 기회 부족

4.2 한글학교 재학 학생의 국어 교육의 한계점

- 말하기보다 쓰기의 실력 향상에 더 어려움이 있음
- 글쓰는 형식 지도 어려움 : 맞춤법, 단락 구분하여 쓰기(한 칸 들여쓰기, 줄 바꿔쓰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따르는 시간 부족의 어려움
- 글의 내용 지도면에서 형식 지도 시간보다 내용 지도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함
- 주5일은 외국어로 사고하고 말하며 주 1회 4시간 동안 한글학교학습의 모국어 사고를 하는데 따른 어휘력 부족, 문화의 이해 부족 등으로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모국어 사용(말하기, 특히 쓰기) 환경의 부족
- 절대 수업시간이 부족하므로 가정과 연계하지 않는 경우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본국과 동일한 교과서 사용으로 현지 특수성 반영이 미비

4.3 현장 지도에서 어려운 점

- 학교나 학급에 대한 소속감이 국제학교 아이들 보다 많이 떨어짐
- 학급당 인원 수가 많은 경우 개별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 불규칙한 출석(학교 행사, 개인 사정, 학교 수업 등)으로 수업 연계성 미흡

4.4 학생들의 국어, 문화, 역사 이해 실태 또는 현황

- 아동 간 수준차이가 심하며 부진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전반적 학습력이 한국국제학교 아동들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초등 1학년의 경우 바른 맞춤법 알기와 글씨를 바르게 쓰는 학습에 주력하고 있으나 외국어 실력은 유창하나 국어의 경우 외국인과 유사한(발음, 어휘력 수준 등) 사례가 종종 있어 기초반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실정임
- 고학년으로 갈수록 언어 사용 능력(말하기, 듣기)은 한국 사람과 큰 차이는 없으나 쓰기 능력에서 많이 부족함
- 고국에 대한 자부심이 자칫 배타적 민족우월주의로도 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민족 주체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제 언

5.1 한글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국민들의 인식이 바로 잡아야 한다. 내국인의 입장에서는 재외국민의 자녀교육일 뿐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해외동포들의 모국어 교육은 선택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필연적이어야 함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가르치려는 부모나 배우려는 학생들이 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해외에 사는 한민족은 이민 일세나 후세를 막론하고 ‘왜 한국말과 문화를 배워야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는 말은 “밥 먹어, 공부해, 숙제했니? 한글학교 가야지, 뿌리를 알아야 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해” 등등이라고 통제가 나와 있다. 먹고, 공부하고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이광정, 2003).

자녀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부모와 교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말 교육을 통해 주체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 뿐 아니라 한글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대책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2 온·오프 연계 교육매체 개발 및 보급

멀티미디어 교재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용 교재와 CD롬 타이틀이라는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주 1회 운영에 따르는 시간부족 및 결석 등으로 인한 학습 연계성 부족을 보충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자율 학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의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의 출석학습과 온라인상의 보충학습방안이 구안된다면 한글교육에 목마른 교민들의 걱정과 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3 공동 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확대

중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과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기관이 산재해 있다. 운영과 지도상의 문제점 및 난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한글학교교사협의회와 같은 공동 협의체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며, 각종 교재 및 자료의 공유 및 교사의 전문성 심화의 기회를 마련은 교육활동에 있어 더욱 심도있는 전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한인단체의 자발적 노력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여러 한글학교에 대하여 교민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나 재정적, 행정적인 면에서 지구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이광정(2003). 국어문법 연구 II. pp.385-400.

이양교(2002). 평생교육정책. p277

진동섭(2003). 재외동포교육활성화 방안 연구-교육정책 과제. p10, pp76-92.

이중훈(2000). "재외동포정책의 국가간 비교분석: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인도의 경우." 전남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 전략-발표논문집. pp.13-32.

심천한글학교교사연수자료(2008)

한인회보. 2009. 10. 장옥희. 동관중등국어교과운영실천사례. p9.
한인회보. 2009. 9. 재중한글학교협의회현황. pp.24-29.

[인터넷 사이트]

북경한글학교 <http://kisb.net/?act=doc&mcode=1810>

재외동포재단 : <http://www.okf.or.kr>

국어학 세상, <http://shi.kaist.ac.kr/2000/week16/16week-22.htm>,

자크모, <http://blog.naver.com/mskduey/120034203612>,

한글, 영어 그리고 중국어

9학년 1반 김한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항상 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만 접하고 한글학교에서만 우리말로 수업을 듣다 보니, 내 모국어 한글과 영어, 중국어가 다양한 면에서 같고 또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영어와 내가 처음 만난 지는 좀 오래 되었는데, 배우던 시간 내내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다. ‘나는 너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는 원한다 / 함께하기를 / 너와 / 오랫동안’과 같은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던 동시에 한글의 간편함과 익숙함이 절실했다. 또 말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도 많았다. 영어에서 ‘그러하니?’라고 물어보든, ‘그렇지 않니?’라고 물어보든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이 한 예다. 그나마 우리말과 유일하게 같은 것은 ‘표음문자’라는 점이였다. 우리말에 외래어가 많은 것의 원인이기도 한 표음문자의 편리함이, 영어의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을 내 머릿속에 잘 연결시켜 주었다.

그런 반면에, ‘표의문자’인 중국어는 특이한 점부터 눈에 띄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중국어 간체자로 바꾸어 부르는 모습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저렇게 불편하게 언어를 사용할까?’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들의 말을 외래어로부터 보호하려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한글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피어쓰기는 없지만 한국 변체자보다 더 간단한 간체자를 사용하고,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뜻을 번역하면 영어보다 한글과 더 비슷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사장이 회사를 ‘들들볶다’나 ‘머릿속이 하얘지다’와 같은 표현은 한글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좀 어렵지만, ‘동양의 미’라고 해야 할까,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영어와는 사뭇 다른 역사나 선인들의 뜻이 배어 있는 듯하다.

항상 이렇게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 보면, 한글만 갖고 있는 간단함의 아름다움이나 내 모국어로서의 정겨움이 더욱 전해진다. 외국에 오래 있는 만큼 한글이 그립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참 한글을 잊지 않으며 한글이 다른 언어들과 다름을 자랑스러워해야겠다.

한국, 그리고 나

11학년 1반 신선경

따뜻했던 여름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 정말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 그 동안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주변을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느낄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아련한 추억에서부터 앞으로의 진로 문제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국, 한국이다.

유학으로 인해 중국에 오게 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06년 겨울의 끝자락에 처음 한국을 떠나 이번 학기가 지나고 나면 벌써 4년을 이곳에서 보낸 꼴이 된다. 더군다나 현재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한국에 들어갈 기회는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는 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면 그 사이에 또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 내가 살던 동네의 풍경에 놀라고, 또 그럴 때마다 꼭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에서 떨어져 나와 외국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마음도 같이 멀어진 것일까? 몇 년 전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생각해보았을 한국의 정치나 경제 방면의 소식들조차 최근에는 예전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고 대학 입시 문제로 생활이 바빠지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사회를 향한 나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 같다. 내 앞가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고 내 자신에게 변명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이유일까? 아니면 단순히 나를 변호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일까?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다거나,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곳 북경에서 한국의 수출품이나 한국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일인 양 들뜨고,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근거 없는 한국의 나쁜 소식에 대해서 떠들 때면 무척 화가 난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그런 사소한 것들에 기분이 휩쓸릴 게 아니라, 한국을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더욱 큰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그 역사, 전통,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더 발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이곳 북경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외국대학을 가고,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거나 바빠지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모국은 대한민국이며,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뿌리이다.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에 애정을 기울이고, 한 층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동관한인상공인회 여성분과자문위원 및 중등부 교사 장옥희

2008년 처음 중등부가 신설되고 동관한인학교 중등부 학생을 맡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재중한국학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고 토요일에만 수업하는 것이라 수업의 효율성이나 연결성이 현저히 떨어져 한 학기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에서 중등 1학년 국어는 주당 5시간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주 2시간 30분 정도로 1학기 동안 매주 주간계획과 그 시간에 필요한 인쇄물을 평균 10쪽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 그나마 부족한 국어시간이 불필요한 시간들로 낭비되고 매번 자료 분실 학생이 생기고 수업 후에는 자료를 버리는 학생들을 보니 물자절약차원에서나 부득이하게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서나 한권의 교재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참고 교재를 제작하여 중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참고교재 안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중점 핵심 정리와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도모하려 교과서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배경설명을 첨부하고 교과서 시 외에도 꼭 읽어야 할 현대시 34편도 수록하였음 학생들이 그 동안 써 왔던 생활문, 편지글, 우리 반 활동사진 등을 넣어 230쪽 짜리로 구성되었다. 참고 교재 예시문도 반 학생들 이름을 모두 넣어 편집하니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풀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높이며 교사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수업 진도면에서 빠지는 단원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

참고 교재가 마련이 되니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시로 이루어진 동요를 선창하여 가르쳐주고 긴장감을 풀게 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귀에 익숙해 질 때까지 국어 예시문을 동요에 나온 시를 활용하여 파지 효과를 높인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글쓰기 문제에서는 읽고 생각하는 ‘나만의 글쓰기’ 노트를 만들어 이벤트 과제를 내며 어려운 주제를 피하고 쉽게 생각하여 쓸 수 있는 과제부터 ‘나의 하루’, ‘나의 희망’, ‘내가 읽은 책 소개하기’, ‘교과서 소설 뒷부분 상상해서 써보기’, ‘태극기의 의미’, ‘개천절 삼행시와 훈민정음 사행시 짓기’ 등의 이벤트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부모님과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다.

재중한국학생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그렇지만 뜻을 알면 더욱 아름답고 재미있는 우리글과 속담 등을 소개하고픈 마음에 주간학습계획서의 한 코너를 이용하여 매주 하나씩, 집에서도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1학기에는 우리말 어원이라는 코너를 소개하였고, 2학기에는 우리말 속담

을 소개하고 있다.

국어교육은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민족의 얼과 기상을 습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재중국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중국고의 비즈니스에 가고 역할을 할 동량들이다. 지속적인 국어교육을 토대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을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들의 밝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9 Collection of Academic Conferences' Theses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This repor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s a collection of 15 theses, which have been published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plus two other theses,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during 2009.

On November 7, 2009,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jointly held an academic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the Research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at Chung-ang University. Here, important theses for South Korea's policy on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were included, such as a thesis on the meaning of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unabridged and unified Korean dictionary) and a thesis on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Saeteomin)'s adapting to the South Korean language.

On November 27, 2009,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ointly held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Seoul AW Convention Center. There were 9 theses announced at the conference, including those about the Korean language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Germa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re-unification in Germany,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overseas Koreans.



Lastly, on October 20~21, 2009, the academic conference of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was held at the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y, Uzbekistan. Two researcher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nounced theses on the current status of building North Korean language data an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language research, respectively, which allowed South Korea's efforts towards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to be outlined both to the scholars in the region and overseas Koreans.

Key words: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language policy,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building language data, current status of research

담당 연구원: 김 선 철(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14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일	2009년 12월 28일
인 쇄	크리홍보주식회사
